

12
23+0
117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6
2013





4

6월의 테마 토크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발표 후 1년, 100년 후 미래유산의 가치를 둔다

2012년 6월, 격동기 근현대사의 무대였던 서울시의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현장, 인물의 발자취나 생활상을 등을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보존하여 2천년 고도 서울의 역사성을 이어간다는 기본구상이 발표되었다. 이어 2013년 5월엔 백사·장수·구룡마을 등 달동네·판자촌을 재개발할 때 개발 과정을 기록하고 주택 일부를 사들여 옛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만드는 방안 등도 연구 중이다. 기존의 문화유산 개념에서 소소한 생활문화유산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미래 유산의 가치를 되새겨보고 그 변화의 의미를 짚어본다.



20

사람과 사람

만화가 박재동

문화예술인과 일반인이 구분된 형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만들 때의 기쁨, 그 상상을 초월하는 즐거움을 느끼라며 나름의 상식과 취향을 강조한다.



54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아주 평범한 삶의 예술

작가에게는 세상에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시민에게는 생활 속 예술 감상의 기회를 주는 기특한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이번에 소개할 프로젝트 참여 작품은 윤신혜 작가의 <헬스>와 <가족>이다. 작품들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일상 찰나의 순간에 담긴 삶의 구성 요소를 포착한다.

Contents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 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조선희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 제이콘텐트리 디자인 시호워크
사진 스튜디오 봄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발행일 2013년 6월 3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육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
어주는 디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 | |
|--|--|
| <p>02 커버 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백승민</p> <p>테마 토크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발표 후 1년,
100년 후 미래유산의 가치를 묻다</p> <p>06 서울의 미래문화유산, 선택만큼 태도가 중요
미래유산화 프로젝트 점검</p> <p>07 왜, 지금 미래유산을 논하는가
미래유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p> <p>10 늦었지만 절실한 이유
사라져가는 서울의 유산, 그 현장을 보고</p> <p>17 미래유산의 성패, 시민의 마음에 달렸다
1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p> <p>사람과 사람</p> <p>20 만화가 박재동
“만인이 예술과 창작을 할 수 있는 존재야”</p> <p>24 한솔제지 대표이사 이상훈
종이는 평등하니까</p> <p>26 커버전스형 아티스트 전병삼
수직을 수평으로 만드는 전방위적 탐험,
새로운 행복을 만들다</p> <p>30 진실 혹은 대담
올바른 선택과 집중, 왜 안 되나?</p> <p>36 예술가의 밥그릇
예술을 나누는 사람, 미술치료사</p> <p>38 서울 찰나</p> <p>이슈&토픽</p> <p>40 쟁점 1
타인의 지적 재산을 탐하지 마라</p> <p>42 쟁점 2
공공사색 公共四色, 공공사색 公共思索</p> <p>44 화제
바보야, 문제는 콘텐츠를 대하는 방식이야!</p> | <p>공간, 공간</p> <p>46 서울연극센터 PLAY-UP 아카데미
진정한 배우로 거듭나는 시간</p> <p>48 신당창작아케이드
여기는 시장? 아니 예술 공작소!</p> <p>50 음악의 소우주, 풍류방과 실내악
연희풍류극장 <몽십야>와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p> <p>52 전시장에서 마주한 다양한 시각의 역사 기록
우아한 세계展 & 미래는 다양한 방향들로부터 온다展</p> <p>54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p> <p>56 예술적 상담소</p> <p>SOUL OF SEOUL</p> <p>58 이장희의 서울 스케치 여행
아주 오래된 다리들</p> <p>62 서울 단상
삼청공원 푸른 그늘</p> <p>64 결정적 순간
6·25, 그 긴박했던 시절의 작가들</p> <p>68 고재열의 셀(設)
계동이 아니라 모범이 필요해</p> <p>70 장병욱의 재즈 스토리
기타리스트 박주원</p> <p>72 세상을 살리는 아이디어
기부를 설파하는 재기발랄한 방법</p> <p>서울문화매뉴얼</p> <p>74 6월 Calendar</p> <p>82 공유 페이지</p> <p>84 편집 후기</p> |
|--|--|



1



2

이달의 표지 작가 백승민

“표지작 <SCENE #5>는 DIVERLAND(디밸랜드)프로젝트의 <SCENE> 시리즈 중 다섯 번째 작품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동시대의 부정적 경험과 사건을 바탕으로 본인이 만들어낸 가상 국가에 빛대어 풍자한 것입니다. <SCENE> 시리즈는 가상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중 한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표지작은 국가의 연례행사인 만찬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커다란 쟁반 위에 고깃덩어리와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가 올려져 있고, 그 위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앉아 있습니다. 과도하게 뒤엉켜 쌓여 있는 형상은 각 개체들의 개별 상징을 상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대칭을 위한 조형적 장치로만 기능할 뿐 관람자로 하여금 어떠한 감정도 할기시키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DIVERLAND(디밸랜드)프로젝트의 작품들은 본인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텍스트로 작성된 가상의 국가에 대한 내용을 이미지로 구현한 것입니다. DIVERLAND(디밸랜드)라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와 세부적인 이야기, 국가 디자인 등을 작업의 주요 모티프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작업이 모여 유기적인 하나의 큰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텍스트에 명시된 내용은 주로 은유와 상징의 방법으로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표지작)
SCENE #5
91×91cm, Acrylic,
Oil on Canvas, 2011

1 SCENE #6
130.3×291cm, Acrylic,
Oil on Canvas, 2012

2 SCENE #7
193.9×390.9cm, Acrylic,
Oil on Canvas, 2012

3 MASTERPLAN_PART 2-8
129×129cm, Acrylic,
Oil on Canvas, 2010



3

“현재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관찰하면서 영감을 받습니다. 사람의 행동, 사람들 간의 관계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규칙, 제도, 구조를 관찰하고 의문을 가져보고 이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동식물의 형태와 생태 등을 관찰하면서 작품의 조형적 측면의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열대 지방에서 서식하는 식물들에게 부쩍 관심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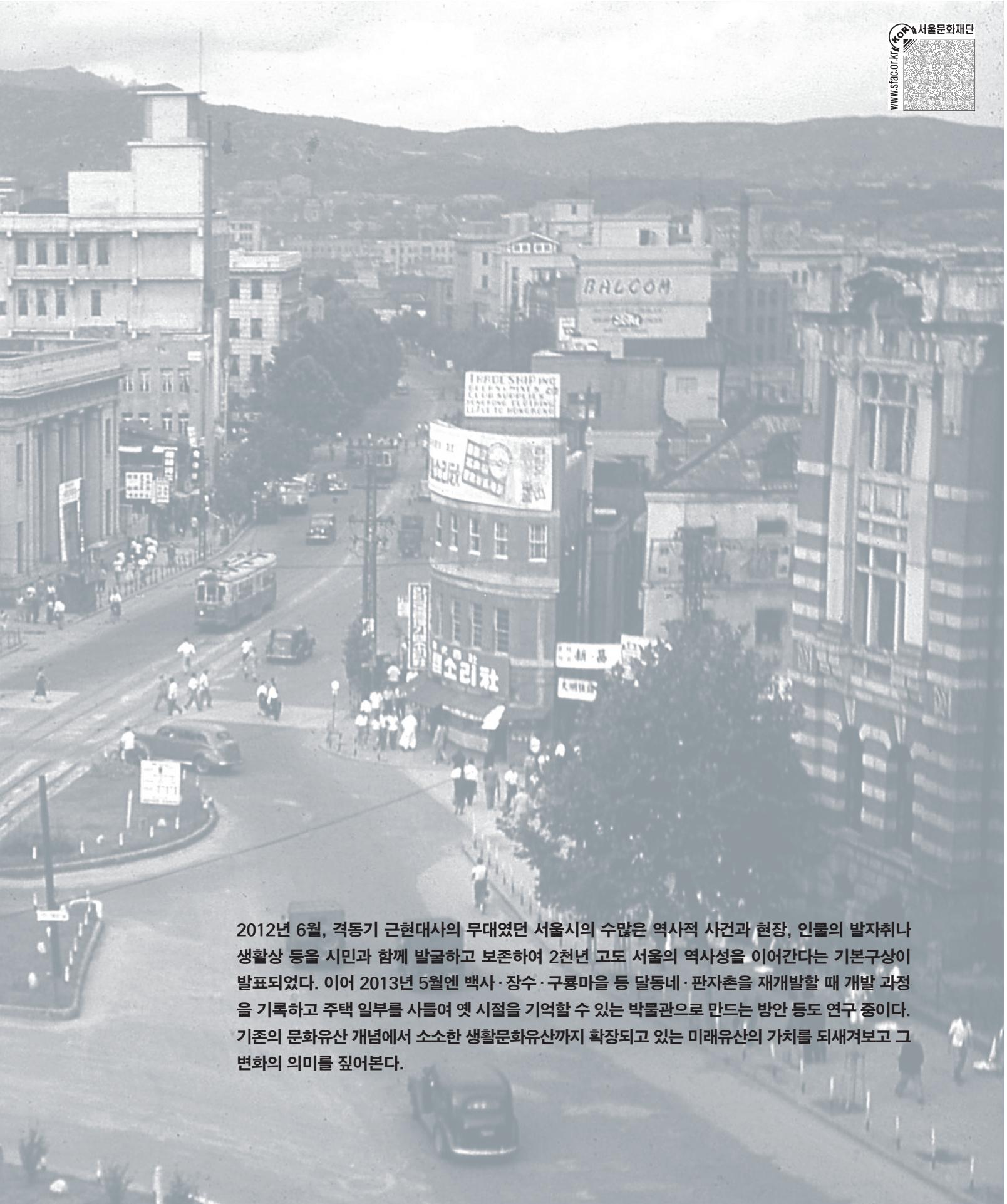
“현재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63 Sky Art 미술관’에서 열릴 개인전을 위한 작업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작업은 이때까지 손으로 직접 그리던 회화 작업 방식에서 탈피해, 디지털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술장작지원을 받아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백승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시각디자인과 졸업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대학원 수료
2011년 TV12 갤러리 첫 개인전
2012년 송은문화재단 전시후원으로 송은아트큐브에서
두 번째 개인전 오픈
그 외 20여 회의 단체전 참여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발표 후 1년,
100년 후 미래유산의 가치를 묻다



2012년 6월, 격동기 근현대사의 무대였던 서울시의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현장, 인물의 발자취나 생활상 등을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보존하여 2천년 고도 서울의 역사성을 이어간다는 기본구상이 발표되었다. 이어 2013년 5월엔 백사·장수·구룡마을 등 달동네·판자촌을 재개발할 때 개발 과정을 기록하고 주택 일부를 사들여 옛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만드는 방안 등도 연구 중이다. 기존의 문화유산 개념에서 소소한 생활문화유산까지 확장되고 있는 미래유산의 가치를 되새겨보고 그 변화의 의미를 짚어본다.



서울의 미래문화유산, 선택만큼 태도가 중요

중국작가 송동의 어머니가 30년간 모아온 다양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분류하여 늘어 놓은 대형설치물 '버릴 것 없는'이 2006년 9월 광주비엔날레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그것은 보기에 따라 쓰레기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개인사의 요약이자 중국 현대사의 축약본으로 평가되었다. 2012년 6월에 발표된 서울시의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기본구상도 '버릴 것 없는'이라는 작품 의도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제, 문화유산도 시민의 소소한 일상품까지 확대되는 소중한 시대가 열린 것이다.

글 이정훈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2012년 6월 서울시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서울시내 문화유산 1000선을 시민과 함께 선정하고 2014년까지 이 중 100선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과 더불어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있는 계획과 실행방안을 발표하였다.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의 기본구상은 그동안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이 근대 이전에 치중하여 1900년대 이후 근현대사 유산의 보존과 20세기 삶의 기록이 가지는 잠재적 가치에 대해 방관했던 천만 서울시민들의 인식 확대와 공감을 통해 새로운 서울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 교토시는 도심부의 전통가옥 거리를 그대로 보존하였으며, 싱가폴은 도시개발 정책에 있어 ‘철거 후 재건축’에서 ‘적응적 재사용’ 정책으로 ‘가정집 겸 가게(Shop House)’를 보존하고 있다. 건물 외벽 하나 허물지 않고 보존 정책을 고수해왔던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미래문화유산 보존을 통해 관광수입이라는 환원적 가치를 특특히 누리고 있다.

이처럼 무한한 가치가 기대되는 미래유산 보존계획과 관련하여, 2004년 서울시립대학교(서울학연구소)에서 이미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보존활용방안 연구’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엔 목록화에 그치고 보존 및 관리대책이 부실하여 유명무실이었다.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서울시는 2012년 10월 ‘미래유산 보존위원회’를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하고 1, 2차 심의를 거쳐 약 300여 건의 미래유산 선정 검토 후보군을 확보한 상태다. 서울 속 미래유산 선정을 위해

시민공모와 자치구, 민간단체로부터 후보대상을 신청받는 등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진행할 뿐만 아니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를 시리즈로 내고 있어 고무적이다.

한편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유형유산 중심의 미래유산화 프로젝트와는 달리 서울 사람들의 기억, 그 이야기를 채록하고 활용하는 「메모리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엔 미래의 새로운 직업군으로 떠오를 수 있는 기억수집가들이 투입되어 시민의 목소리가 역사가 되고, 이야기가 예술이 되는 무형의 미래문화유산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옛 마을의 일부 모습을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미국의 문화비평가 스콧 피거슨이 본지에 서울시의 피맛골 정책을 ‘피맛골의 강간’이라고 질타하고 “한국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최상의 방법은 피맛골 같은 랜드마크를 파괴하고, 영혼이 없는 고층건물을 세우는 것”이라고 반여법적 글을 기고한데 비하면 엄청난 변화이다. 바야흐로 시민이 역사의 주인이고 미래문화유산을 창조하는 주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6월, 서울시가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계획을 발표한 지 일 년, 그리고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의 「미래유산 마스터플랜」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앞으로 100년 이후 보물이 될 서울의 미래유산과 관련된 그간의 진행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미래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어떤 인식과 태도로 역할이 보완되고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본다.

왜, 지금 미래유산을 논하는가

서울의 역사적 사건과 흔적을 담고 있는 것들은 오직 남대문이나 광화문뿐만은 아니다.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사사롭고 광범위하다는 의미다.

글 이상배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원 사진 중앙포토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1930년대 한국은행 근방. 아름다운 이 분위기, 건물들은 다 사라지고 없다.

역사가 증명하듯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흔적을 남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유럽의 다양한 성당 등이 그런 흔적을 담고 있는 유산들이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선조들이 남긴 이러한 흔적들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보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흔적들을 일반적으로 문화유산(文化遺產)이라고 말한다. 문화유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미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

과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이 귀중하고, 이를 잘 보전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문화유산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한다.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문화유산이 있고, 이것이 훗날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는 사실에는 둔감한 것이다. 이 망각을 일깨우기 위해, 우리 시대의 유산 가운데 역사 및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려 보전하자는 생각에서 나온 화두가 바로 '미래유산'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가치, 미래유산

그렇다면 미래유산이란 무엇일까? 앞서 소개한 문화유산의 개념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즉 미래유산이란 '현대인들이 미래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현대사회의 문화적 소산과 정신적·물질적 문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이 살아온 20세기 삶의 흔적들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래유산은 눈에 보이는 장소, 물건뿐만 아니라 놀이, 지역 고유의 의식 등 무형적인 것까지 두루 아우른다.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장소다. 장소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20세기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장소. 일제식민지, 광복, 미군정,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10월 유신, 민주화운동, 대통령직선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나 이 사건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모여 사건의 시발점이 된 곳 등이 대상이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났던 탑골공원 같은 곳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대의 문화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장소도 포함될 수 있다. 서울 최초로 세워진 다방·이발소·종국집·한복집·유치원·고아원·문방구·여인숙·목욕탕·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 등은 20세기 삶의 유형을 미래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들이다. 흔적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시대에 인기를 끌었던 영화나 드라마 혹은 가요, 문학작품과 관련된 장소도 의미가 있다. 20세기 건축 양식의 특징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나 한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건조물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물론 작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가나 건축가의 생가 혹은 작품 활동을 하던 장소 등도 역사성을 가진다. 50년 이상 지속되어온 골목길의 모습, 특정한 목적이나 계기로 형성된 마을, 집 성촌, 산업단지 등 지역 특화된 고유의 삶이 남은 장소도 미래유산으로 보존되어야 마땅하다. 역사성과 사실성을 기초로 한 스토리가 있는 공간 지역이나 건축물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6·25전쟁 이후 지식인들이 주로 이용했던 학책방이나 적은 돈을 가지고 시대의 아픔을 논했던 피맛골,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찾아가던 미아리 일대의 점술가 집성촌 등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

20세기에 급격하게 변화된 문화 양식과 관련된 것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대별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의류나 실생활을 보여주는 기록물, 이미지 자료, 실생활에 이용된 각종 생활 도구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컴퓨터·카메라·라디오·시계·다리미·재봉틀·냉장고 등 오래된 생활용품은 물론 부모님이 평생 써온 일기나 한 시대 또는 서울의 한 장소를 찍은 사진 자료나 그림들도 현대사회를 잘 보여주는 자료로서 미래 세대에게는 자산이 될 수 있다.

무형의 자원 역시 미래유산에 포함된다. 현재까지 전승되어 내려오는 지역 고유의 의식이나 놀이 등도 그 대상이다. 한 집안이나 마을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계(契)나 대동제, 공동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제례의식 등이다. 이들은 현대인들의 민속과 생활양식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대사회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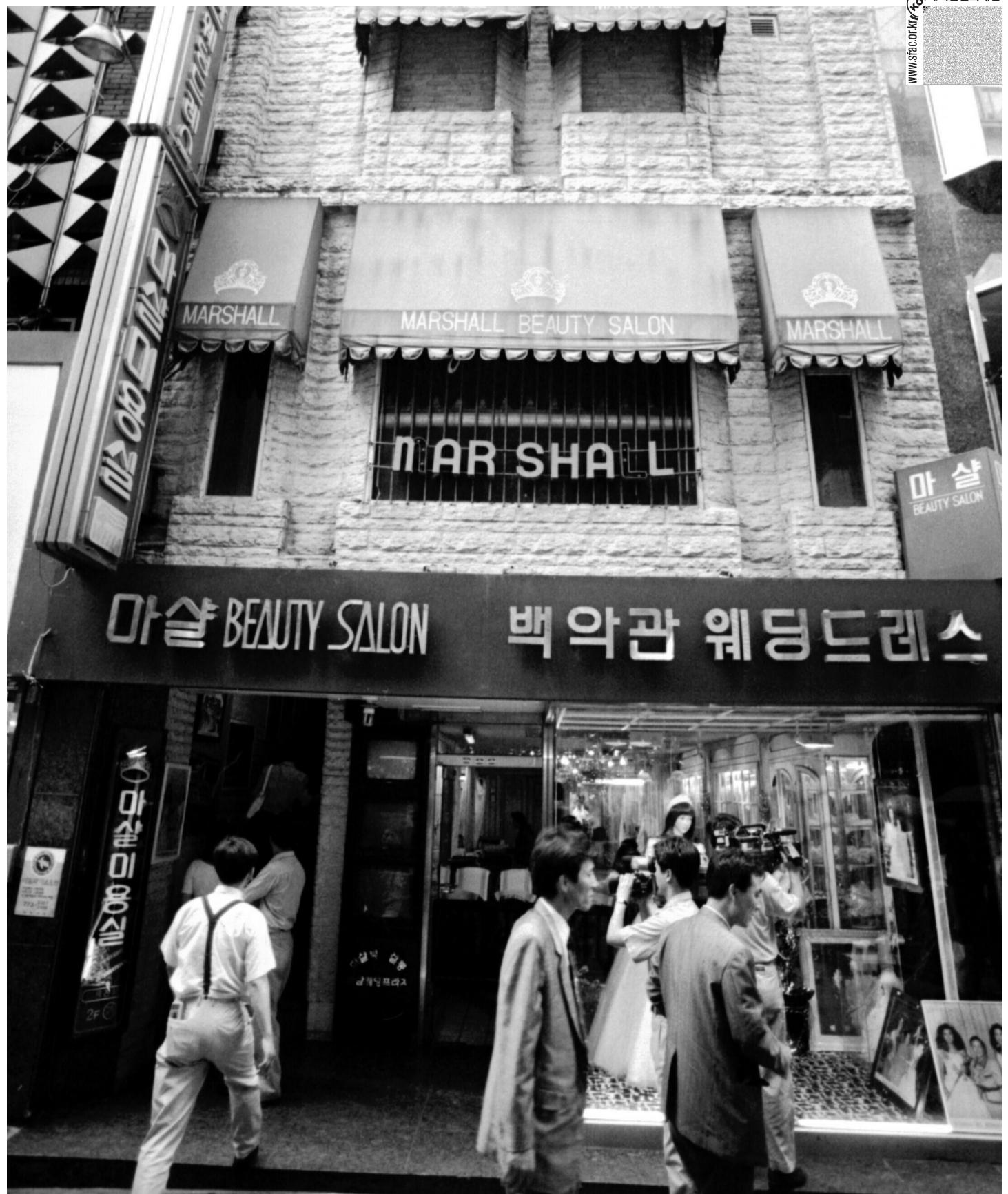
신적 구심점 역할을 해온 종교계의 유산도 매우 중요한 미래유산이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각종 종교단체를 이끌어 온 중심 인물들의 음성 자료와 사회적 혼란기에 대중의 안식처가 되었던 공간이나 당시의 기록물 등도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남겨야 할 자료들이다.

왜 미래유산이 보존되어야 하는가

서울은 1970년대 이후 너무도 급격하게 변했다. 곳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섰고, 옛 가옥과 건축물들은 도시개발이라는 명목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비단 수십 년 전의 일만이 아니다. 현재도 도심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이라는 이름 아래 미래에 전해주어야 할 대상 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사라져가고 있다. 서울 도심이면서 아파트가 들어선 곳 대부분이 그 현장이다. 이러한 속도로 도심의 생활공간이 모두 아파트로 변해버린다면 미래 우리의 후손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미래유산 지정이 왜 필요 한지를 알 수 있다.

과거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문화유산에서 우리는 분명 자긍심과 깊은 감동을 느낀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소실될 때 왜 전 국민이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렸을까? 숭례문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과 역사성 및 이 대성물을 통해서 느껴온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송두리째 무너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유산은 비록 과거의 산물일지라도 단지 과거의 틀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어 삶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유산은 과거를 기억하는 힘의 원천이며, 그 기억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근현대 생활유적을 미래유산으로 남겨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20세기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물려줌으로써 그들이 나고 자란 역사를 인식시켜 그들 인생에 자신감을 주는 것이다. 미래 세대는 가깝게는 곧 우리의 자녀이자 손자 손녀들이며, 그들의 뒤를 잇는 세대라는 점에서 멀지 않은 후손들이다. 그들의 삶을 위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다 많은 유산을 보존하여 물려주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자 책무다.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서울시는 조금 뒤늦었지만 의미 있는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서울시가 가진 미래유산을 지정하고 보존에 나설 계획이다. 올 3월까지 선정한 리스트에는 우리나라 영화 흥행사를 대표하는 피카디리극장은 물론 낙원 악기 상가, 구로 기계공구 상가,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우리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리스트에 있건 없건, 우리의 문화를 대변하고 후대에 남길 수 있는 미래유산은 아주 많다. 미래유산 선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사그라져가는 것들의 의미를 돌아보고 가치를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남긴 것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시작될 때 더 나은 미래도 따라온다. 미래와 현재는 나뉜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 때문이다. 미래유산 지정 사업이 현재와 미래 문화를 잇는 소중한 가교가 되기를 바란다.



종구에 위치한 마살미용실은 51년 역사를 지닌,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미용실이다.

늦었지만 절실한 이유

미래유산은 현재 급속히 그 자원이 없어지거나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후보대상들은 역사적·상징적 가치가 있음에도 파손이나 소유자의 주거 및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거나, 재산적 가치를 위한 증축과 개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그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현진건 집터와 피맛골이 사라졌고 공간건축 마저 내부사정으로 매각설에 휩싸이며 미래 향방이 모호한 상태다. 이러한 미래유산의 현실을 들여다보았다.

글 권기봉 작가·역사여행가 사진 김춘호, 종양포토

현존 최고(最古) 시민아파트

다 스러질듯 읊씨년스러워 보이는 회현 제2시범아파트에는 여전히 삶이 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도 세 상도 변했지만 아파트만은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존속하고 있다. 이 땅에 아파트가 처음 들어선 것은 일제강점기였고, 한국인의 손으로 아파트를 세운 건 지난 1958년 중앙산업과 주택영단이 건설한 4~5층짜리 '종암 아파트' 3개 동이 최초였다. 아파트는 한국전쟁 뒤 빠른 속도로 증가하던 서울 인구를 받아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다. 1960~70년대 이후 부동산 투기나 부실 공사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기는 했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몸을 누일 공간이 절실하던 시대에 아파트는 한국 주거 문화에 일대 혁명적 변화를 몰고 왔다.

하지만 '한국인이 만든 최초의 아파트'인 종암아파트나 마포아파트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사람이 살기에 너무 낙후됐다며 모두 철거된 지 오래다. 그렇기에 1970년 완공된 '회현 제2시범아파트'의 의미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남산 자락에 서 있는 회현 제2시범아파트는 서울을 넘어 한국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시민아파트다.

한곳에서 보일러를 때는 종암집중 난방과 집집마다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 회현 제2시범아파트는 이전의 아파트들에 비해서도 획기적이었다. 그전까지 아파트에서도 연탄을 때고 층마다 공동화장실을 뒀던 것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또 10층까지 오르내리는 것을 돋기 위해 6층 정도 높이에 외부로 통하는 구름다리를 놓기도 했다. 가파른 남산 중턱에 자리했다는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대목이다.

그랬기 때문일까? 이 아파트에는 비교적 경제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중에는 은방울자매나 윤수일, 문호장 씨 등과 같은 연예인들도 있었다. 도심에서 가까운 데다 당시 남산에 있던 KBS(현 서울애니메이션 센터)에 오가기 편했기 때문인데, 와우아파트 봉괴사고 직후 지어진 뒷에 그전의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것도 매력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 아파트도 지난 2006년 안전검사에서 위험시설 D등급으로 판정돼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아직까지 적절한 보상이나 이주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일부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거주하고는 있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아파트도 역사의 뒤풀길로 사라지고 말 운명이다.



1970년 지어진 회현 제2시범아파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시범'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름 지어졌다. 여전히 건재하며 이를값을 하고 있다.

사람 사는 맛이 나지 않는 피맛골

거주 공간도 사라지는 판국에,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는 공간도 역시 영문 없이 사라져가기는 마찬가지다. 의미와 가치가 널리 인식되기도 전에 퇴물 취급을 받은 결과다. 서울 도심의 둑도 없는 먹자골목 '피맛골'이 꼭 그러하다.

종로와 나란히 서울의 동서를 잇는 피맛길을 중심으로 양옆에 크고 작은 식당들이 들어서면서 조성된 피맛골은 한국 대중 음식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1920년대에 연계탕과 갈비구이를 대중적인 상품으로 내놓기 시작한 전동식당이 이곳에 있었고, 한국에서 '낚지볶음'이란 것이 식당 메뉴로 처음 등장한 곳도 1960년대 초의 피맛골이다. 집에서나 먹던 냉면이나 떡국, 대구탕도 모두 이곳을 기반 삼아 메뉴화되어 전국으로 퍼져 나갔고, 아예 '해장국' 하면 피맛골 초입의 청진옥을 떠올릴 정도다. 걸모습은 허름하기 그지없었지만 맛에 있어서는 어느 가게에도 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피맛골에 간다 한들 그 다양하고 깊은 맛을 보기 힘들어졌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60년에 가까운 역사를 끝으로 정든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근처의 새 빌딩으로 옮겨간 집들도 있지만 예전의 그 서민적인 분위기를 기대해선 안 된다.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좁고 낡았으며 게다가 불결하기까지 하다는 이유로 재개발 등쌀이 피맛골에까지 밀려든 결과다.

물론 속도전 치르듯 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 걱정하던 이들이 없던 것은 아니다. 서쪽 피맛골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시진행방 가운데 하나인 어물전 터가 발굴됐을 때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먹고 살던 생활상을 연구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개발 이익을 최고시하는 세태에서 개발 중단 혹은 속도를 조절한 개발이란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꿈에 불과했던 것 같다. 현재 그 자리에는 대형 오피스빌딩이 가득 들어서 있으며, 또 들어서고 있다.

헐려 나가는 문인들의 집

서울 부암동을 걷다 보면 커다란 바위에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 '무계동'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그림뿐만 아니라 가야금에도 능했다는 안평대군은 특히 글씨에 뛰어나 당대 내로라하는 명필로 꼽혔다.

그런데 이곳에 안평대군의 이야기만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운수 좋은 날>로 유명한 소설가 현진건의 집터가 '무계동' 옆에 위치해 있다. 현진건은 지난 1936년 '일장기 말소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인물로, 출소 이후에는 신라의 아름다움을 부각한 역사소설 <무영답>을 동아일보에 연재해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그 소설을 구상하고 집필했던 곳이 바로 이곳에 있던 부암동 고택이다. 다만 현진건 고택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지난 2003년 공용주차장을 만든다며 헐어버렸기 때문이다. 소설가가 작품 활동을 했다는 역사는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이 집터마저도 지난해 말 법원경매 매물로 나오는 설움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은 아직 까지 그 부지에 주차장도 그 어떤 건물도 들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다. 주차장을 만든다며 유명 소설가가 집필 활동에 몰두하던 집을 허물어뜨렸으면서 여태 공터로 놀리고 있는 모습이 영 마뜩잖아 보인다. 앞으로 이 터가 어떻게 이용될지도 오리무중이다.

그러고 보면 예술가의 집이 무참하게 헐려 나가거나 경매로 나온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육당 최남선이 말년을 보낸 서울 우이동의 고택 '소원(素園)'도 현진건 고택이 헐리던 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버지의 친일 행적이 자꾸 회자되는 것이 못마땅했던 후손들이 건설사에 땅을 팔아버린 결과다. 지금 그 자리에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최남선의 향수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주상복합 빌라만이 덩그러니 들어서 있을 뿐이다.



(좌)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서민의 먹거리 골목, 피맛골. (우) 이제는 멀쑥한 대형 빌딩 안으로 자리를 옮겼다.



(좌) 근대문학의 선구자이자 역사학자 최남선 자택. (우) 자택 자리에는 오피스텔 빌딩이 들어섰고 소원바위만 남아 그 흔적을 알린다.



사실주의 문학의 기틀을 마련한 작가 현진건의 생가. 현재 빈 공터 상태다.

갈 곳 잃은 공간건축

더욱 놀라운 아이러니는 옛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는 데 꼭 필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인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의 사옥 역시 앞날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발 시대 아래 다양한 건물 설계를 잇따라 따내며 승승장구해온 ‘공간건축’ 이야기다.

지난 1960년 고 김수근 씨가 설립한 공간건축은 반세기가 넘도록 서울 잠실의 88서울올림픽주경기장을 비롯해 남산의 타워호텔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서울 법원종합청사 등 한국 건축사에 있어 금직한 건축물들을 여럿 설계해왔다. 김원이나 승효상 등 현재 60대 이상 주요 건축가들의 절반 가량을 배출해내기도 했으며, 지난 2011년에는 매출액 296억 원을 기록해 업계 6위권에 오를 정도였다.

공간건축 사옥이 일개 건축사 사무소의 사옥을 넘어 한국 건축 문화에서 중요성을 띠는 이유는 한국 건축계의 풍운이었던 김수근 스스로 ‘선물’이라 표현했듯 그가 고민해온 ‘한국적 건축’의 집대성과 같기 때문이다. 일례로 모호한 경계 사이로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는 실내 구조는 오르내리는 사람을 언뜻 번거롭게 하는 듯하지만 끊임 없이 유동하면서, 지금은 사라져가는 전통 골목길의 포근함을 느끼게 해준다. 김덕수파의 사물놀이와 공옥진의 병신춤 등이 공간건축 사옥 지하 한쪽의 공연장에서 탄생한 데에서 보듯 공간건축은 일개 건축사 사무소를 넘어 지난 1970년대 후반 소극장 운동이 태동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 공간건축이 올해 초 최종 부도 처리됐다. 최근 리비아나 알제리처럼 혁명의 기운이 드높았던 북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에서 용역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데다 국내의 끝 모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미수금이 누적됐고, 정관계 인허가 비리로 얼룩진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 설계비 100억여 원을 떼인 것이 결정타였다고 한다.

결국 사옥도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행여 소유권이 사기업으로 넘어갈 경우 애초 공간건축 사옥이 지난 특성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문화재단 등이 매입해 공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결국엔 철회되고 말았다.



담쟁이 넝쿨 무성하게 휘감긴 공간 사옥 앞. 커다란 고유의 서체로 존재를 알린다. 이 존재감과 가치를 알아주고 이어갈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간 사옥에 대한 단상

해방 이후 최고의 건축물로 꼽히는 공간 사옥을 둘러싼 안타까움을 기록하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미래유산을 대하는 방향을 유추할 중요한 단초를 보고 있다.



안국동에서 돈화문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원편에 큰길로부터 물러서 있는 현대 사옥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옆으로 하얀 명조체의 공간(空間)이라는 큰 글자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검은 벽돌집이 보인다. 바로 공간 사옥이다. 7, 80년대에 문화를 누린 이들에게는 공간사랑이라는 말이 더 익숙할지도 모른다. 옛 선비들의 사랑채와 같은 그 이름 속에서 ‘전통예술의 밤’, ‘현대음악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무용, 음악, 시낭송, 재즈 등의 공연과 이벤트가 끊이지 않았던 텃이다. 그 이외에도 꼭두극, 공옥진의 춤, 남정호의 현대무용, 연극 <장사의 꿈> 등 이루 열거하기도 벅찬 공연들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너무도 익숙해진 이름인, 4명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 최고의 소리 ‘사물놀이’가 그곳에서 이름 지어지고 또 시작되었다.

1977년 신관 지하의 공간사랑이 개관하기 전에는 구관지하 공간을 공간사랑이라 불렀고 그 안에서 공연과 전시가 교대하며 벌어졌다. 이후 그곳 구관 지하는 공간 갤러리라는 별도의 이름을 가졌고 당대를 앞서가는 기획전, 국제 판화공모전 등이 꾸준히 열렸다.

분명 30여 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지금 우리 주변, 많은 문화예술 활동들의 초석이 되었다. 그리고 진정 오래되었으되 우리들의 미래를 그 속에 품었던 귀중한 장소로 기억되고 있다. 또한 이 장소를 만들고 키운 건축가, 어느 해 태임 지가 ‘한국의 메디치 데 로렌초’라 불렸던 고 김수근의 이름도 이곳에서 함께 기억되고 있다.

‘공간 사옥’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만들어졌다. 1972년 지어진 구관, 1978년의 신관 그리고 김수근의 타계 후 사무실을 떠맡은 장세양이 설계한 유리 별관이 그것이다. 사옥의 지상부는 설계조직 공간연구소, 잡지를 발행하는 공간사, 생활디자인 제품을 만드는 공간디자인 파트가 일하던 곳이다. 모두들 문화 생산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김수근은 그 모든 활동의 지휘자였다. 적어도 김수근이 너무 일찍, 1986년 5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랬다.

몇 년 후면 이 장서의 이야기들은 이제 30년의 전설이 된다. 그 기간 동안 이 장소에서 벌어지던 여러 문화 활동들은 사실상 공백이다. 그 공백에도 불구하고 전설은 여전히 우리 주위의 여러 문화적 활동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장소가 우리 문화계에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모회사의 어려움으로 새 주인을 맞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 모두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해방 후 최고의 건축문화 유산이라는, 그래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이 장소의 의미는 그런 물리적 가치를 넘어선 곳에 있다. 그것은 이 장소가 가진, 미래의 문화를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잠재력에 있다.

우리 사회가 그러한 ‘오래된 미래유산’의 잠재력을 어찌 다루어갈지, 중요한 시험대 위에 올라선 셈이다. 그 잠재력을 다시 지속적으로 발휘시킬 수 있는 처방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우리 문화계에 지난 시간의 공백을 메우고도 남을 위대한 사건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글 이종호 건축가·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1974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흥선대원군의 별장, 석파랑. 개인 소유의 땅으로 약간의 보수를 거쳐 원형을 지킨 채 음식점으로 운영된다.

늦었지만 절실한 '미래유산' 보존 노력

서울은 오랜 기간 수도 역할을 해온 도시답게 곳곳마다 역사적 인물들의 생가나 작업실, 혼이 잠든 묘지가 산재해 있다. 건축사적이며 문화재적 의미와 보존 가치가 충분한 공간건축 사옥 같은 건물도 한둘이 아니다. 언론을 통해 조선인의 입장을 대변한 베델이나 3·1운동을 해외에 알리면서 일제의 폭압성을 고발한 테일러 가문과 같은 외국인의 흔적들, 구로공단이나 동대문 평화시장처럼 기실 경제개발의 주역이었으나 '공순이' '공돌이'라 업신여김당한 노동자들의 공간 등 격동기 한국의 기억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근현대사 관련 유산들이 합당한 의미 부여는커녕 아직 제대로 발굴되지도 못한 채 급속히 훼손되고 심지어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인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발표한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기본구상'에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다.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했던 근현대 역사문화 유산 가운데 시대적 대표성을 갖는 건물이나 공간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비단 눈에 보이는 건물뿐 아니라 그 장소의 시공간적 맥락에 주목하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다. 비록 고택은 사라졌지만 '이야기'가 남아 있는 현진건 집터와 최남선 고택 같은 '터'의 경우 아직 논의 중이라고는 하나 미래유산 예비목록으로 거론되는 것이 반갑다.

그동안 부수고 짓는 데만 익숙했던 한국 사회에서 예술가들의 숨결이 남아 있는 공간이나 주거 형태가 바뀌어 가는 과도기의 특징들이 오롯이 남아 있는 아파트, 그리고 공간건축 사옥처럼 제아무리 빼어날지라도 민간 소유물을 지켜가자고 하는 건 어쩌면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 지금은 '털지 않은 과거', 즉 근현대 유산이라고 하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결국 그 시대를 잇태한 오랜 유산으로서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유산 보존 노력이 늦었지만 절실한 일로 다가오는 이유다.

미래유산의 성패, 시민의 마음에 달렸다

미래유산화가 성공하려면 궁극적으로 근현대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서울시민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미래유산으로 만들 수 없다.

글 이광표 동아일보 기자 사진 중앙포토

2003년 12월,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다.

2003. 12. 26 동아일보

[메트로 스케치] 올해 서울에서 사라진 것들

청계고가 삼일고가 원남고가도로, 황학동 도깨비시장, 육당 최남선과 빙허 현진건의 고택,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달동네 난곡마을, 그리고 피맛골…

2003년 한 해 서울에서 사라진 것들이 다. 더러는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더러는 역사의 흔적을 무시한 채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욕망에 이끌려 사라져갔다.

‘햇볕이 잘 들어 난초가 무성하게 자란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편의점 신림7동 난곡(蘭谷)마을. 1970년대 이후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였던 이곳은 5월 완전히 철거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 난곡은 겨울 햇살 아래 중장비의 굉음이 울려퍼지고 있고 2006년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변신하게 된다. (… 중략)

1월 말엔 연세대 교내의 연합신학대학원 건물이 무참히 헐렸다. 1964년 건립돼

고더 양식의 멋진 자태 덕분에 연세대의 명물로 꼽혔던 건물. 대학 측은 교수들의 보존 주장에도 불구하고 1월 27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건물을 철거했다. “대학 지성의 봉고를 알리는 조종(弔鐘)이었다”는 한 교수의 외침이 지금도 귓전에 생생하다. (… 중략)

얼마 전인 11월 마지막 날, 청계천 복원 공사에 반대하던 노점상이 전격 철거됐다. 청계8가 황학동 도깨비시장도 포함돼 있었다. 서글프면서도 역동적이었던 곳, 황학동시장. 황학동의 소멸에 대해 많은 사람이 우려했지만 이곳 상인들은 동대문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겨 27일부터 좌판을 다시 펼친다. 이곳에서 황학동의 낭만은 계속될 수 있을지.

이광표 기자



지금은 강남으로 이전한 한일관의 옛 모습.

10년이 지났다. 근현대의 흔적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커지긴 했지만 서울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종로1가 피맛골과 주변 청진동 일대는 완전히 망가졌고 몰염치한 고층 빌딩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상황과 현실이 이렇기에 서울시의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프로젝트는 더욱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다. 2012년 발표한 기본구상을 보면 △마스터플랜 수립 △미래유산보존위원회 구성·운영 △시민공모 등을 통한 '서울 속 미래유산' 선정 △박경리 가옥 등 5곳 시범사업 △내셔널트러스트 활성화로 관주도 한계 극복 △미래유산 보호 관련 조례 제정과 세금감면 등 제도 개선 정부 건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시민공모 등으로 수집된 제안들을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통해 검토하여, 2013년 4월 현재 300여 건의 미래유산 예비목록을 작성했다. 앞으로 지속해서 예비목록을 축적하겠지만 우선 이들 300여 건의 미래유산 예비목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해나갈 것이다.

맞춤형 보존 및 활용의 중요성

기본구상안에 포함된 모든 사안이 다 중요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은 미래유산 각각에 어울리는 '맞춤형 보존 및 활용'이다. 잘 들여다보면 각각의 미래유산마다 특성이 다르고 처한 환경과 사연이 다르다. 이런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진행한다면 자칫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민들이 많이 찾았던 청진옥, 열차집 등 청진동 골목 식당들이 미래유산으로 다수 검토되었는데, 이들 식당은 상황이 좀 독특하다. 청진동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추억의 음식문화 공간은 그 장소성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다. 주변으로 옮기거나 새로 지은 고층 빌딩 속으로 들어갔다. 1937년 설립된 청진옥의 경우, 청진동 재개발 때문에 원래 자리였던 청진동 골목을 떠나 인근 르메이에르 빌딩 1층으로 옮긴 상태다. 건물도 분위기도 바뀌었다. 누군가는 음식 맛도 바뀌었다고 한다. 새로 옮긴 청진옥의 역사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의 연장으로 볼 것인가, 새로운 역사로 볼 것인가.

서울 강남구의 한일관 역시 마찬가지다. 한일관은 1939년부터 갈비를 비롯해 다양한 한정식의 맛을 3대째 이어오고 있는 집. 이 집은 원래 종로구 청진동에 있었다. 그러나 재개발 때문에 강남구 신사동으로 옮겼다.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간 한일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새 곳으로 옮겨간 한일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옮긴 한일관의 건물을 보존할 것인가, 역사와 콘텐츠만 보존할 것인가. 모두 보존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수십 년의 세월이 또 흐르면 새 건물 속의 청진옥, 한일관은 또 하나의 역사와 전통이 될 것이다. 그 자체로 생활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청진옥과 한일관의 역사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그 고민의 결과가 보존 방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어렵지만 흥미롭다. 그렇기에



53년 동안 신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홍의문고. 신촌의 주요 만남의 장소였다.

더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고 결국 미래유산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식당뿐만 아니라 서점, 이용원, 미용실처럼 누군가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공간도 그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 미래유산은 정지된 공간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살아 있는 공간으로 계속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영업을 계속 해나가는 일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상업 공간은 운영상의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소유주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맞춤형 대비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 대비는 재정 지원이나 세제 혜택과 같은 경제적 지원 제도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상을 놓고 논의하고 고민해야 한다. 미래유산에 단계적으로 어떤 위험과 위기가 닥쳐올 것인지 예측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상되는 위험에 맞추어 단계별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 준비는 치밀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소유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안 필요

2005년 9월 서울 명동의 대한증권거래소 건물이 철거되었다. 1923년 국내 최초로 증권거래가 이루어진 한국 근대 금융산업의 발상지이자 1979년까지 증권거래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었다. 당시 시민단체와 문화재청이 건물 보존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3층짜리 건물을 헐고 10층짜리 새 건물을 짓겠다는 소유주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다. 문화재청과 서울 종구청은 소유주에게 건물에 인접한 터의 용적률 완화, 세제 혜택 등을 제시하면서 보존을 권고했다. 그러나 소유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부족이었다. 그렇다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건물 보존을 강제할 수도 없었다.

근현대 유산 보존에 있어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연세대에서 조차도 근대 건축물을 무참히 철거하는 마당이다. 소유권자가 보존할 마음이 없으면 제도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별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제도와 정책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중 하나가 소유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역사적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후손들의 입장도 잘 배려하면서 보존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아버지 최남선의 친일이라는 상처가 덧나는 것 같아 건물을 철거하고 싶다”는 최남선 후손들의 이야기를 흘려보내선 안 된다. 이것이 근현대 유산의 특성이고 근현대 유산 보존의 현실과 어려움이다.

궁극적으로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서울시민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미래유산으로 만들 수가 없다. 이에 관한 고민과 논의가 없다면 미래유산을 향한 서울시의 노력은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깊이 있고 현실적인, 그리고 진심 어린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유산의 폭을 넓혀가는 일도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장르에만 머물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장르로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한 예로 문화예술 분과의 미래유산으로 거리조형물과 동상을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인이 예술과 창작을 할 수 있는 존재야”

만화가 박재동

문화예술인과 일반인이 구분된 형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만들 때의 기쁨,
그 상상을 초월하는 즐거움을 느끼라며 나름의 상식과 취향을 강조한다.

진행 이정훈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글 유나리 사진 김춘호

만화가로 시작해서 만화로 시대와 소통하는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만화가는 내 운명이구나 하는 큰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버지가 만화가게를 하신 덕에 자연스럽게 만화를 많이 보게 됐지. 하지만 만화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 그냥 수도 없이 많은 만화를 보면서 만화는 좋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지. 만화는 항상 인간적인 것을 다뤄. 항상 약자, 도전, 우정이 녹아 있지. 만화가가 되겠다고 의도한 적은 없지만 만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밀바탕에 갈려 있었지.

60, 70년대 만화광이셨죠. 부친께서 만화방을 하셔서 자연스레 만화가가 되었는지요?

중학교 때 혼자서 114페이지 분량의 만화를 그렸어. 그리는 것에 재주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자연스레 미대를 갔지. 내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만화는 예술 장르가 아니었어. 오히려 천시받았지. 그러다 한겨레에서 시사 만화자를 모집하는 것을 보고 후배가 추천해줬어. 한 번 해보라고. 그래서 '아 그래, 난 만화를 정말 좋아하지'라는 깨달음에 우연히 응모했고 당선된 거야. 만화가 밑에 들어가 도제 시스템으로 배우는, 그런 일반적인 방식으로 만화가가 되지 않았어. 그냥 나는 훌연히 나타났지. 그저 초·중학교 때 혼자서 엄청 그렸던 실력을 밀바탕으로. 희한하게도 한겨레에서 호응이 좋았지.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아동 만화와 신문 만화는 다르다는 차별 의식이 있었어. 신문 만화는 언제나 굉장히 짚잖고, 획일화된 구조였지. 근데 난 그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아동 만화에서 보던 그런 것들, 칸도 막 나누고 말풍선도 달고 친근하게 접근하면 훨씬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지. 그래서 아동 만화를 만평에 도입해서 아주 재미있게 그렸어. 다이나믹하게. 난 대중 예술을 중요하게 생각해. 시정잡배,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한 예술이야말로 진짜 생명력을 가졌다고 생각해.

그래서인가 '시사 만화는 박재동 전후로 나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만화와 시사를 결합한 이유가 있으세요?

당시에는 만화에 입문하는 방법이 오직 도제 시스템뿐이었어. 그래서 난 그냥 대학 가서 화가가 되려고 했어. <천지창조> 같은 것 한 번 그려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던 무명 화가였지. 마침 당시 시대에는 민주화가 주요 학제였어. 현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빨갱이 소리를 듣던 시절이었지. 민중예술을 하는 동인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만화가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만 있었지. 그러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돈으로 만든 한겨레가 생기면서 그것에 참여하기로 한 거지. 시사 만화를 그리려고 의도하고 시작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민주화 운동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한 거야.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 민주화 운동에 공모를 하려고 투입된 사람, 시대적 열망에 동참하고자 만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노력한 사람. 근데 하다 보니 이게 나한테 너무 잘 맞았던 거라. 잘하고, 잘 맞고. 역시 만화는 나에게 천직이라는 생각을 재확인하고 그렸어.

갑자기 왜 한겨레신문사를 떠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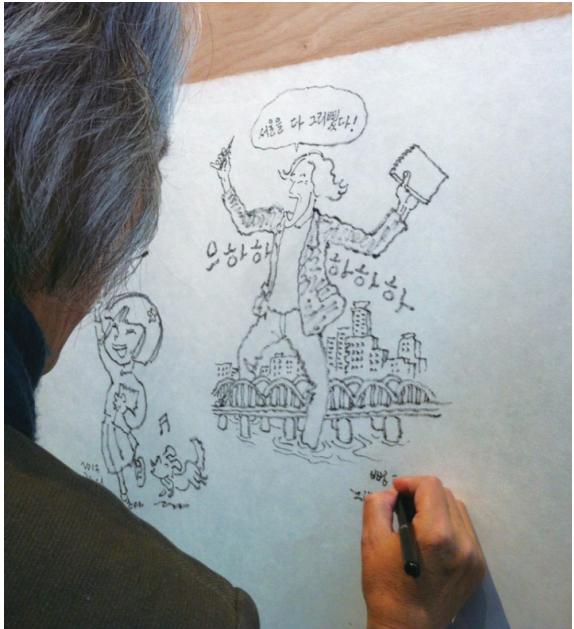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었어. 이제 시대가 민주화로 기울었으니 어느 정도 나의 소임은 다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문제인데, 스스로 소재가 고갈됐어. 나에게 나 스스로 뻔한 사람이 됐지. 나 자신에게 아이디어의 원천이 있는지 묻는 지경이 됐어. 안정적이지만 지루해졌지. 나는 언제나 만화가가 아니라 작가, 창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만화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월 해도 되니까 떠나왔지. 지금도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꿈의 지도가 항상 펼쳐지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계속 보여. (웃음)

이를테면 어떤 것들인가요?

너무 많아. 건축에 관심이 많아져서, 짓고 있는 집도 있어. 근데 만화도 그려야 하고, 교육에도 관심이 있고, 영화도 찍어보고 싶고. 너무 많아. 그래서 동시에 하나씩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 중이야.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것도 좋지만, 좋아하는 다양한 일을 하루에 5분씩만 계속한다고 쳐봐. 그게 10년 20년이 되면 엄청난 것이 되지.

자외건 타외건 만화로 역사를 엮어온 장본인이 되셨어요. 다음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시사 만화 파워가 참 세. 해외에서 강렬하고 에너제틱 하다면 놀랄 정도로. 내 뒤를 이어서 더 발전시켜서 잘 이어주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더 나이가 들면, 작업을 족 정리해보고 싶어. 나의 시사 만화와 내 이전의 선배, 후배들의 만화까지. 만화가 무언가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실을 기록할 때 편해. 역사 기록을 할 때 사료로 함께 쓰인다면 좋을 것 같아. 이건 개인적인 큰 꿈인데, 내가 언젠가 초석을 뒤을 테니 누군가 이어주기를 바라. 뭔고 하니, 모든 사람이 만화를 그리는 거야! 만화는 특정한 만화가가 그리는 것이 중심이지. 그러나 미래에는 모든 사람이 만화를 그리면 좋겠어. 여기서 말하는 만화는 엄청나게 정교하고 디테일한 그런 작품을 말하는 것 이 아니야. 표현의 한 수단, 방법으로서의 만화지. 지금은 글 쓰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글 쓰는 것이 큰 혜택이었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 근데 지금은 누구나 읽고 써. 글자로 의사를 교환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지. 만화도 지금은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의사표현을 위해 글을 쓰듯,



만화가 당연한 표현 수단 중 하나가 될 거야. 졸라맨을 그리든, 월 그리든.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도 만화의 표현 수단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항상 수첩과 펜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순간순간 기록해 두시려는 건가요?

응, 난 아직도 그림일기를 써. 내가 예전에 만화가 지망생이 만든 책을 한 권 받은 일이 있어. 만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못 된 사람이 그림 일기를 꾸준히 쓴 거야. 그게 출판이 되어서 나한테도 한 권 왔더라고. 만화가 지망생도 그림일기를 그리는데, 그 사람이 꿈에 그리던 만화가가 된 나는 월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쭉 쓰고 있어. 꾸준히 띄엄띄엄 쓰고 있어. 일기를 안 쓸 때는 삶이 그냥 흘러가. 하루에 몇 자라도 쓰면 삶이 쌓이는 느낌이야. 그래서 뿌듯해.

현재 시민청에서 열리는 〈달토끼, 서울을 그리다〉 전도 작은 스케치, 순간이 모여 하나의 큰 전시가 된 거죠?

그렇지. 처음부터 이렇게 전시를 하거나 책을 내려고 했던 건 아니야. 8년 전인가, 만화가 후배들, 지망생들이 모여서 만화를 더 공부하자고 의기투합했어.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만나 크로키를 했거든. 그리

고 '달토끼'라는 말을 만들었어. '크로키 모임', 이건 재미없잖아. 그래서 달토끼가 됐고, 무엇을 그려볼까 하다가 멤버들이 서울에 사니까 서울을 그려보자 해서 첫날 서울역에 가서 그리기 시작했어. 그러다 달동네도 가고 뚝섬 유원지도 가고 서울의 모든 면면을 그리게 됐지. 해가 지나니 축적된 스케치의 양이 꽤 됐지. 서울에 대한 사료가 됐달까. 그래서 4년 전쯤에 상상마당에서 전시를 한 번 했어. 이후에는 또 좀 진화해서 '이왕 그릴 거 고아원에 가보자' 해서 아이들의 스케치를 그려주러 갔는데 이게 또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노인병원도 가고 난민피난처도 가보자, 인문학 하는 분들 모셔서 이야기도 듣자', 이렇게 모임이 확장됐어.

개인의 활동을 넘어 단체, 재단과의 협력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지점이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나는 화가들 중에 예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야. 이런 자료는 사력을 다해 지키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아카이브 구축에 힘쓰는 편이지. 자기 자신의 것들, 스스로 만든 자료들, 이런 것이 다 자기 자신이고 뿌리이고 역사야. 서울문화재단과 언젠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한 가정 한 역사책 갖기 운동'쯤? 각 가정마다 역사책이 하나 있어야 돼. 자신의 뿌리를 제대로 함께 아는 게 중요하지. 스스로 증

조부에 대한 기록, 나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보는 거야. 가족과 자신의 뿌리를 스스로 만드는 거지. 역사의 주인공이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뿌리가 단단해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야. 서울시민들과 가족 역사책 만들기 운동을 해보고 싶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생각을 평소에 잘 안 하고 살잖아? 하지만 자기 존재의 뿌리를 알고 싶은 마음은 사람의 본능이야. 이게 발전돼서 나라의 역사도 이런 식으로 정리돼야지. 그게 없으면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삶이 없어져. 도덕과 가치,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의 삶이 역사고 그 안에서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지금의 문화는 문화예술가가 있고 일반인이 있는, 구분된 형태야. 일반인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어야 하는 구조지. 수용과 동참의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 문화예술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누가 만든 걸 소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낼 때의 기쁨, 그 상상을 초월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야지. ‘문화외한이다’, 이런 말은 안 돼. 12년 동안 학교 다니며 배운 게 다 헛 거야? 나 나름의 상식과 취향이 있지. 만인이 예술과 창작을 할 수 있는 존재야. 그걸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

인터뷰 섭외할 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이제야 묻게 됩니다. 왜 할 이야기도 없다고, 정체성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누가 봐도 창작가, 그냥 작가이신데요.

나의 지금 고민은 이런 거야. 내가 만화가인지 뭔지 모르겠어. 인터뷰 해봐야 다 예전에 한 얘기일 테고. 그런데 그냥 “그런 고민 자체를 들려주셔도 좋다”고 말해서 매력을 느꼈지. 지금은 창작에 거의 투자도 못하고 있어. 만화도 그리고 싶고 영화도 하고 싶고. 창작도 범위가 넓고 사회 활동도 범위가 넓어. 과연 이게 내가 정신이 있어서 하는 건지 하는 고민을 하다가도 ‘에잇, 사람 사는 스타일에 뭐 정답이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웠다 갔다 해. 때로는 그냥 만화만 그리는 사람이 부러워. 하지만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게. 그래서 태어난 게 손바닥 만화, 지라시 아트 이런 거야. 나처럼 바쁜 사람에게 딱이지. 시간을 쪼개 그린 사소한 것들도 의미를 담으면 모두 작품이고, 개인의 문화라는 마음으로. 내가 시간을 쪼개서 작품 활동을 하고자 만든 건데, 생각해보면 내가 이야기한 누구나 예술가가 되고 스스로의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는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해. 그렇지?

그럼요. 또 이런 것들이 형식적 개척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영역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화가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을 쪼개 작품을 해볼까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 생긴 거겠지. 미켈란젤로는 그림과 조각만 했지. 다빈치는 당시 교황이 이것저것 하다 뭐 하나 제대로 못할 인간이라고 말했어. 나는 굳이 비교하자면 다빈치적인 인간인 거지. 나는 다빈치가 적성에 맞아. 근데 성과는 미켈란젤로처럼 내고 싶어서 그 모순적인 면 사이에서 고민하다 손바닥 만화, 지라시 아트, 이런 걸 만든 거야. 내가 요즘 영화에 골몰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야. 나의 형편을 궁리하다 보면 또 다른 방식, 표현법, 방법이 떠올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해. 나의 혼돈, 이런 카오스를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한에서 궁리해볼 작정이야. 내 안의 지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잖아. 나는 그런 것에서 재미를 느껴. 다른 사람이 다 해놓은 것은 내가 굳이 필요가 없잖아. 나는 그렇게 살아가나 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그려보고 싶고. 정리를 좀 하긴 해야 해. 근데 정리를 하려고 하면 일이 더 생기더라고. (웃음) 교육에도 항상 관심이 있고. 책도 준비 중이야. 고등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야. 기초 교육. 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된 거야? 원래 그냥 만화나 좋아하는 오타쿠 같은 사람이었는데. 시사 만화를 하다 보니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겨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가지를 치게 되는 것 같아.

선생님의 방법이 진일보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술의 형태가 꼭 하나 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혼란스럽다가도 ‘그래, 이런 인간도 있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래야 하고, 예술가는 이래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이런 생각 자체가 지나온 시대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 작가로서의 성취를 원하는 마음도 물론 있고. 이 혼란 자체를 즐기고 있어. 이 혼란 속을 걷다 보면 나만의 무언가가 또 생기겠지. 일단은 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난 그냥 그 꿈들, 혼돈들과 최대한 친하게 지내려고 해. 하하.



종이는 평등하니까 한솔제지 대표이사 이상훈

한솔제지가 10년 연속 제지 부문에서 ‘존경받는 기업’ 1위를 차지한 것은 단순히
업계 대표 기업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문화를 담아내는 기본으로 종이를 대하며,
문화를 키워나가기 위해 고민하기 때문이다.
그 건강한 고민의 첨병에 선 이상훈 대표를 만났다.

진행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글 유나리 사진 한솔제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매년 발표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리스트에 빠지지 않는 기업이 바로 한솔제지다. 그 존경의 이유를 보자. 한솔제지의 행보는 여러 면에서 앞서 있다. 인쇄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바꾸기 위해 인쇄업계와 제지업계의 동반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친환경 재생용지를 개발해 시장에 공급한 것도 한솔제지다. 조림사업을 진행하며 사회공헌도 열심이다.

사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란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성격이 크다. 자동차업계가 탄소를 줄이려 한다거나 제지업계가 나무를 심는 것 등이 그렇다. 한솔제지 역시 이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대신 아주 조용히, 자신들이 자연에서 가지고 온 것을 다시 돌려준다. 한솔제지는 국내 기업 중에서 나무를 가장 많이 심는다. 1966년부터 1만 4000㏊에 달하는 전국 각지의 조림지에 약 5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꿔왔다. 최대의 조림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은 조용히 진행되어왔다. 제지회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친환경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나무를 사용해 이윤을 얻는 기업의 토대는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으로 한 해에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언젠가 이 나무가 풍성히 자라 우리가 베어낸 빈 공간을 메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자연에서 가져온 것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착한 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지도록 말이다. 이 착한 순환이 겹쳐져 결국 변화를 만들고, 문화를 바꾼다. 바로 이 지점이 한솔제지를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드는 결정적 차이점이다. 폐지를 재활용한 재생용지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제3세계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행동은 '환경'의 범주를 넘어 '문화'를 아우른다.

이상훈 대표는 "종이는 선진국에서나 제3세계의 고아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는, 가장 평등한 매체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가 골고루 발전하는 데 공헌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솔제지의 사회공헌은 '문화'와 '환경'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에 따르면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착한 순환 사이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학합은 기업 안팎 모두를 아우른다. 그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사회공헌은 대부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에 관한 아이디어다. "주변의 소외계층을 돋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면 나와 이웃이 모두 행복해진다"는 단순한 논리다. 이 바탕에는 "기업은 기업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그의 굳은 신념이 깔려 있다. 그의 신념은 조동길 한솔제지 회장의 지론을 따른다. 지론은 이렇다. "기업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일부이고, 기업은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를 잊는 기업이 부지기

수다. 조 회장의 지론에 따라 이상훈 대표는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모색하는 중이다. 작게는 지역 사회에 기업의 수익을 환원하는 것부터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친환경 재생 종이로 만든 노트를 기부하는 것까지, 그 범위는 종횡으로 다양하다.

이상훈 대표는 "종이는 문화와 정보를 담는 시대의 그릇이자, 지식과 역사를 전하는 내일의 유산"이라고 말한다. 내일의 유산을 이어가고,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이 대표가 지속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지난해 6월에는 기아대책이 주관한 '한톨나눔축제'에 참여해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노트를 비롯한 학용품을 지원했다. 친환경 재생용지로 만든 노트를 문화 사각지대에 속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종이를 통한 새로운 문화를 나누자는 것이다.

1966년부터 이어온 조림사업은 역시 최근에 방향을 선회하여 도시 속 여유를 조성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여의도 샛강변으로 범위를 넓혀 꾸리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친환경 재생용지 인쇄물을 출판을 지원하기도 한다. 올해에는 '예술로 도시에 활력을 주고 문화로 시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서울문화재단의 미션에 공감해 재단과 협력을 통한 친환경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단순히 시민에게 문화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업계 내의 새로운 문화 만들기에도 열심이다. 관계사를 모아 상생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 디자이너를 위한 세미나를 열어 업계 내 관계자들과 소통하려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한솔제지의 착한 행보가 자연스럽게 가능해진 이유가 궁금해졌다. 이상훈 대표는 직원들과 함께 '행복나눔 115운동'을 실천 중이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착한 일 하기, 한 달에 책 한 권 이상 읽기, 하루에 다섯 번 이상 감사하기. 누구나 다 알고 실천할 수 있는 평범한 아이디어다. "종이는 평등하다"는 그의 말이 새삼 떠올랐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착한 운동이야말로 문화의 혜택을 자연스레 나누게 하는 원동력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아주 평범한 작은 행동들. 결국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도 이런 사소한 행동이 지속가능할 때다. 이상훈 대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책을 읽고, 가진 것을 나누는 문화가 활성화되면 나눔은 자연스레 실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연스러움이 밖으로 퍼져 많은 사람들이 착한 순환에 공감하며, 동참하기를 바란다.

창작, 교육, 기획에 기업 경영까지 모두가 놀이.

컨버전스형 아티스트 전병삼

수직을 수평으로 만드는 전방위적 탐험, 새로운 행복을 만들다

세상을 살며 한 가지 일도 뚝 부러지게 잘하기가 어려운데, 가끔 팔방미인을 만나게 된다. 뉴미디어 아티스트 전병삼, 그는 예술가이자 과학자요, 문화기획자이며 교육자다. 또한 무인 로봇 음악극, 로봇 난타 등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코이안(KoIAN)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스스로의 삶에 경계와 제한을 두지 않는 그에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을 물었다.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해지거나 그렇게 만듦을 일컫는 사전적 용어 ‘융합’은 21세기 서두를 장식하는 핵심어가 되었다. 따라서 융합은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의 원천이자 이 시대를 읽어나가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함유한 각양각색을 끌어내는 일을 전개하며 문화예술계의 대안적 상징으로 떠오른 전방위 예술가 전병삼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일까? 스스로를 오지랖이 넓어 ‘융합에 최적화된 인간’이라며, ‘기준에 있던 것을 엮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재료 삼아 세상과 대화를 시도하는 자신에게 융합은 생존 방식이자 세계관’이라는 답을 던지는 작가 전병삼. 당차게 주변의 것들을 수용하며 자신의 목표를 엮어가는 그에게 물었다. 꿈꾸는 융합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끊임없이 꿈꾸게 하는지.

다양한 영역이 결합된 문화 콘텐츠를 결과물로 제시하며 공연, 미술, 과학계까지 각계각층의 관심과 평가를 받고 있다. 애초부터 새로운 타입의 예술을 의도하고 시작한 것인가?

처음부터 뚜렷하게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처음에는 조각으로 시작했는데 즉각적이고 생생한 관객과의 소통을 기대한 나에게는 조각이라는 매체를 통한 관객과의 반응이 미미하고 느린 것 같아 너무 정적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키네틱 아트(Kinetic Art)를 시도했지만 그 움직임으로도 내가 기대한 반응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는 조각이 되고자 퍼포먼스로 생각이 발전했고 퍼포먼스 작업을 하면서 관객의 반응도 즉각적이고 소통도 확대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 역시 시공간의 제약이 있어 많은 사람과 소통의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이 부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보다 확장된 소통을 구현할 방법에 대해 공부할 곳을 찾게 되었고 결국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아트 & 테크놀로지를 전공했다.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다 보니 기계를 알아야 했고, 그래서 공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공대에 가서 또 공부하게 됐다. 사람과 새로운 뉴미디어 기술 간의 더 많은 접점을 찾는 것, 즉 더 많은 소통의 방법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

게 된 것이다. 순전히 지적 호기심을 좇아 예술 세계를 확장시킬 방법을 찾다가 기업까지 꾸리고 뉴미디어 아티스트이자 문화기획자, 교육자, 과학자 등등 다양한 타이틀도 얻게 된 것 같다. 내가 어떤 작업을 지향하는지, 어떤 언어를 만들고 싶은지를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오다 보니 현재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됐다.

어떤 언어를 만들고 싶은지 고민했다는 말, 즉 원하는 언어를 만들고 싶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러한 목적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가? 내가 꿈꾸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크게 소통하고자 공학이 수단으로 쓰였다는 의미다. 어릴 적 친구가 많지 않았다. 가지고 놀던 것들이 주로 나무 조각, 패브릭이었는데 혼자 집에서 그것들로 인형을 만들곤 했다. 그러다가 그 인형을 매개로 동네 친구들과 가까워졌다. 나에게는 첫 소통이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위축되어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창작 활동을 통해 치유된 게 아닌가 싶다. 한번 예술이 가진 소통의 힘을 느끼고 나니 주변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교육이 아닌, 문화예술 창작 활동으로 나누고 싶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바로 이 분야니까. 인형으로 세상과 소통했듯, 기분 좋은 일들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따라서 줄곧 소통과 교감이 내 작업의 핵심이었다. 그러다 보니 항상 현 시대의 흐름과 추세를 반영한 소통 방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내 작업의 대부분은 그 시점의 가장 동시대적인 방법을 차용한다.

뮤직로봇 공연단, 로봇 난타, 로봇 동물원 등 로봇을 활용한 콘텐츠를 주로 생산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로봇이 목적은 아니다. 로봇은 그냥 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수단이다. 중간 과정이다. 코이안을 예로 들어보면, 기업의 정체성도 계속 변한다. 처음에 코이안은 뉴미디어 콘텐츠 기업으로 시작했다. 뉴미디어도 이제는 포화 상태다. 현재 코이안은 로봇 뉴미디어 콘텐츠 기업이다. 뉴미디어 그다음을 고민하다가 로봇이라는 매개체를 발견한 거다. 아마 로봇이 일상화된다면 다른 것을 고민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다음 시대는 ‘바이오(Bio)’가 화두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때는





로봇타타와 뮤직로봇 퍼포먼스 현장. 각 아이콘으로 대표되는 로봇들이 음악을 연주하며 노래도 부르며 음악 공연을 완성한다.

코이안이 ‘바이오 로봇 뉴미디어 콘텐츠 기업’일 수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것이다. 창의적인 관점으로 자연스러운 패러다임 이동을 만드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본다.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조형물, 로봇 난타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창작해왔다. 스스로 자부심을 느낀 콘텐츠가 있다면?

순전히 우리가 기획하여 100% 내부에서 탄생한 것들이기에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특히 뮤직로봇을 꼽고 싶다. 딱히 의도하고 만든 것은 아니었는데 아이들과 관련된 콘텐츠로 잘 연계돼 빛을 발했다. 뮤직로봇은 처음부터 아이들 공연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첫 단추가 어린이 공연이었을 뿐이다. 뮤직로봇을 활용할 접점은 다양하다. 조수 미와 음악 콘서트를 할 수도,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할 수도 있다. 로봇 임대도 가능하다. 이들은 환경 조각, 미디어 조형물과도 결합될 수 있다. 기술이 발전될수록 융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다. 즉 하 나의 원형 콘텐츠를 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 이러한 장점을 가진 원형 콘텐츠의 창작과, 주변의 콘텐츠와 접점 코드를 만들어 이를 활용하는 보다 근본적인 융합 능력에 자부심을 느낀다.

현재는 융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종교배됨으로써 좋은 점도 있지만 만나지 않아도 좋을 것들이 만나고, 특정 분야의 집중 연구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오도하는 병폐를 만드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한 포인트다. 사실 예술과 과학의 만남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서양에서는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우리나라에는 오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융합의 과정을 단기간에 끝내기 위해 정책으로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지시를 내리는 구조다. 하지만 수직 구조에서는 융합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 융합은 수평선에서 스멀스멀 일어날 수 있다. 딱히 융합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한 우물을 파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다. 융합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대체하고 보완해내며 빈틈을 메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의 분위기를 보면 강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모든 것들은 만났다 헤어졌다 한다. 모든 것이 한 점에 집중되던 시대도 있고 퍼져나가는 시대도 있고 또 만나는 시대도 있다. 다행히도 요즘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만나는 시대다. 그러나 흐름은 변하게 마련이다. 그 시대의 흐름과 파도를 읽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냥 휩쓸리는 것과 조절은 다르다. 시대의 흐름을 알면 그 상황에서 한 우물을 파든 융합을 하든 그냥 그건 스타일과 방식의 문제라고 본다.

최근 ‘창조경제’라는 화두로 인해 예술가 전병삼과 문화기업 코이안에 거는 기대치가 높아졌다.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개인적인 창작 활동과 기업 경영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어내는데 힘든 고비도 많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은 없는가?

매일매일이 어려움의 연속이어서 특별히 요즘이라고 다를 것은 없다. 파도는 매일 치는 것인데, 이것을 부담으로 생각하면 힘들다. 즐



드라이브 드로잉. 관객이 무선조종 자동차를 운전하면 매연 대신 색색의 디지털 그림이 그려지고 직접 출력도 가능한 작품.

거운 마음으로 그 파도를 타려고 한다. 특히 기업을 이끌고 있지만 사업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예술가 출신이고, 지금도 여전히 예술가로 활동한다. 기업을 이끌며 또 다른 방식의 새로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코이안은 나에게 있어 내가 창작하고자 하는 것을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공동으로 창작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타입의 예술 활동이다.

코이안이라는 이름으로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꼭 성취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긴 한데 너무 넓어서 걱정이다. 많은 부분의 문제가 불합리한 수직 구조에서 온다고 본다. 사회에 만연한 수직 구조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체하여 수평 구조로 만들고 싶다. 20세기에는 조직적인 운동이나 캠페인으로 변화를 시도했다면 21세기에는 보다 더 세련된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코이안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계속하며 융합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그 토양을 만드는 데 힘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코이안에서 기획한 뉴미디어 아트 전시인 <ThisAbility>는 장애를 뜻하는 'Disability'라는 단어를 이러한 능력이라는 뜻의 'This-Ability'라는 말로 바꿔 결함이 아닌 '다름'을 강조한다.

아무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비밀 계획이 있는가? 개인전 같은, 회사와 분리된 100% 독립적인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프로젝트와 회사 간의 융합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웃음)

어깨에 힘을 빼고. 개인전은 분명히 할 건데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하고 싶다. 개인전은 큐레이터와 갤러리스트와 작가 3자 간의 수직 구조하에 열린다. 그 방식과 구조를 바꾸고 싶다. 미술 시장은 붕괴된 지 오래다. 이런 고민도 요즘 진지하게 하고 있다. 더 심각한 건 미디어 아트는 아카이브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되고 제대로 교육도 이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고민들을 깨뚫어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케이스 정도는 만들고 싶다. 수직 구조를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체해 수평 구조로 만드느냐, 이것이 요즘 골몰한 주제다. 21세기에는 좀 더 세련된, 다른 변화법이 있다고 믿는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문화예술의 장르를 빌려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개인적인 프로젝트다. 예술가와의 새로운 접점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거창한 메시지나 부담감, 시대를 선도해야겠다는 강박감 없이 기존의 것들을 잘 융합하는 재능을 활용해 내가 행복해지고, 내 행복이 차고 넘쳐 주변이 행복해지고, 결국 그 행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착한 순환 구조가 생기길 바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말하는 인간 전병삼이 그려가는 융합형 지도는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다. 이 지도는 분명 그가 관심을 갖고 전방위적으로 탐험하며 각기 다른 영역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생성되는 새로운 결과로 구성될 것이다.

지원 심사의 품격을 논하다

올바른 선택과 집중, 왜 안 되나?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예술지원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각종 예술 관련 지원사업 심사에 참여했던 예술 전문가 3인과 이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기 위해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실무자들이 모였다. 더 나은 쌍방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 웃음이 오갔지만 참여자 대다수는 심사 과정 자체의 숨은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본격적인 대담 진행 전, 자기소개 부탁한다.

성기숙 반갑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무용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용분야 심사에 참여했고요. 오늘 좌담은 민감한 주제지만 흥미로울 것 같네요.

김소연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다원예술 분야 심사를 많이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경험한 적은 없지만, 다원예술 분야에 응모하는 예술가들이 혹시 저를 권력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들더군요.

현경채 자칭 '심사의 여왕'입니다. (일동 웃음) 국악평론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사하면서 예술가들에게 느끼는 가장 큰 안타까움은 무엇인가?

김소연 다원예술 심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타 분야와는 다르게 다원예술은 비정형적이에요. 심사 시작 전에 심사위원끼리 '다원예술은 무엇인가' 같은 답 없는 토론은 하지 말자고 다짐하지만, 막상 심사를 하고 지원서에 달린 코멘트를 보면 다원예술의 기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뤄요. 심사위원

끼리도 어떤 측면을 볼 것인지, 무엇이 더 부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지요. 심사 과정에서 그 미묘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죠. 다원예술 분야는 이제 다장르 협업이라든가 복합장르 이런 것만으로는 더 이상 설득이 안 되고 있어요. 기존 장르에서도 계속 새로운 작업들을 수용하고 있고. 물론 기존 장르의 비주류 경향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가장 주요하게 보는 점은 방법론적 혁신인 것 같아요. 이걸 설득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 작업의 가장 중심적인 모티브를 설명하지 않고 주변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지원서를 보면 좀 안타까워요.

현경채 요즘 기획서를 대신 써주는 기획사가 많죠. 예술가가 글 쓰는 사람이나 행정 전문가도 아니니, 기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국악계에는 기획사가 있어요.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원을 받게 해주고, 소속 아티스트로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술가가 글도 잘 정리해서 써야 하고, 골치 아픈 지원금 정산도 혼자서 해야 하는데, 이런 데 에너지를 쏟다 보니 정작 자신의 무대 위에서 발산될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신진 예술가들, 졸업하고 취직하기 정말 힘들어요. 예술 활동은 하고 싶고, 본인이 가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 무용평론가
전통무용이론과 비평 활동을
주로 한다.



김소연 연극평론가
연극 및 다원예술 분야에서 평론 활동을
하며 연극 및 다원예술 분야의 심사에
다수 참여했다.



현경채 국악평론가 · 교수
음악인류학 박사, 국악방송 'FM국악당'을
10년 이상 진행하고 있으며 영남대학교
겸임교수다.

진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 지원에 눈을 돌리게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금은 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수혈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너무 적어요. 기획서를 잘 작성하는 것을 포함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말이죠.

성기숙 기획서 작성 능력에 대한 이야기에는 정말 공감합니다. 제 전문 분야인 무용계를 예로 들어볼게요. 무용가들 역시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것은 잘 하지만, 기획서 작성 능력은 부족한 편이죠. 때문에 대개 기획서 작성은 주로 기획사에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획서들이 마치 공장에서 제품 찍어낸 것과 같이 기계적이고 비슷해요. 양식에 맞춰 잘 정리는 되어 있는데 정작 하고자 하는 열정, 의도, 진정성이 잘 담겨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심층 면접을 하죠. 무용가 자신이 기획서를 직접 작성했는지, 아닌지 심층 면접을 하다보면 다 들통이 납니다. 기획서를 매끄럽게 잘 작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진정성, 진심이 담겨 있는 것에 더 시선이 오래 머물죠.

김소연 다원예술 분야는 아무래도 분야의 특성상 지원서에서 '내가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는가'를 설득시키는 것보다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신 잘 쓰였으나 영혼은 없는, 대행으로 완성된 지원서에 대한 문제는 딜한 편이에요. 대신 개념적인 작업이 많다 보니, 지원서에 표현된 것과 실제 작업 결과물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 역시 다원예술 분야의 불안정하면서도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예술가들에게 느끼는 안타까움 말고 심사 하면서 생각하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다.

현경채 많죠. 예술가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장치도 필요하지만, 지원을 하려는 주체 스스로가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문화재단에 대해 느끼는 안타까운 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수님을 너무 좋아해요. 항상 심사에 가보면 교수님들이 심사위원으로 많이 참여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교수님들은 현장 감각이 많이 떨어져요. 그 분야에서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고 판도가 어떤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장에 자주 오시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막상 지원금이 없어도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는 유명인들이나 심사위원 스스로 구축한 오래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는 동료, 후배 등에게 나눠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현장 감각 떨어지는 교수 중심의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

현경채 단순히 구성이 별로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다양성과 전문성, 현장성의 결합이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전문 지식을 가진 교수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야죠. 그런데 진짜 현장 감각이 있는, 그 장르에 대해 살아 있는 동시대성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수진이 아니라도 많아요. 예술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담당 PD일 수도 있고, 공연장에 자주 나타나는 평론가나 전문 기자 등이 더 잘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현장을 자주 다니는지, 현재 그 분야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이런 것이 진짜 전문성이 아닐까 생각해요.

성기숙 대행을 맡긴 기획서가 문제 되는 부분과도 연결돼요. 예술가가 본인의 철학과 세계관을 가지고 기획안을 썼는지, 기획자가 돈을 받기 위한 '트릭'을 가미해 작성한 것인지 심사위원들이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군데에서 떨어지면 동일한 기획서를 들고 지자체 지원기관을 돌아다니는 경우를 봤어요. 양식에 맞춰 뿐 동일한 내용의 기획서를 가지고 말이죠. 현경채 선생님 말씀처럼 심사위원이 현장의 사정에 밝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지원, 혹은 부실하고 무성의한 기획서를 심사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어쩌다 한 번 심사 가서는 심사위원도 걸러낼 수가 없어요. 예산을 집행하는 지원기관도 이런 부분에 엄정한 기준을 두고 운영해야 합니다.

김소연 저는 심사가 끝나면 심사 과정이나 기준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없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다원예술 분야는 비정형의 영역이기 때문에 담론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이 없다는 것이죠.

현재 비평의 공간이 점점 왜소해지고 있지만 기준 분야들에서는 무용이나 공연과 관련해 고군분투하는 매체들이 발행되고 있죠. 그러나 다원예술은 아주 협소해요. 기준 장르에서 관심이 확장되어 언급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소수만 다뤄지죠.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다원예술에서 쟁점화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원예술이란 무엇인가' 같은 이야기는 하지 말자 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고요. 그런 토론 내용이 심사평에 다 담기지 않는 거죠. 여러 의견들이 공유되고 활발하게 생겨나야 심사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도 줄어들 것 같고요.

성기숙 아마 심사가 끝나면 기관에서도 항의 전화를 많이 받겠죠? 심사결과는 늘 상대적인 거잖아요. 예술가 스스로가 심사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해요. 합리적 기준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는 것이죠. 심사기준, 원칙 등이 객관적 자료로 제시되고 또 이런 내용들이 서로 공유되고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심사에 떨어져도 예술가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상호 신뢰가 무너졌어요. 우선, 심사위원 구성을 잘 해야 해요. 그리고 지원기관 역시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소신과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항의를 받을 때 방어논리도 펼 수 있겠죠. 우왕좌왕하는 심사제도도 문제라고 봐요. 가령, 서울문화재단 출범 초창기 '선택 집중' 지원방식을 표방하면서 무용가들에게 1억원까지 파격적인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1, 2년 하다 금방 없어졌어요. 장기지속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파격적 지원을 받은 작품이 혹여 실패하고 또 지원에서 누락된 예술가들의 불만이 제기되더라도 똑심 있게 밀고 가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후 서울문화재단 지원은 소액다건으로 바뀌었는데요. 정책적 전환 사이에 철학과 기준이 없어요. 현장 예술가의 저항, 비판이 있다고 계속 지원정책을 바꿀 건가요?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원제도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원 기관 자체의 소신과 철학이 부족하다 는 이야기인가.

김소연 저는 기관이 확고한 소신과 철학을 갖는 것이 자칫 재량권으로 이해되고 그것이 지원사업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할 때 예술 환경에 상당히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원제도에서 가

장 큰 문제는 제도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도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저런 제도들, 사업들이 기획되는데, 현실이라는 것이 몇몇 제도나 사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죠. 예술지원에 목말라 있고 그러다 보니 예술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제도들에 적응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진해 버리죠. 그런 점에서 제도나 정책은 환경이라는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예술가들이 더 깊게 생각하고 장기적인 구상 속에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죠.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지원제도나 지원사업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한편 풍부해진 것 같은데도 작가 발굴이나 새로운 작업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술계의 환경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기숙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 자체 종에서 시는 물론 군 단위에도 문화재단이 생겨나고 있어요. 거의 모두가 소액다건 지원방식을 고수합니다. 많은 예술가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문화재단만의 특화된 전략적 지원제도도 구상할 수 있다는 거죠. 기관도 좀 더 창의적일 필요가 있어요. 기관의 장이나 혹은 인적 구성의 변화에 따라 심사방향이나 기준이 너무 쉽게 좌지우지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기관의 성격을 살릴 수 있는 특화된,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결국은 비율의 문제예요. 소액다건으로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나머지 특화된 사업에 선택 집중하는, 이원화된 지원방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김소연 창의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사실 기관도 상위 기관의 감시를 받잖아요. 위에서 바뀌면 여기도 바뀌고. 재단이 기침하면 예술가는 앓아눕죠.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가 별것 아닐지 몰라도,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은 아주 커요. 계속 쏟아지는 제도들, 사업들에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창의력은 고갈되겠죠.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계속 새로운 제도나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으면 합니다.

정책의 변화가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일관성을 오히려 빼앗고 있다는 의미인가.

김소연 정책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소액다건으로 흐르고 있어요. 지원금은 줄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창작지원 성과는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액다건이 되는 거죠.

성기숙 정책의 변화로 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잊은 정책 변화가 결국 심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도 서울문화재단 심사는 소액다건 방식이었어요. 2030대 신진예술가들과 원로무용가들에게 모두 일률적으로 1,000~1,500만 원 정도 소액 지원됐죠. 최고의 창작무용가로 알려진 원로무용가 한 분이 아예 지원금을 반납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지원심의에서 원로와 중진, 신진을 한데 묶어 심사한 것이 문제라고 봐요. 또 실력 면에서 소위 사회적 평가에서 A급, B급, C급 식으로 이미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C급인 경우가 지원을 받고 A급인 경우가 누락되는 경우, 당연히 불공정 심사논란이 불거질 수 있죠. 모두가 심사결과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사 과정의 공정성은 심사위원의 역량과 도직결되는 부분이다.

현경채 심사위원 자리는 일종의 권력이죠. 몇 번 참여하면 국악계에서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물론 그 심사위원이 현장성, 객관성 등을 갖추고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재단에서 가지고 있나요? 요즘 젊은 예술가들, 참 열심히 활동해요. 그러나 이런 현실 분위기를 모르는 전문가들도 많죠. 좋은 심사위원 풀이 필요하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제가 잘 압니다.

김소연 작업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경향이나 이슈가 잘 안 만들어져요. 요즘은 골목골목 헤집고 다니지 않으면 그 현장을 제대로 느끼고 분석하고 판

단하기 어려워요. 예술계는 팽창하고, 이슈는 세분화되고, 현장 비평이 중요해지는데, 현장 비평의 토대는 점점 허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장성과 전문성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부분이죠.

성기숙 심사위원 구성 참 어렵지요. 사람이 사람을 지정해서 사람을 평가해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다고 봐요. 모두가 다 사람인지라 호불호가 있고 또 개인적 취향도 작동되기 마련이죠.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성, 현장성, 객관성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자기 분야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면 좋겠어요. 학연, 세대, 장르 안에서도 중요하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심사 한번 갔다 오면 ‘내가 당신을 밀어줬다’는 식으로 파워를 과시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자질의 문제겠죠. 또 해당 분야에서의 평판도 고려해야 합니다. 심사하고 나면 불만은 어떻게 해도 생깁니다. 다만, 그 불만을 얼마만큼 최소화하느냐, 그 해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봐요.

심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김소연 최근에 일부 지원기관의 심사를 진행하며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종종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동시에 진행할 때가 있는데 인터뷰 심사에서 가끔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질문이 일종의 컨설팅이 되어버리죠. 그럴 때는 인터뷰이도 자기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빈 부분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요. 지원을 받건 아니건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내가 너를 제대로 검증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도 해요. 혹은 인터뷰이에게 강의를 한다거나. 전 우선은 인터뷰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원 심사라는 것이 어쨌든 좋은 작업을 선택하고 싶고, 그래서 지원서도 쓰게 하고 인터뷰도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죠.

성기숙 액수가 큰 선택 집중 지원의 경우, 예술가의 의도나 진정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 심사는 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인터뷰 심사가 ‘갑-을’ 관계처럼 훌려갈 때 정말 안타깝죠. 인터뷰 하려 온 사람은 심리적 부담감이 크잖아요. 예술가들이 모두 달변가는 아니고, 또 프레젠테이션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다고 해요.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한다고 해도 모두 다 지원받는 것도 아니죠. 간혹 문제 있는 심사위원들도 있어요. 비중 있는 심사의 경우 심사자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
본부장(사회자)
서동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팀장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좋은 프로젝트이고
발전하는 작가인데,
정작 그 기준 안에
들지 않아서 논의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정성을 위한 장치인 것
같은데, 완벽한 제도란
없겠지만, 이런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료를 미리 검토하라고 며칠 전에 보내줍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지도 않고 와서 현장에서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 혹은 허점을 캐기 위해, 골탕을 먹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심사위원도 심사에 임할 때 역지사지(易地思之) 심정으로 ‘을’의 입장을 헤아려 따뜻하게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전문가로서 품격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죠.

현경채 맞습니다. 지원 예술가들과 비교하면, 심사위원은 심사 경험이 많잖아요. 컨설팅 개념의 인터뷰에 너무 공감합니다. 현재 심사 방식은 보완이 필요해요. 인터뷰를 통해 사례를 공유하고 무언가 서로 전해주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죠.

김소연 또 다른 문제점을 말할게요. 연말이면 온갖 상을 휩쓰는 중견들과 갓 대학을 졸업한 신진을 똑같은 구조 안에서 심사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심사 과정에서 그 점을 고려한다 해도 결국 지원금을 얼마나 더 주냐, 꺎나 하는 것이죠. 요즘 중견들은 제작 국장에서 개런티를 받고 연출을 하는데, 작품의 선택, 캐스팅, 스태프의 구성 등 제작 과정 상 온전히 자신의 작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학을 갓 졸업한 신진들이랑 똑같이 지원서를 내게 되는 거죠. 자기 작업이 하고 싶어서. 지원제도나 사업은 많아지고 있는데, 예술가의 커리어 패스에 따른 다양한 장이 부족하죠.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정기공모 심사 방식이 그렇잖아요. 최고점과 최하점은 빼고 중간점을 합산해서 순위를 매기죠. 그래서 최종 선정 건수의 1.5~2배수 안에서 논의를 하죠. 그런데 최고

점이랑 최하점에 자신의 전문성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배제해버리는 거죠.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좋은 프로젝트이고 발전하는 작가인데, 정작 그 기준 안에 들지 않아서 논의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정성을 위한 장치인 것 같은데, 완벽한 제도란 없겠지만 이런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경채 동감합니다. 만약 어떤 심사에서 7명이 심사를 한다면 각각 전문 분야가 있겠죠. 일단 채점표를 작성해야 하니, 잘 몰라도 줍니다.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장치가 심사 절차상 빠져 있어요.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하겠다는 논리로 생긴 장치인 셈인데 부작용은 반드시 있어요. 재단 입장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 사업들이 대동소이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새로운 시도, 전환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도 그런 의견을 반영할 장치가 없어요.

김소연 이상적인 이야기겠지만, 전문성이 곧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평가 결과가 좀 더 개방되고, 공론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인가.

성기숙 떨어진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현재의 지원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수혜를 받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 내용이 오픈되어야 해요. 요즘엔 거의 모든 기관이 지원한 공연에 대해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평가항목도 지표화되어 있고 심사위원들도 그

에 따라 평가를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평가 내용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수혜 받은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이 어떤 부분이 모자랐고 또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피드백을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지원받은 사람이나 탈락한 사람 모두를 고려한 방식이 아닐까요?

서동진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평가 결과는 해당 단체들에 전달하여 작품 개선에 참고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해에 동일 단체가 지원 신청할 경우 과거 평가 내용을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활용 폭을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개인에게 전달하는 것 외에 예술계에서 공론화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워낙 비평이 협소하니까요. 물론 평가서를 날것으로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경향을 정리해본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요. 특히 다원예술 분야에서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점수에 활용하는 자료 외에 좀 더 적극적인 활용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경채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많은 예술가가 있고 지원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지원받은 사람과 사업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재단에서 지원받은 주옥같은 작품을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다는 그런 후조치, 서비스가 너무 부족해요. 좀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홍보도 할 겸, 알려주면 좋겠어요. 재단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고 공유한다'는 장치를 고민해야 해요. 서울문화재단은 좋은 잡지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으니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원 대상을 잘 뽑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 뽑았으면 그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지원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예술의 단초를 마련했는지, 확인할 기회가 너무 적어요. 일반인이나 다른 장르에 있는 사람은 접근할 경로도 부족하고. 이런 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언론 홍보도 하셔야죠.

서동진 현재 「문화+서울」의 「문화 Calendar」에서 재단 지원사업 일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재단 홈페이지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각예술 분야에서 지원받은 작품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정보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비평이나 지원에 대한 후속 조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성기숙 홍보는 홈페이지 활용이 좋죠. 그러나 이것도 장르별 차이가 있으니 선별해서 접근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무용의 경우 월간지가 4개입니다. 지원 받은 작가들은 자기 작품이니 잡지에 대부분 광고를 실어요.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보는 잘

되는 편이죠. 공연에 대한 평가도 매월 월간지 리뷰란을 통해 피력되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공유되고 봐요. 다만, 공유하는 부류가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무용계 내에 머문다는 점은 아쉽죠.

심사하며 보람을 느낀 순간이 있다면. 훈훈한 이야기도 한 번 나누자.

현경채 개인적으로 신진 예술가를 좋아해서 많이 뽑는데, 그 사람이 잘 셨을 때 정말 보람 있죠. 떨어진 사람에게도 경쟁심 대신 경쟁력을 키우라고 말해 줍니다. 상투적인 거 말고, 오직 당신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주면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성기숙 마찬가지예요. 밀었던 예술가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예술적 성과를 내면 정말 뿌듯하죠.

김소연 맞아요. 다른 심사위원들이 기획서를 보고 주저하고 있을 때 좀 부족하더라도 성장하고 있는 작가의 경우 어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렵게 결정이 되었는데, 작품이 잘되면 좋죠. 어떤 작가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게 결정된 지원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기도 하죠. 그럴 때 작품 팔며 보고 다닌 보람을 느끼죠.

마지막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점이 있다면?

성기숙 역시 심사위원 구성이죠. 심사 방식이나 정책 자체가 바뀌기는 쉽지 않겠지만 인적 구성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도 좋지만 평론가, 기자 등 늘 현장에 있고, 또 현장에서 최근의 공연 트렌드나 미학적 흐름을 간파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심사위원 구성의 비율을 높여야 해요.

현경채 저도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하고 싶네요. 전문 잡지사에서 일하는 분들은 1년 내내 지금 좋은 게 뭐가 있는지, 무엇을 볼지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이더를 켜놓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만들어야죠.

서동진 사실 2013년도 재단 심사위원은 교수님 비중을 줄이고 현장 전문가들을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세부 활동 영역이나 연령, 지역별 안배에도 무척 신경을 썼고요.

현경채 국악계는 아니었어. 너무 속상해.

(일동 웃음)

예술과 치료, 즐거운 공존을 찾기까지

예술을 나누는 사람, 미술치료사 조정원

예술가와 현실 사이의 줄다리기 속 균형을 찾은 미술치료사 조정원. 그녀가 스스로의 밥그릇을 사람들 마음을 채색하기 위한 다양한 물감과 재료로 채우기까지, 녹록지는 않지만 그만큼 보람도 큰 미술치료사 7년 차의 삶을 고백한다.



입문 1년 차, 고민만 끊게뭉개

미술치료를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미술치료 공부가 미술을 잘한다는 자신감 하나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입문 3개월 만에 뼈저리게 느꼈다. 오죽하면 입문 3개월 차에 미술치료 교수님에게 “미술 작업을 했던 예술가의 자세가 미술치료사의 길에는 핸디캡이라 생각하고 미술치료 공부에 매진하라”는 말을 들었을까.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미술 때문에 미술치료를 하는 건데 왜 그런 말을 나에게 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교수님의 충고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 길도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밤잠을 잘 수 없는 고민의 나날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미술치료 공부는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 매력적이라 미술치료 대학원에 진학했다. 우여곡절 끝에 진학한 대학원도 만만치 않았다.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그림을 그리는 나보다는 심리학 공부를 하는 학생의 모습이 나타나 겁이 덜컥 났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미술치료를 공부하려 했는데… 난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 그동안 멋지다고 생각했던 그림 그리는 자아가 사라지는 것 같은 공포감도 들었다. 미술치료 공부가 내 멋진 자아를 앗아가고 있었다. 그럼 난 어떻게 멋져지지….

3년 차, 드디어 첫발

아무런 인맥도, 도움도 없이 병원에서 미술치료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 있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물론 오롯이 그림을 그리며 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다. 그래도 마음 아픈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도록 도우며 마음의 병이 나아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가이드가 되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다.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유치원 미술교사, 과외, 일러스트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조금씩 벌었다. 미술치료를 통해 수입을 얻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였다. 어차피 먹고살기 힘들 거 차라리 그림이나 그릴 걸 왜 사서 고생인가, 후회스럽기도 했다. 그래도 가난한 치료사는 하루 종일 병동에 명하니 누워 있는 어르신들을 보려, 열 살이라는 나이에 자살을 시도한 마음이 아픈 아이를 만나러 갔다. 그러다 기회가 왔다. 사실 미술치료사로 정규직 직장을 갖는 것은 어렵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여전히 그런 기회는 흔치 않다. 그래도 병원 인턴을 했던 경력이 도움이 되어서 서울시 치매지원센터 중 한 곳에 취직이 되었고 미술치료실이 있는 시설 좋은 기관에 입사했다.

5년 차, 다시 초심으로

“나는 치료사인가?” 취직 후 2년이 넘어가며 든 생각이다. 미술치료사에게 취직이라는 것은 치료 일보다는 다른 행정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임을 깨달았다. 직장에 다니면서는 내가 꿈꾸는 치료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나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이냐,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생활을 유지하며 취미 생활로 그냥 그림을 그리는 편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나는 미술치료사 5년 차에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가난한 미술치료사가 되었다. 순전히 나를 위해서.

7년 차, 새로운 시작

다시 프리랜서 미술치료사로 돌아왔다. 직장에 있을 때는 다른 업무에 에너지를 쏟아야 했지만 이제 그럴 일도 없어 치료의 질은 높아졌다. 정신보건센터, 유아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에 프리랜서 치료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프리랜서 미술치료사로 활동하면서 기관과 개인이 겪는 치료적 환경, 경제 문제 등을 인지해 치료 시스템에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며 꾸준히 내담자를 만날 수 있도록 ‘마음길미술치료실’을 운영한다. 내가 7년 동안 겪었던 문제는 사실 치료 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쳤고, 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기관-치료사의 갈등으로 불거져 불신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미술치료사 7년 차에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미술치료사이자 그림쟁이에 사업가까지. 7년 전만 해도 그림쟁이는 그림만, 치료사는 치료만 할 수 있으며, 한 가지 일에 몰입할 때 다른 것은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림을 그리건 치료를 하건 난 그냥 그림을 그리는 치료사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그림은 꼭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게 도와주는 형태일 수도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무섭지 않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는다.

글 · 사진 조정원 성북예술창작센터 2013년 선정 입주 미술치료사

기 념 관

서울 청계천 풍경이 어느 새 여름,
별씨 한 해의 한 중간이다.



타인의 지적 재산을 탐하지 마라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옛말은 잊을 때다. 싸이는 '젠틀맨' 안무를 위해 춤에 저작권료를 지불 했다지만, 조용필은 자신의 노래 일부를 녹음해 음반으로 내고자 할 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아이 러니한 상황. 두 상황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저작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다.



1986년 레코드 사와 계약할 당시 '저작권 일부 양도'라는 조항이 무엇인지 잘 몰라 자신의 노래 31곡에 대한 복제배포권, 유무형복제권을 레코드 사에 넘겼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진 조용필.

저작권이란 일종의 재산권이다. 물건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본질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려는 자는 소유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고, 소유자는 일정 사용료를 받고 이용을 허락해준다. 저작권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권자 역시 일정 사용료나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써 이를 허락해줄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쉽게 가져다 쓰고 공유했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창작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음악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을 사용 양태가 음반을 구입하는 형태에서 공중 송신(전송)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음악을 구입해서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는 개념을 확립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어문 저작물이나 그림, 사진 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개념 형성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술계에도 최근 저작권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표절 논란 등이 대표적인 예다. 물론 표절은 저작권법상의 용어가 아니며 도덕적 문제일 수 있으나 저작권법상 복제권, 배포권, 성명표시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학술계 내에 아직까지도 남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거나 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는 저작권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한 데 있다. 관행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없이 용인되었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죄의식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도 된다는 인

식이 만연해 있었던 것이다. 무형의 지적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저작권이 생겨났지만 아직 제대로 지켜지기에는 길이 멀다. 저작권의 소유자와 이용자 둘 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 우리나라의 형편없는 저작권 수준에 대해 점검해보자.

문화 전반에 만연한 저작권 침범	최근 이슈가 된 가수 조용필 씨의 저작권 사건은 권리자로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다. 이 사건은 저작권자로서 계약서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비단 음악계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가와 출판사의 출판계약 시 저작권이 출판사에 양도되는 경우, 공모전 등에 작품 응모 시 저작권이 양도되는 경우가 그렇다. 권리자가 계약서의 내용이나 응모 요강을 미처 살피지 못해 저작권이 출판사나 응모 주최 측에 양도되는 경우다. 학술계에서는 자신이 학회지 등에 투고한 논문의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학회에 양도되는 것을 모르고 투고했다가 저작권을 상실하는 일도 발생한다.
----------------------------------	--

저작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 허락을 해줄 수 있으며, 저작권자가 허락해준 범위를 넘어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 저작물을 도서로 출간하는 것만 허락했는데 전자책까지 출간한 경우,



2012년 최고의 스포츠 영웅에서 논문 표절로 일그러진 영웅이 된 문대성. 학술계에 만연한 논문 표절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줬다.

저작물을 한 개의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허락했는데 다른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왜 출판사나 공모 주최 측, 학회에서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양도받으려 하는 것일까? 출판사나 공모 주최 측, 학회 등은 하나의 저작물을 양도받은 후 다양한 권리를 아무 제약 없이 행사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 조건을 수락하지 않으면 도서 출간, 입상, 학회 투고를 거부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저작자 입장에서는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

저작권 보호는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갖추고 타인의 저작물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 한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나, 이용자가 저작권 인식이 없는 경우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반대로 이용자가 저작권을 보호해주고 싶어

해도 저작권자 스스로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저작권 보호는 권리자나 이용자 모두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존중할 때 이루어진다. 지적재산권,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고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사용하려는 사람(이용자)은 물론이고 저작권 소유자(권리자) 또한 스스로의 작품이 지적 재산임을 깨달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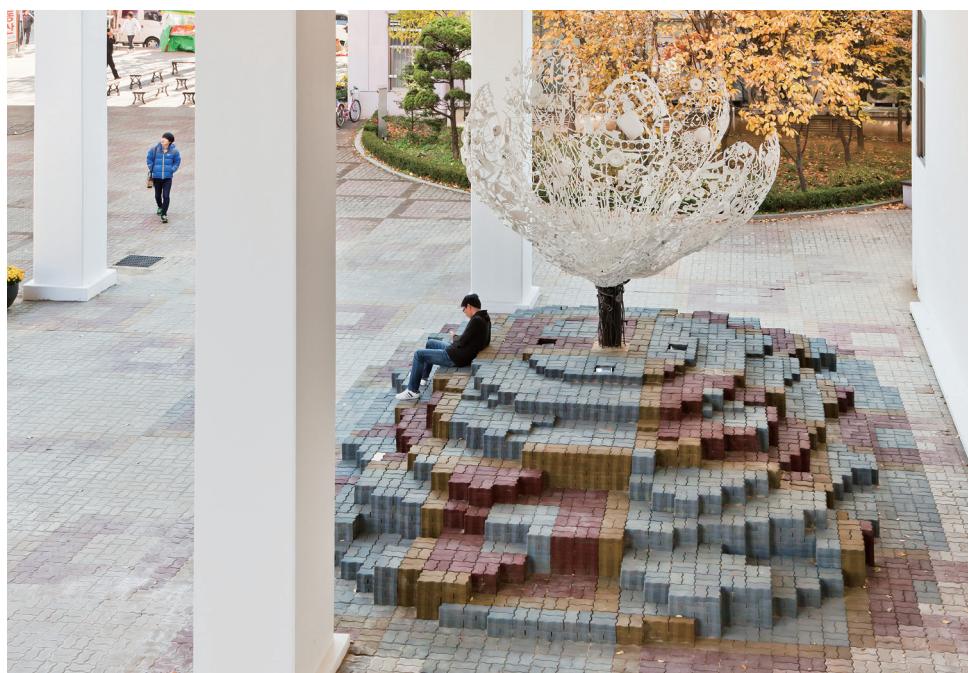
조용필 사건과 같은 저작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뿐만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가진 이용자 측에서도 권리를 양도받는 계약을 지양하고, 저작자의 지위를 존중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얼마 전 싸이가 '젠틀맨'이라는 신곡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시건방춤'의 저작권을 구입해서 큰 이슈가 되었다. 이용자로서 저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여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 고무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저작권 인식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결국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용자들 역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인식의 변화와 공감대 형성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저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으며 문화산업의 발전도 빨라질 것이다.

공공사색 公共四色, 공공사색 公共思索

트렌드처럼 번진 공공미술, 과연 누구를 위한 미술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리 예술에 답이 없고 성역이 없다지만, 그 성격과 의미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
한 무신경한 공공미술이 남발되기 때문이다.



(위) 강의중 <광화문에 뜬 달>, 2007
광화문 복원 현장에 전면 가림막으로
쓰인 대형 설치물
(아래) 최정화 <당신은 꽃입니다> +
조민석 <꽃방석>, 2012
미술가와 건축가의 협업으로
부천테크노파크의 야외 공간에 설치된
휴게 공간 프로젝트

公, 공평하다

2013년 현재, 대한민국 도처에 공공미술(公共美術)이다. 일명 1%법이라고 불리는 “건축물‘장식’제도에 관한 법령”이 수차례 개정 논의와 불발을 거듭하다 2011년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로 개정되었다. 새로운 법령이 장식에서 공공미술로의 개념 변화와 더불어 작품 설치에 있어 선택적 기금제를 가능하게 했지만 그 실효는 여전히 실험 중이다. 빌딩들 앞에는 여전히 천편일률에 가까운 환경 조형물들이 세워지고 있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다양한 부서들에서 내놓는 예술 프로젝트들도 만만치 않다. 문화예술과, 도시계획과, 주민생활과, 공원녹지과 등 좀처럼 네트워크를 이루기 힘든 정부 조직들에서 저마다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예술 프로젝트들은 그 종류와 대상이 다양하지만 크게는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다. 공공미술의 스펙트럼은 더욱 넓어지면서 서로 중첩과 교차를 반복하고 있다.

도대체 공공미술은 무엇일까. 공공미술이란 공공의 장소에서 선보이는 미술, 보다 직접적인 삶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지역 공동체의 관심을 공유하는 미술이다. 미술이 특정 소수에게 독점되거나 그들의 미감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평한 지점을 탐색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핵심인 것이다. 그것이 공공장소에 세워지는 장소성 중심의 공공미술이든, 커뮤니티 중심의 공공미술이든, 혹은 건축이나 디자인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미술이든 간에 우리 삶 속의 열린 공간들에서 만나는 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

工, 공교하다

개인의 관점과 미적인 감수성을 표현하는 예술의 갈래 중에도 연극이나 무용 같은 공연 예술보다 개인적인 예술 표현의 성격이 짙은 미술이 어떻게 공공적일 수 있을까? 공공이란 확두는 예술의 흐름을 이끌어왔던 중요한 질문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잊혀왔다. 칸트의 천재로서의 예술가상을 근간으로 한 낭만주의 예술이 지배해 온 자율적 예술의 개념은 사실 30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1만여 년이 넘는 미술의 역사 중 300년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미술은 이 패러다임을 벗어나고자 한다. 미술은 개인적인 표현인 동시에 여럿이 함께해 온 다양한 활동 속에, 공동체 속에, 건축·연극 등 인접한 예술 활동 속에 녹아 있는 것이다. 사실 그 이전부터 늘 있었던 사회나 공동체와 결부된 미술의 모습들이 공공미술이라는 장르로 재생점화되었을 뿐이다.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를 거듭하며 변화·발전되어온 것처럼 미술의 공공성에 대한 질문은 미술가들 내부의 물음이기도 하고, 시대와 사회의 요청에 따라 축발된 것이기도 하다. 미술사(더 넓게는 역사)의 선형적 발전 궤적에 대한 의문 속에 예술이 어떻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완수되지 못한 유토피아에 대한 기획들은 언제나 늘 존재해왔다. 다만 어떻게 작가의 개인적/사적인 목소리와 공적인/공동체적 요청들이 만나는가에 대한 그간 잠재해 왔던 수요들이 공공미술을 통해 폭발하듯 흘러나오는 것이다.

共, 여럿이 함께하다

2007년 이문동 육교는 하룻밤 새 앵듯빛으로 칠해졌다. 젊은 예술가 그룹 마이크로플렉스가 공적 기금을 받아 진행했던 아트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각종 민원들이 빗발쳤고, 관할 구청에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도대체 아트 프로젝트와 아트 테러의 경계는 무엇일까. 민원은 대개 두 가지 방향으로 모아졌다. 앵듯빛의 강렬한 색감이 운전이나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과 어떤 사전 안내도 없이 하룻밤 새 바뀌어버린 육교의 모습에 대한 거부감이었다. 앵듯빛이야 젊은 예술가가 제시한 미감이고, 하룻밤 새 선보인 육교의 변신은 충격의 유머라고 너그럽게 치부하자. 하지만 이 작업의 치명적인 문제는 수분을 함유하고 배출하는 기능을 가진 콘크리트용 도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작업이 육교의 기능과 재료, 더 나아가 지역과 주민에 대한 충분한 사전 스터디나 사유 없이 진행되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물론 예술에서 정답을 기대할 수는 없고, 반대가 있어야 시민의식도 길러진다. 하지만 그것이 게으른 미술, 무책임한 미술을 걸러내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공공미술에 있어서 작가 의식에는 자기 작업의 연장선 아래 작품의 의미를 찾는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비판적 사고가 수반되어야 함과 동시에 소통의 과정이 존재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그 소통은 장소와 지역 그리고 지역 주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스터디가 선행되었는가에 대한 성실성은 예술의 질이 얼마나 공교하나를 가른다.

空, 쓸모없음의 쓸모

예술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쓸모가 없다. 미술이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공공미술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한 사람을 만족시키기도 어려운 미술이 다수의 공공을 만족시키기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미술은 오늘도 가장 활발히 우리 삶의 여백들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 공공미술을 통해 건물이 바뀌고, 휴식 공간이 바뀌고, 육교가 바뀌고, 다리가 바뀐다. 그리고 그 작업들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약간 다르게, 약간 낯설게, 약간 활기차게 바꾸어낸다. 예술이 가진 쓸모없음의 쓸모는 우리 삶의 여백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다. 늘 자동으로 따라붙는 상투어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삶 속에서 확장되는 미술, 일상에 파문을 던질 수 있는 미술, 그런 건 교과서 속에만 박제되어 버린 의미만은 아니다. 예술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바로 그 혓된 믿음이야말로 공공미술이 꿔야 할 꿈이 아닐까.

글·사진 여경환 경기문화재단 책임연구원

화제

바보야, 문제는 콘텐츠를 대하는 방식이야!

창조적으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창조경제의 논리가 예술계
부흥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창조', 즉 콘텐츠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달려 있다.



1



2

1. 런던올림픽 개막식 현장. 뮤지컬 안에 영국 대표 문화 콘텐츠를 담아 유려하게 빛어냈다.
2. 고전과 발레를 접목해 한국적 발레의 새 지평을 연 <심청>.
3.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 제작기간 6년, 제작비 30억이 투입됐다.
4. 우리나라 청작 콘텐츠 1세대로 꼽히는 <난타>. 1997년 초연 이후 여전히 한국 대표 문화 콘텐츠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가 내건 '창조경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골몰하다가, 조금 오래된 사례이지만 2012 런던올림픽으로 돌아갔다. 강렬한 쇼 이상의 무언가로 남아 있던 개막식 영상을 보며 재차 확인한 것은 바로 콘텐츠의 힘이다. 뮤지컬 형식을 빌려 세익스피어는 물론이고 윌리엄 블레이크, 조앤 르링 같은 작가를 등장시키고 피터 팬과 해리 포터 등 영국을 대표하는 모든 캐릭터가 망라된 공연에서 폴 매카트니는 '헤이 주드'를 부르고, 영국 신세대 밴드 악틱몽키즈는 비틀스의 '컴 투 게더'를 불렀다.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녹인 공연 자체의 연출력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도 놀랐다. 그리고 수백 년 전의 것들도 현재에 소환돼 무리 없이 섞이는 초월성이 놀라웠다. 이 콘텐츠들은 개막식 공연을 위해 급하게 소환된 구닥다리 유물이 아니었다. 이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대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준다. 또 한 가지 기억 할 만한 장면은 개막식에 등장한 공장 굴뚝과 노동자 퍼포먼스다. 산업혁명에서 오늘날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지니고 사는 한 나라가 되었음을 은유하는 과정에 등장한 굴뚝 퍼포먼스는 굴뚝으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의 시대는 가고, 비틀스와 세익스피어, 해리 포터가 함께 공존하는 문화예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해준다.

한 나라 내에서 생겨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인정하고 고유의 것으로 발전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이 아마 박근혜 정부가 말한 창조경제의 근간일 게다. 이 지점을 참고해야 우리가 원하는 창조경제 역시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스스로 거듭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자생력 있는 우리 고유의 콘텐츠를 어떻게 발굴하고 지원하며 발전 시킬 것인지, 이것이 창조경제의 동력이다. 그런데 잠깐,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먼저 짐검할 때다.

창조경제의 주창자인 영국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에 따르면 '아이디어를 이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역설하며 '상상력, 창의성, 과학기술에 비탕을 둔 경제 운용으로, 새 성장 동력과 시장,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들은 한 뿌리에서 출발했으나 후자의 범위가 더 좁다.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와 예술이 즉각 무언기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창조경제의 핵심, 창작 콘텐츠의 힘

새로운 창작 콘텐츠로 무언기를 창출한 좋은 사례도 물론 많다. 사물놀이에서 착안해 탄생한 <난타>는 아시아 작품 최초로 오프 브로드웨이 전용관을 두고 공연을 했다.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 최초로 220만 관객을 불러 모은 <마당을 나온 암탉>은 황선미 작가의 원작 동화를 기초로 한다. 우리 정서를 잘 불어넣은 텃에 이 애니메이션은 유례 없는 성공을 거뒀고 공연으로 각색돼 이름난 가족극으로 자리



3

잡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게임으로도 출시된다. 중국과 폴란드에서는 원작이 번역 출간됐고 폴란드에서 '2012 최고의 책'으로도 선정됐다. 한국의 고전 <심청전>을 각색해 서양의 장르, 발레에 접목시킨 <심청> 역시 1987년 초연 이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에 진출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물론 <마당을 나온 암탉>이 폴란드까지 건너갈 수 있었던 데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이 있었고, <심청>은 외국인 스태프들이 우리의 콘텐츠 안에 숨어 있는 만국 공통의 보편 정서를 찾아내 입히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기본적으로 좋은 콘텐츠는 스스로 성장할 힘이 있다. 물론 성장할 수 있는 동력과 지원은 필수다. 창조경제가 힘을 발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선 '창조'.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경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콘텐츠의 결에 맞춘 지원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경제 아닌 '창조'

박근혜 정부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콘텐츠 개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게 '콘텐츠코리아랩'을 설치해 문화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환경 등을 조성하는 등, 콘텐츠 산업의 부흥을 천명했다. 다 좋다. 다만 한 가지 우려는 있다. 현재 8,500억 원의 가치를 지녔다 평가되는 인기 캐릭터 뽀로로를 만든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는 2003년 <뽀롱뽀롱 뽀로로>를 세상에 선보이고 이름을 날리기까지 8년의 기간이 걸렸다. 그 기간 그는 단 한 편의 작품도 성공시키지 못했다. <마당을 나온 암탉> 역시 한 편을 제작하는 데 6년의 시간이 걸렸다. 창조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마법의 열쇠도 아니다. 창조경제란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꼬리를 물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쇄 과정의 하나이지, 경제성의 논리에 입각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창조'가 먼저나 '경제'가 먼저나, 예술을 경제 논리로 판단하려 드는 순간 오히려 '창조'는 빛이 바랜다. 창조경제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창조이고 창조를 위해 따라야 할 것은 자신의 인내이기 때문이다.

4



글 차윤경 사진 중앙포토

서울연극센터 PLAY-UP 아카데미

진정한 배우로 거듭나는 시간

갓 데뷔한 배우부터 22년 차의 베테랑까지, 이곳에서 연극인들은 다시 무대 위로 오르기 위한 자신감을 배운다. 나름의 이유로 무대에서 멀어졌던 배우들의 재교육이라는 취지 아래, 오순택 교수 앞에 선 사람들의 눈망울이 한없이 진지하다.

다시 시작된 배움의 시간

2013년 5월,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대학로문화공간에 모여든다. 배우라는 이름만으로 이들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지 충분히 상상되지만,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쩐지 조금은 더 특별한 것 같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고 꿈을 접어야 했던 한 여배우는 기적처럼 시력이 돌아온 지금 다시 무대 위로 돌아갈 순간을 기다린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하던 극회를 잊지 못한 50대의 남자는 결국 회사 생활을 포기하고 대학로로 돌아왔다. 하지만 배우가 된 지금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아쉬움이 항상 가슴 한곳에 자리 잡고 있다. 또 누군가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상업극 무대를 택했지만 처음 연극을 시작했던 그때와 같이 치열한 연극무대에 선 모습을 봄마다 상상한다. ‘과연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하며.

28세부터 51세까지 23년의 세대차, 그리고 이제 갓 데뷔 5년이 넘은 젊은 배우부터 22년 이 넘은 베테랑 연극인까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진 12명의 배우들이 서로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다. 이미 여든이 지난 노배우 앞에서 그들이 어떤 세월을 살아오고, 어떤 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곳에선 그저 스승과 제자, 배움과 가르침, 단지 그것이 전부다. 큰 가르침을 줄 오늘의 스승은 바로 할리우드 한류 1세대 원로배우 이자 연극 교수, 오순택이다.

한류 1세대, 오순택의 연기론

서울연극센터에서 진행하는 〈PLAY-UP 아카데미〉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인들(그중에도 특히 배우들)의 재교육을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 2012년 총 84명의 배우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높은 호응을 받았던 프로그램이다. 특히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디렉 파트벌역(독일/연출가 및 연극 교사)’, ‘나루미 코헤(일본/연출가)’, ‘크쉬슈토프 가르바체브스키(폴란드/연출가)’와 같은 해외 연출가들과의 만남은 현장 연극인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서울예술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등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는 오순택의 ‘장면연기기술’은 청강생으로 밤 디딜 곳 없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은 프로그램으로, 좀 더 많은 배우들과의 만남을 위해 2013년 재편성되었다. 2009년 할리우드에 진출한 이병현이나 최근 개봉한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배우나보다 40년 전인 1974년 〈007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에 출연한 오순택은 1965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100여 편의 영화와 TV 드라마에 출연했고, 브로드웨이 등에서 200여 편의 공연에 출연한 한류 1세대 배우다. 그리고 지난 2001년 귀국 후 본격적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배우 양성에 힘써왔다.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서양의 연극은 일본을 통해 유입되었는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가부키나 노와 같은 연극 형태를 통해 기본에 충실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이 그의 설명. 한국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초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그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땀 흘리는 이유일 것이다.

2013 PLAY-UP 아카데미

배우를 위한 자유로운 호흡과 발성(링크레이터 발성법을 중심으로) _ 김혜리

일시	7월 1일~22일까지, 11:00~14:00, 매주 월·수·금 총 10회
장소	대학로연습실 6관
강사	김혜리 국민대 교수, 극단 ETS 연출/배우
내용	호흡과 신체적·음성적 습관에 대한 자각, 자유로운 호흡 및 소리, 소리의 경로(턱과 혀)를 자유롭게 하는 훈련으로 구성됨.

신체 행동으로 설명하는 연기 기술 _ 강량원

일시	8월 5일~26일까지, 11:00~14:00, 매주 월·수·금 총 10회
장소	대학로연습실 5관
강사	강량원 극단 동연출, 월요연기연구실 대표
내용	설계된 행동을 수행하고 관객이 상황과 인물을 읽어나가는 연기를 지향함으로써, 가장 섬세한 단위까지 계획하고 수행하는 방법을 훈련함.
문의	서울연극센터 02-743-9332



“컷! 다시.” 벌써 20분째 레이디 맥베스의 등장 신이다. “지금 거기가 어디니? 맥베스의 집이라면 자신의 집일 텐데 왜 그렇게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들어오지? 손에 와인잔은 왜 들고 있니?” 오순택은 배우들에게 단순히 대사를 외우는데 그치지 않고, 〈맥베스〉의 시대적 상황과 장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물의 전사(前事)까지 연극 활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적인 활동(Theatrical Intelligence)을 요구한다. 단순하게 배우인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닌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의 내적 풍경과 그를 둘러싼 외적 풍경이 공존할 수 있는 감각을 전달하도록 배우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연극인의, 연극인에 의한, 연극인을 위한

오순택의 ‘장면연기실습’이 배우로서 활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과 자세를 가르친다면 〈PLAY-UP 아카데미〉의 하반기 프로그램은 보다 더 배우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는 7월에는 링크레이터 발성법을 중심으로 ‘배우를 위한 자유로운 호흡과 발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999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배우 발성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크리스틴 링크레이터에게 직접 발성법을 배우기 시작해 국내 최초로 링크레이터 발성법 교수 자격을 취득한 김혜리 국민대학교 교수가 세익스피어 텍스트로 호흡과 발성이 실제로 어떻게 연기에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8월에는 극단 동에서 활동하는 강량원 연출의 ‘신체 행동으로 설계하는 연기 기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량원 연출은 이번 과정을 통해 배우가 인물의 삶을 사는 연기가 아닌, 무대에 나가기 전에 가장 섬세한 단위까지 계획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찾아 훈련하는 과정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누구나 항상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현장에서 듣는 연극인들의 배움을 향한 갈망은 무대 위의 열정만큼이나 뜨거운 것 같다. 앞으로도 서울연극센터는 연극인들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글 김윤경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센터 사진 김성훈

여기는 시장? 아니 예술 공작소!

신당창작아케이드

신당창작아케이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위치를 곱씹어야 한다. 다양한 삶의 움직임이 북적대는 황학동 중앙시장 내 위치한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삶과 예술의 공존 가능성을 시장이라는 장사의 공간에서 찾았다.



1

신당창작아케이드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다했던 재래시장 지하 빈 점포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정책적 대안으로부터 출발했다. 2008년 당시 중앙시장 지하쇼핑센터의 많은 상점들은 오랫동안 장사가 되지 않아 이미 점포를 비운 상황이었고, 이곳에 예술가들이 들어와 창작공간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지하상가의 점포들은 대략 5~6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고, 이 안에서 예술로서의 작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장르는 ‘공예·디자인’이었다. 이렇게 하여 예술로서의 ‘공예·디자인’과 삶으로서의 ‘중앙시장’은 2009년 10월 16일 서로 만나게 되었다. 2009년 약 40여 명의 공예·디자인 예술가들이 신당창작아케이드에 모였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150여 명의 공예·디자인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인큐베이팅했지만, 모두 작업으로만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서 공예품을 전시할 공간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막상 힘들게 완성된 고가의 공예품을 사람들이 쉽게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공예 시장이 타 장르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다. 어떻게 하면 신당창작아케이드에 입주한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만들고 신나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다양한 실험과 시도, 끊임없는 고민의 연속

개관부터 현재까지 두 가지의 사업 미션을 세웠다. 하나는 공예예술가 지원이라는 창작공간 운영 미션에 따른 입주예술가 창작지원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재래시장 활성화 혹은 지역 재생이다.¹ 먼저 입주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예상품 개발을 들 수 있다. 입주예술가 창작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매해 이뤄졌고, 그 결과 약 50여 종의 공예·디자인 상품이 제작되었다. 페코마트(Peco Mart)는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 인큐베이팅한 대표적인 입주 예술가로 파리 메종&오브제(Maison&Objet)와 뉴욕 오프닝 세레모니(Opening Ceremony) 등에 초청 작가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패션 브랜드 폴 스미스(Paul Smith)와의 협력을 통해 현재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원을 통해 개발된 다양한 공예품들과 입주예술가들의 작품은 신당창작아케이드 내에 조성된 아트마켓 공방에서 누구나 손쉽게 관람하고 구입할 수 있다.

예술가의 역할, 그 가능성을 모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지원사업은 입주예술가들이 자생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했다. 2012년도에는 입주작가 창작지원 시스템을 바꿔 단순히 상품개발을 위해 지원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예술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의 작업을 이해하고, 타 분야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전시, 상품개발,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총 8개의 사업을 진행했다.

그중 〈신당공작-100m 안의 사람들〉 프로젝트는 예술가와 제품을 생산하는 황학동 수공업 장인들과의 특별한 만남이었다. 미술 시장에서 공예품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제작하다 보니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대량 생산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고 그로 인해 작품가가 높다는 점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공예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황학동이라는 지역과 연결하여 해결하고자 했다. 황학동에는 여러 수공예 작업장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철공소, 목공소, 나전칠기 공예 제작소, 의류 패턴 제작소 등이 곳곳에 존재한다. 본 사업에서는 ‘섬유 예술가-패턴상회, 미방상회’, ‘금속 예술가-자개상회’, ‘유리 예술가-목공, 철공상회’로 ‘예술가-수공예 장인’의 협업을 시도했다. 단순히 공예품의 양산에 목적을 두고 시도했던 본 프로젝트는 쇠퇴하고 있는 황학동 지역의 수공예 장인들이 입주예술가들보다 경쟁력 있는 공예품을 제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품을 보는 안목과 기술력도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했다. 나아가 기존의 학교에서 공예를 전공한 자신들만이 예술가이고 장인들은 단순한 기술자라는 생각이 허구였음을 알게 한 프로젝트였다.² 〈신당공작-100m 안의 사람들〉 프로젝트는 공예품 대량 생산의 새로운 시도뿐 아니라 지역과 사회에서 예술가의 위치와 역할에 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앞으로 공예·디자인 예술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들에게 작업실을 제공하고,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 상품들이 활발한 유통을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큐베이팅할 것이다. 동시에 아케이드가 위치한 재래시장과 슬럼화되어가는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예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만들어갈 것이다. 예술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 1 김진호, “황학동별곡, 100인 이야기: 시장상인들의 언어세계로의 새로운 접근”, 〈황학동별곡, 100인 이야기〉 기획의 글, 2013, p. 6

* 2 최범, “공예가, 장인을 만나다-신당동에서 생긴 일”, 〈신당공작-100m 안의 사람들 결과 보고집〉, 2012, 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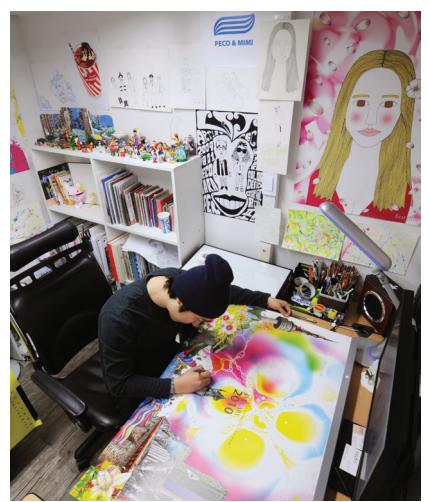
2



3

신당창작아케이드
주소 서울시 중구 마장로 87(황학동)
문의 02-2232-8833 www.seoulartspace.or.kr/G03_sindang/main.asp

1. 페코마트, MEET BURGER(cup coasters set), 2011
2.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공공미술 프로젝트(황학동별곡, 100인 이야기)
3. 페코마트, 스마트폰 때밀이, Micro-fibre towel, 87×10×0.1cm, 2011
4.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작업공간



4

글·사진 조예인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

음악의 소우주, 풍류방과 실내악

연희풍류극장 <몽십야>와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서양의 실내악에 버금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 아담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동 서양의 향연은 더 농밀한 음악의 소우주를 펼쳐내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내악은 적은 인원으로 연주하는 기악합주곡을 뜻한다. 어떤 형태인가 궁금하다면 비교적 익숙한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곡 <송어>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5중주'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피아노, 5개의 악기로 구성된 것을 일컫는 음악 용어다. 실내악은 서양음악에만 있는 장르가 아니다. 우리나라 음악, 즉 국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음악을 즐기는 선비들이 가야금, 거문고 등과 같은 악기를 들고 한 곳에 모여 합주를 했다. 이 또한 5~10명의 인원으로 연주하는 '중주' 형식이었다. 그리하여 음악을 연주하는 실내공간을 풍류방, 혹은 '음률'·'선율' 할 때의 율(律)자를 써서 유행방(律房)이라고도 했다. 사실 알고 보면 이곳은 일상을 누리는 서재나 사랑방으로, 앉으면 무릎과 무릎이 맞닿는 아담한 공간이었다.

연희풍류극장, 아담한 풍류를 찾아서

전통 문화와 풍습이 일제강점기에 말살되면서 자연스레 풍류방과 그 예인들도 자취를 감췄다. 반면 도시 문명이 발달하고 큰 규모

의 공연장이 세워지면서 작은 실내의 유풍에 익숙한 풍류방의 국악기들은 큰 공연장에 오르기 시작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작은 실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국악기들은 큰 극장에 올랐을 때, 음량이 빈약하고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되거나 대안으로 마이크 등과 같은 음향 기기를 사용해야만 했다. 그렇게 소리는 키웠으되, 아담한 실내를 채우던 은은한 유풍도, 자연스러운 맛도, 소리의 입체감도 다 포기해야 했다. 언제부턴가는 국악기의 마이크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이크는 연주자보다 먼저 무대에 나와 있었고, 연주자는 악기와 마이크를 '합체'하고 연주를 시작해야만 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자니, 무엇보다 축소된 극장, 작은 실내, 과거의 풍류방을 닮은 연주 공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런 극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일까. 국립국악원의 연희풍류극장의 개관이 반갑고, 또 반가웠다. 4월에 개관한 연희풍류극장은 총 130석으로, 음향 기의 사용 없이 합주와 판소리, 무용 등 실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장르의生生한 소리를

접할 수 있는 소규모 극장이다. 일단 입장부터 독특하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공연장에 들어가는 기분이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총을 둔 객석에 등받이가 있는 붉은 방석이 놓여 있었다. 역사 속에 기록된 풍류방보다는 다소 큰 편이다. 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악기 소리가 관객석 끝까지 들려왔다. 무대에는 24개의 음향판을 붙여 소리가 천장으로 튀어오르는 것을 방지했고, 45개의 조명이 무대를 밝히고 있었다. 개관에 맞춰 선보인 열흘 동안의 기념 공연 <몽십야 (夢十夜)>. 공연 첫날인 4월 30일에는 가야금, 거문고, 대금, 세피리, 해금, 단소, 양금, 장구, 8개의 악기로 구성된 <영산회상>이 올랐다. 마이크의 '조미료'를 걷어내니 소리 하나하나가 산뜻하게 들려오며, '작은 실내에서의 풍류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5월 4일에는 신명숙 명인이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를 선보였다. 농현(줄 위에 얹은 손으로 줄을 흔드는 기법)을 할 때 들려오는 옛깃의 바스락거림마저 음악 같았다.

아쉬운 것은 마이크는 없되 스피커는 있다는 것. 독무를 선보인 무용에서는 실연으로



1. 총 130석의 아담한 규모로 개관한 연희풍류극장. 신발을 벗고 편하게 입장해 우리 음악의 정수를 맛볼 수 있다.
2. 대형 콘서트홀의 웅대한 오케스트라 연주와는 다른 교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하는 반주가 아닌 녹음 음원에 맞춰 춤사위를 선보였다. 그래도 국악기가 지닌 음량의 생명력을 존중하는, 아담한 실내를 담고 있는 공연장의 탄생이라는 점에 기쁨이 앞섰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작아서 더 생생하다

반면 양악, 즉 클래식의 경우에는 실내악에 어울리는 규모의 ‘실내’를 품고 있는 공연장이 서울에 몇 곳 있다. 실(室), 좁은 공간을 뜻하는 ‘챔버’ 또는 ‘체임버’가 공연장 명칭에 들어가는 곳을 꼽자면,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홀들에 실내악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채워 넣는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가 2008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봄마다 열리고 있다. 매년 국내외의 음악 영재들이 해외 유수의 국제 콩쿠르에 입상하여 신문의 문화면을 장식하고, 수많은 시·도립 교향악단이 있는 국내 상황에 비해 독특하게도 실내악은 각광받지 못하는 장르다. 그런 점에서 실내악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매우 중요한 축제다.

올해는 5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열렸다. 이 축제의 묘미는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종주의 레퍼토리들이 ‘총출동’한다는 점이다. 보통 ‘실내악’ 하면 2대의 바이올린·비올라·첼로로 구성된 ‘현악 4중주’나 바이올린·첼로·피아노로 구성된 ‘피아노 3중주’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번 축제에는 관악기인 클라리넷과 첼로·피아노로 구성된 클라리넷 3중주, 바이올린·비올라·첼로에 플루트가 더해진 플루트 4중주 등이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연일 이어지는 13일간의 축제를 관통하는 제목은 ‘타향살이, 고향생각’이었다. 옛날부터 많은 음악가들이 고국을 떠나 타향에서 활동했다는 사실들이 이번 축제의 모티프가 된 것이다. 연주회마다 ‘세계만유가’, ‘유럽 이주민’, ‘아메리칸 드림’, ‘나그네 여정’ 등의 제목이 붙었고, 그에 맞는 작곡가의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묘미는 아담한 무대에서 주자들이 이 나누는 투명한 교감에 있었다. 이는 대형 콘서트홀에 오르는 오케스트라 무대와는 다른 아기자기한 맛이 있었다. 오케스트라는

단원들이 일제히 지휘자를 보면서 연주하기에 지휘자와 교감한다기보다는 명령을 하달 받는 듯하다. 하지만 소수의 연주자로 구성된 실내악은 그들끼리 나누는 교감과 음악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표정, 이 모든 것을 생생히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행해지기에 남다른 재미가 있었다.

이처럼 클래식의 실내악이나 국악의 풍류방 음악에서 중요한 것은 음악을 담는 그릇, 즉 실내의 규모와 그에 준하는 공간적 분위기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 ‘작은 고추가 맵다’를 변용한 ‘아담한 음악이 더 감동적이다’라는 표현?

글 송현민
공연 보고 이야기하는 남자(약칭 ‘공연 보이남’).
제13회 객석예술평론상을 수상했고 이런저런
무대연구소를 운영하며 공연장을 활단한다.
사진 국립국악원,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전시장에서 마주한 다양한 시각의 역사 기록

우아한 세계展 & 미래는 다양한 방향들로부터 온다展



시간의 흐름에 따랐던 다양한 삶의 태도가 이즘이 되기도 하고 형식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역사가 시각적으로 전개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다양한 시각의 역사 기록을 탐험해보자.

윤종석, 식사를 위한 준비, 227×546cm,
캔버스에 아크릴채색, 2013

점으로 기록한 역사, 그 이면의 실체 – 작가 윤종석의 〈우아한 세계展〉

2013. 5. 16~6. 9, 갤러리 아트사이드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어려운 일이다. 많은 역사적 기록이 있었음에도 정당성과 객관성 논쟁은 시대를 넘어 끊임없이 제기되며 논란이 있기에 과연 올바른 역사적 기록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듦다. 이러한 역사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힘의 역학관계를 시각적으로 전개한다면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질까 하는 호기심으로 〈우아한 세계展〉을 찾게 되었다.

본래 윤종석은 주사기로 점을 찍어내는 작가로 미술계에 이름을 알렸다. 이전 작업은 옷을 개쳤을 때 그 접힌 모양을 권총, 강아지, 별 등의 모양으로 만들어내며 한 점, 한 점 주사기로 그려냄으로써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했었다.

하지만 이번 전시 〈우아한 세계〉를 통해 그는 이전 작업에서 특정 모양을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옷을 접고 펼치며 특정 대상의 모

양을 재현하려 했던 군더더기를 버렸다.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자리한다’는 작업을 통해 각 국가의 국기 아래 권총의 윤곽만을 드러냄으로써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 은폐되어 있는 힘의 실체에 대해 개인의 시각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평화를 표방하면서도 그 이면에 무력이라는 물리적 해결점을 지향해온 서방의 국가들과 그들이 유지해온 역사적 실체의 위선은 그가 재현해놓은 화면의 이미지들을 통해 정확하게 발언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의 국기를 서로 엮어서 거대한 테이블보로 재현해낸 〈식사를 위한 준비〉는 각 국가가 가진 화려한 무늬들의 연결로 인해 마치 하나로 화합하는 듯한 이미지로 포장되어, 이 테이블보 아래 윤곽선만으로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나이프와 포크, 접시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정중앙에 분명 그 실체를 보여주는 이 상징적 대상

들은 영토 확장에 미쳐 있던 세계 역사의 과거와 현재,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려가는 욕망의 역사를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다. 특히 〈숨겨진 차원-태극기, 인공기, 판문점〉은 우리의 표면적인 역사와 그 이면의 실체를 읽어내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찍어가며 작업하는 일은 어렵다. 작가 또한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고된 방법을 회피하려 하지 않는다. 역사를 기록하는 일 또한 고된 일이지, 절대 녹록한 일이 아니기에 독특한 풍자의 시각으로 역사를 점점이 기록해나가는 작가의 작업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미래는 다양한 방향들로부터 온다〉 전시장.

벽에 걸린 작품이 알렉산더 우가이, 바닥에 설치된 것은 이소영 작품.

이산의 관념적 틀을 깨다 – 〈미래는 다양한 방향들로부터 온다展〉

2013. 5. 9~25, 갤러리 175

서울문화재단
자원사업

고국을 떠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산(Diaspora, 離散)은 과거 어느 한 민족을 대표하던 의미에서 전쟁과 식민지화로 고국을 등져야 했던 난민이나 그 후손들을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이 되었다. 이소영과 알렉산더 우가이는 〈미래는 다양한 방향들로부터 온다(The Future is coming from All Directions)〉는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역사 중 디아스포라로 지칭되는, 고려인들의 이산이 제시하는 삶의 현실에 집중한다. 이산이 주제화되었다고 해서 막연히 우울함과 비극적 이미지를 기대했다면 전시장 작업들은 예상 외로 다가올 것이다.

알렉산더 우가이는 연합모형이라는 작업을 통해 고려인들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작가적 상상에 의해 예측되어진 미래를 콜라주 연작으로 펼쳐내고 있다. 그가 제시한 이산 1세대 이후 고려인들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려인으로서의 회귀나 정체성에 대한 고민, 혈류도에 대한 물음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트랜스 휴먼, 플라톤의 세계 영혼, 후기 세속사회와 같이 어느 곳이나 존재하는

평범한 동시대 젊은이들의 관심거리로 도출되어 있다. 그가 만난 이산 3세대들은 이미 우리가 만든 민족주의적 역사라는 신화적 틀에서 탈피하여 그 환경과 시간 속에 가장 최적화한 상태로 적응하여 자연스럽게 토착화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탈화된 이산의 의미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증거하는 작가 이소영의 '자리 잡기' 작업(3채널 비디오 설치)은 조선에서 연해주로, 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했던 이산 1세대 이후 젊은 세대들의 생생한 육성 기록을 통해 세계화되어가고 토착화된 이산의 현실을 제시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젊은 이들은 한민족임에도 모국어가 러시아이다. 이소영은 단지 좋은 기회를 얻지 않을까 기대하며 대학과 직장을 찾아 한국으로 흘러드는 이 젊은이들의 삶에 집중함으로써 이산의 현실과 이를 바탕으로 전개될 미래를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젊은이들과 같은 고민을 하며 별다르지 않은 평범한 관심과 욕망을 품은 그저 세계 어느 곳이나 존재하는 젊은이들일 뿐이다. 불편한 진

실로 다가와 납득하기 어려울지라도 이산 3세대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마주치는 한민족 이산의 역사적 현실이자 미래다.

이처럼 이산의 미래는 어느 방향에서 시작되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 이것이 역사이고 우리는 그저 그 흐름을 기록하고 예측하며 따라갈 뿐이다. 이러한 현실적 기록을 통해 이산이라는 신화적 개념의 틀을 뒤집는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기록의 시각화라는 점에서 본 전시는 주목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작가들이 자신만의 시각과 방법으로 전개하는 시각화된 역사적 기록은 때론 풍자적으로 때론 사실주의적으로 우리를 자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작가들의 작업이 품고 있는 역사적 해석에 동참해주거나 이를 판단해주는 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새로운 방법이면서도 다양한 시각의 역사적 해석을 만나는 방법일 것이다.

글 이정훈 서울문화재단 홍보팀·마술비평 사진 각 전시 제공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전시장 나는 미술
미술이 넘치는 거!



1

아주 평범한 삶의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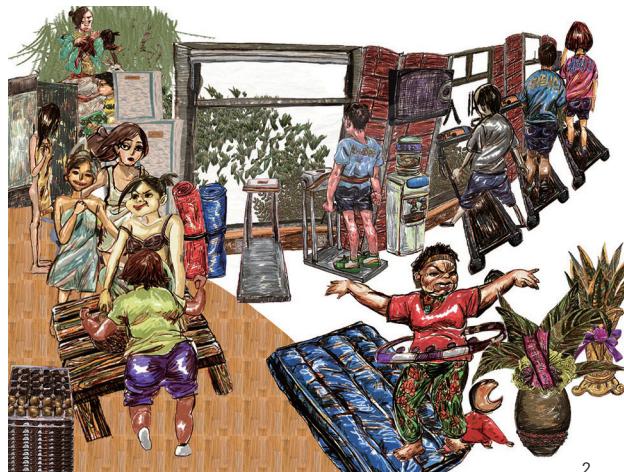
작가에게는 세상에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시민에게는 생활 속 예술 감상의 기회를 주는 기특한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이번에 소개할 프로젝트 참여 작품은 윤신혜 작가의 <헬스>와 <가족>이다.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결을 포착한 윤신혜 작가와 대중을 위해 예술의 문턱을 낮추고자 했던 '바람난 미술'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녀의 예술은 어렵지 않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과 장면 역시 우리 옆집, 아니면 근처 어딘가에 살고 있을 법한 사람들이고 누군가는 겪었을 상황들이다. <가족>이라는 작품은 대학 졸업 후 집 안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가족의 사이 역시 삐걱해졌던 때 작업했다. 가족들이 자주 하는 행동을 본떠 소통이 부재된 가족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다. 그러다 작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소리를 발견했다고 한다. 조용한 집 안 사이를 메워주는 새소리, 아이들 소리, 가스 검침원의 목소리 등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런 소리들이 묘하게 침묵을 메워주고 있다는 생각을 발전시킨 것이다. 우리 삶에 끼어든 아주 미세한 소리들, 삶의 미세한 부분을 포착해주어 참 고맙다. <헬스> 역시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닐, 그런 순간을 포착한다. 헬스장은 참 재미

있는 공간이다.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있는 공간임에도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풀어짐이 있고, 살 냄새와 땀 냄새로 가득하지만 소통이 없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 흥미를 느껴 "소통의 부재가 있는 듯한 삭막한 공간에서도 이미지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관계를 맺고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고 한다. 작품이 판매되거나 설치될 장소로 지하철역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지하철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분주한 공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훌연히 혼자 어디론가 향하고 떠난다. 그 번잡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스스로 일상 속에서 영감을 받아 삶을 더 귀한 것으로 돌아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녀는 작품을 통해 우리가 미처 포착하지 못한 삶의 아름다움이 전해지기를, 그리고 그 효과적인 전달자로 '바람난 미술'이 거듭나기를 고대한다.

1. 가족, Family
Digital Media, 2분(디지털
프레임 22인치 50×30cm),
100만 원

2. 헬스, Fitness Center
Digital Media, 2분(디지털
프레임 22인치 36×30cm),
80만 원



2

이달의 바람난 작품

1. 최은경

초안산 산책길, Oil on canvas

112×162cm

1,000만 원

어느 여름 날 오후의 초안산 산책길.
작품은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그늘의 대조를 통해, 순간에 불과하지
않은 어떤 '증만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 사이로 살랑대는 선선한 바람은
땅에서 흔들리며 일렁이는 잔상이 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각기 다른 소회와
기억의 선율을 따라 '어제'에서 비롯된
오늘 같은 앞날의 풍경을 '그리움'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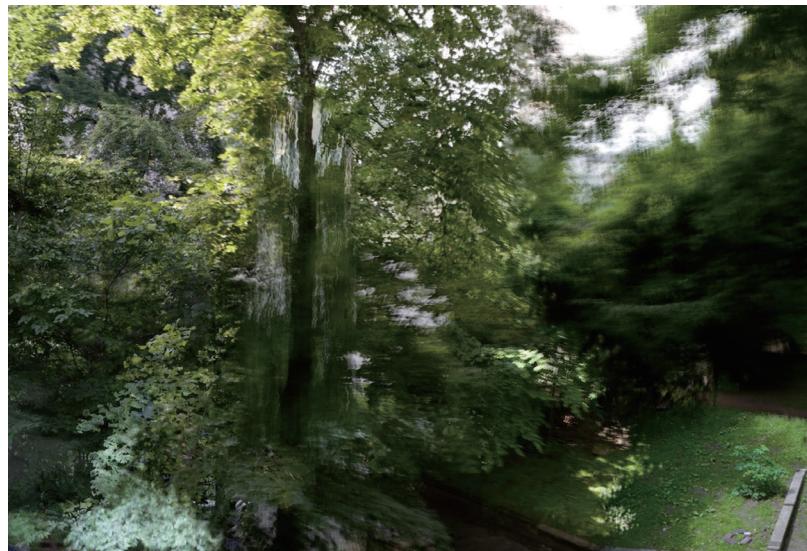
2. 조이경

뒤풀, C-print Photo-collage

60×90cm Ed.1/7

130만 원

작가 조이경은 회화 이미지와 대중매체
이미지의 재생산과 역사 이미지 그리고
빛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작업하고
있다. 이 작품은 부엌에서 보이는
뒤뜰의 광경을 매일 다른 시간대에 찍어
풀리주 형식으로 구성했다. 시선이
이동하듯이 카메라를 움직여 작품을
촬영했다. 작가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나타나는 자연과 빛의
변화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를 다시
재구성했다.



INFO

'바람난 미술' 사용법

- 나는 시민입니다. 작품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 우리는 기업입니다.
작품을 구매 혹은 대여해서 우리 회사의 예술지수를 높이고 싶습니다.
 - 나는 작가입니다. 내 작품이 시민과 만나면 좋겠습니다.
대여와 판매의 길도 찾고 있습니다.
-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팀(02-3290-7146)으로 문의하세요!



www.facebook.com/artwing.seoul



www.youtube.com/artwingseoul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가 매달 페이스북에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아 드리니 항상 서울문화재단 페이스북을 지켜봐 주세요!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우수 질문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남궁옥분

Q 전 스트레스를 요즘 술로 풉니다. 소주 두 잔도 못 먹던 제
가 이젠 두 병을 마십니다. 이렇게 꽤 된 게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친구들과 만
나 수다 떨면서 술을 한두 잔씩 마시다 보니 주량도 늘고 그 횟수도
는 것 같습니다. 술을 좀 적게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



A 예전에 어느 소설가가 했던 이런 말이 기억나는
군요. “세상에 인간을 신(神)에 가깝게 해주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술이고, 또 하나는 예술이다.”
예술과 술. 아마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
리멸렬한 삶의 규격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그
리고 그것을 접하는 순간만큼은 사람을 신에 가까울 만큼 매
우 너그럽게, 또한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지요.
술로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 예술로 풀어보심은 어떠실는지요?
좋은 공연을 보고 난 후의 카카르시스를, 그 새로운 영감을 맘
껏 즐기시고 그것에 들풀 풍물보시기를 감히 권장합니다. 서
울문화재단에선 지난 5월
부터 <서울댄스프로젝트>
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펼쳐
가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다
문득 춤추는 무리를 만난다
면, 스트레스 잠시 벗어두고
춤판에 동참하세요! 예술은
생각보다 술만큼이나 가까
이 있어요.

백승우 서울문화재단 문화나눔팀 팀장



한예은

Q 대한민국 20대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흔하지만, 당사자에겐 너무
가혹한 취업 스트레스가 심해요. 지방 국립대 4년을 휴학 한 번 없
이 다니다가 취업 문제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집에서 주는 무언의
압박감, 스스로에게 주는 자책, 사회에 대한 불신과 좌절 등으로 자주 읽던 책
도, 한달에 한 번은 꼭 가던 영화관도 멀어졌는데요. 예술적 상담소에서 어떻
게 상담해주실지 살짝 기대해봐도 될까요??



A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휴학을 시작하
셨네요! ‘누구나 흔히 겪는, 가혹한’ 시절임에 동의합니다. 그
리고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 따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보편적인 글귀보단 예은 님에게 맞는 개별적인 위로
가 필요하겠죠. 다행히 ‘누구나 흔히 겪는’ 감정이기에 예은 님에게 딱 맞
는 울림을 조금만 노력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 시간이 없어 찾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가지고 계신 최대 자원-시간-을 활용해 조금만 밭풀을 팔아보세
요. 좋은 무료 전시도 많습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은 님이 위로받을
수 있는 작품을 딱 하나만 찾는 거죠. 혹 어렵게 느껴지는 전시들은 다 이
해할 필요가 없으니 부담도 없지요. 그냥 페이스북 스크롤 내리듯 속 속
작품들을 관람하다 보면 분명 밭길을 잡는 것이 하나쯤 등장할 겁니다.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무용 공연이 될 수도 있고, 버스
킹 공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그 앞
에 우뚝커니 서서 바라보세요. 그냥 그
것만으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풀리
지 않을까요? 혹시 문제가 스스로에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도시
에 있는 것이 아닌지, 화살을 돌려볼 필
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침 금천예술공
장에서는 <버려지고 흩어진 것에 이수
워하는-전시와 혼적들> 기획전이 6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한번 들러보시
는 것은 어떨까요!

이준걸 서울문화재단 흥보팀



김춘희

Q 요즘 한국영화를 보면 15세 관람가인데도, 욕설이 난무해요. 학생들에게 욕을 많이 쓴다고 질책하곤 하지만, 이런 대중적인 영화에서 흔하게 욕설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 자제분이 15세 무렵의 나이를 지나고 계신가 보군요…! 저는 그때쯤 <투캅스>를 보며 건강한 우리말을 쑥쑥 습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춘희 님은 15세 때 어떤 영화를 보셨나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현실 속의 비속어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보다 훨씬 반복적이고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영화 때문일까요? 각설하고, 문제의 '15세' 등급을 부여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의 15세 기준을 한 번 보시죠.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제1장 7조 - ③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대사: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가. 거친 욕설. 은어, 비속어(성적인 언어 포함) 등이 있으나 반복적,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언어 폭력적 요소가 과도하지 않은 것
나. 청소년의 바른 언어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이라고 합니다. 너무 너그럽게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연소자 관람가 등급에서도 간혹 '미×놈' 정도의 비속어는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는 '대사' 항목이 영상을 등급 책정 기준들 중에서 덜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영상의 특성상 성적 표현과 폭력이 더 중요하겠지요. 외화의 경우에도 영어 비속어 대사를 순화해 자막을 만든 후 등급을 낮춰서 상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급위가 영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영어 욕설이 사회적으로 크게 안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 거란 판단에서죠.

15세 청소년이면 가끔은 격렬한 싸움판도 보고 싶고, 욕도 하고 싶어 질 나이잖아요. 직접 하는 것보다는 영화로 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원호성 유니온프레스 영화기자

진신애

Q 지금… 여행을 엄청 가고 싶어요. 근데 앞으로의 계획적인 삶을 위해 더 알뜰하게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지금 같까 무지 고민스럽습니다… 돈이나 추억이나… 그것이 문제입니다.

A 젊을 때 여행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인생의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20대 때 여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 흔한 배낭여행도 못 해보고 친구들하고 도서관, 당구장 등을 전전했지요. 젊은 시절의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건과 경험도 가지 못했고요.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회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나중에라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 여행은 시간이 기다려주지 못해요. 더 많은 곳을 가보시고, 더 많은 경험을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실 거라 믿습니다. '젊을 때 여행도 스펙이다'라는 김류미 작가의 글귀가 생각나네요….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팀장

Joohye Lee
Yoon

회사는 문화예술을 함께 누리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 기업으로 성장 중인데 사내의 일부 부서 직원들은 아직 문화예술을 누리는 부분에서 편식이 심해요.

Q

A 편식이 심하다는 말이 문화예술 관련 회사에서 문화예술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대중문화 같은 것만 즐기다는 것인지요? 꼭 콘텐츠화된 예술이나 문화 서비스를 구매해야만 문화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화된 문화 시대의 슬픈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문화 소외란 저소득층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럴 때 생기는 것, 아닐까요? 내 생활 자체가 나의 문학인 삶, 즉 주체적인 삶을 살면 돈이 없어도 문학적인 삶을 살 수 있지요. 일에만 얹매여 있고 여가 시간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지만, 시간이 곧 돈인 세상, 그런 분들이 일하시는 문화회사가 더 좋은 문화사회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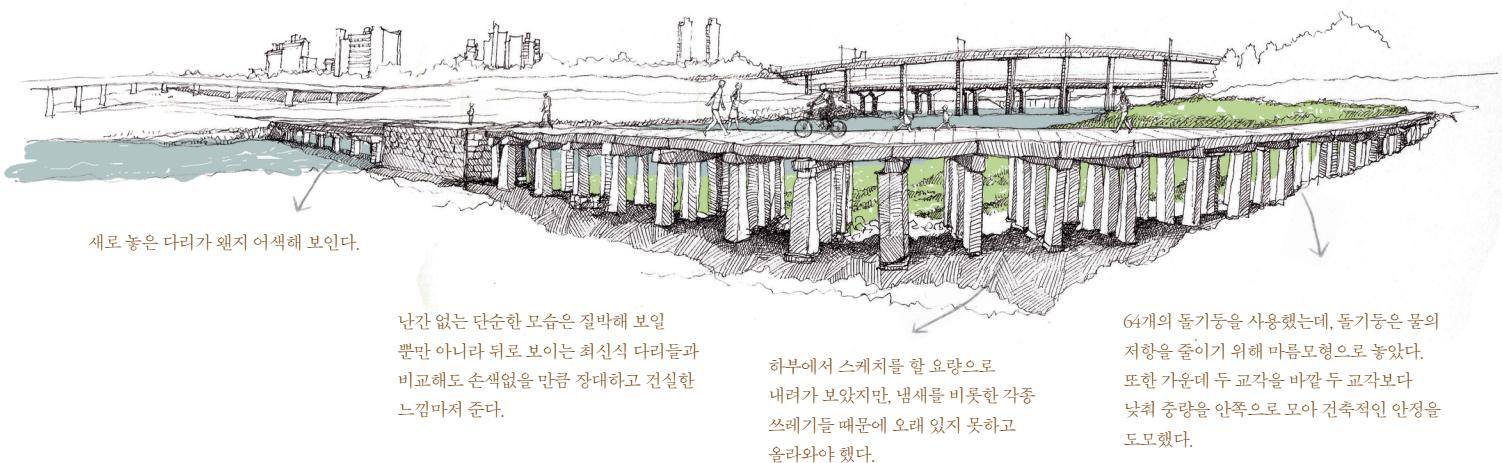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팀장



아주 오래된 다리들

한반도 전역에 실핏줄처럼 뻗어 있는 수많은 하천은 우리에게 축복이자 장애물이었다. 강대국 사이에서 많은 외침을 겪어야 했던 선조들은 소극적인 방위 전략의 하나로 다리를 최소화했다. 이번 회에는 서울에 몇 남지 않은 옛 다리들을 찾았다.

서민들을 위한 질박한 살곶이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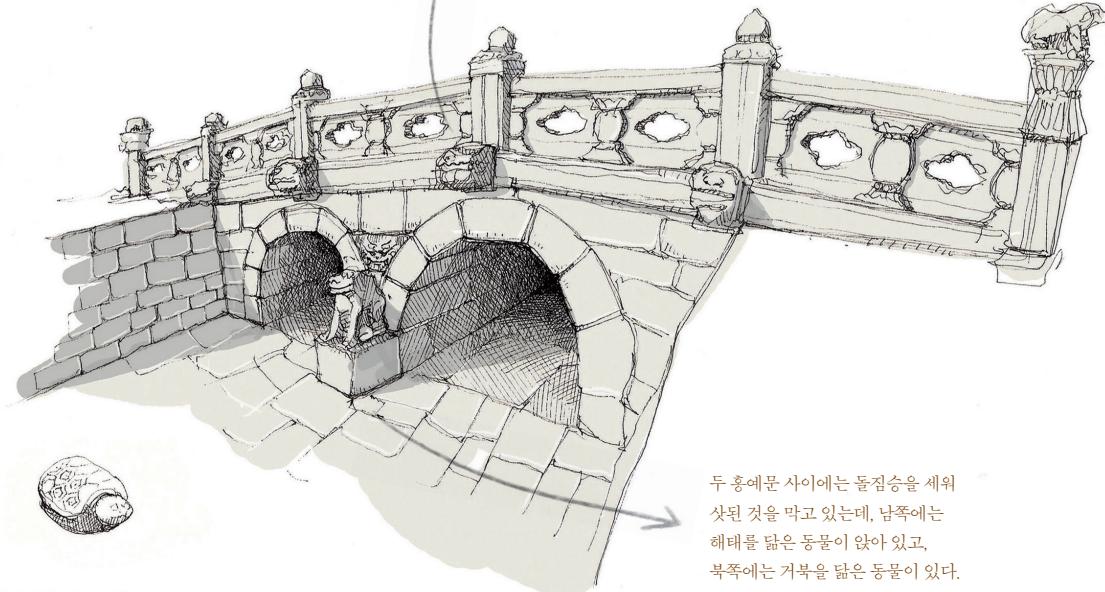
한양대학교 부근 중랑천에는 기다란 돌다리 하나가 놓여 있다. 네모나게 다듬은 교각에 아무 꾸밈없는 평평한 돌을 얹어 말 그대로 건넌다는 기본적인 기능에만 충실히 보이는 다리. 바로 살곶이 다리다. 성종 때는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이 마치 평지를 밟는 것 같다 하여 제반교(濟盤橋)라 부르기도 했다. 현재 이름은 이 부근이 '살곶이'라 불렸던 지명에서 유래한다. 이는 '화살이 꽂힌 곳'이라는 의미로 조선 초 태조와 태종의 일화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왕위 계승의 갈등으로 함흥에 머물고 있던 태조는 우여곡절 끝의 회유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마침 마중을 나온 아들 태종을 보고 다시금 분노가 치밀었는지 별안간 들고 있던 활시위를 당겼다. 이때 천막 기둥 뒤로 몸을 피한 태종은 기둥에 화살이 꽂히면서 화를 면했다는 것이다. 일화도 재미있지만, 역사사를 품은 지역에 걸맞게 오래된 문화재가 보존되어온 것도 더 없이 좋다.

살곶이 다리는 한양과 동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오랫동안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대원군이 경복궁을 만들 때 많은 석재를 가져가면서 훼손이 시작됐고 일제강점기에 허술하게 보수되었다가 1920년대 큰 장마로 일부가 유실되고 말았다. 후에는 바로 옆에 성동교가 세워지면서 다리로서의 기능을 아주 상실하고 말았다. 현재의 모습은 1972년에 복원한 것인데, 하천의 폭이 넓어지면서 나머지 부분을 현대식 교량으로 붙여 전체적인 모습이 다소 어색해져버렸다. 그래도 1483년(성종14년)에 완성된 조선시대의 가장 큰 다리를 건너 강 반대편에 도달해보면 옛 사람들이 가졌을 평범한 감동도 어렵잖이 느껴져 반갑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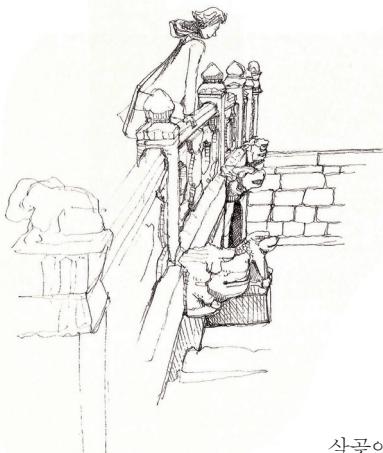
궁궐의 명당수에 놓인 금천교

홍예 사이의 역삼각을 이루는 공간에는
귀면을 조각했다. 귀면은 벽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건축에 사용되는 귀면은 주로 귀신이
아니라 용의 얼굴인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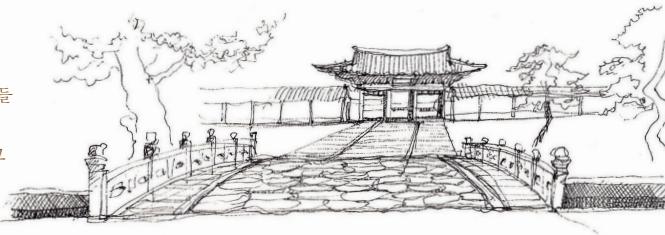
네 귀퉁이에도 각각 다른
동물들이 앉아 있다.



두 홍예문 사이에는 돌짐승을 세워
삿된 것을 막고 있는데, 남쪽에는
해태를 짚은 동물이 앉아 있고,
북쪽에는 거북을 짚은 동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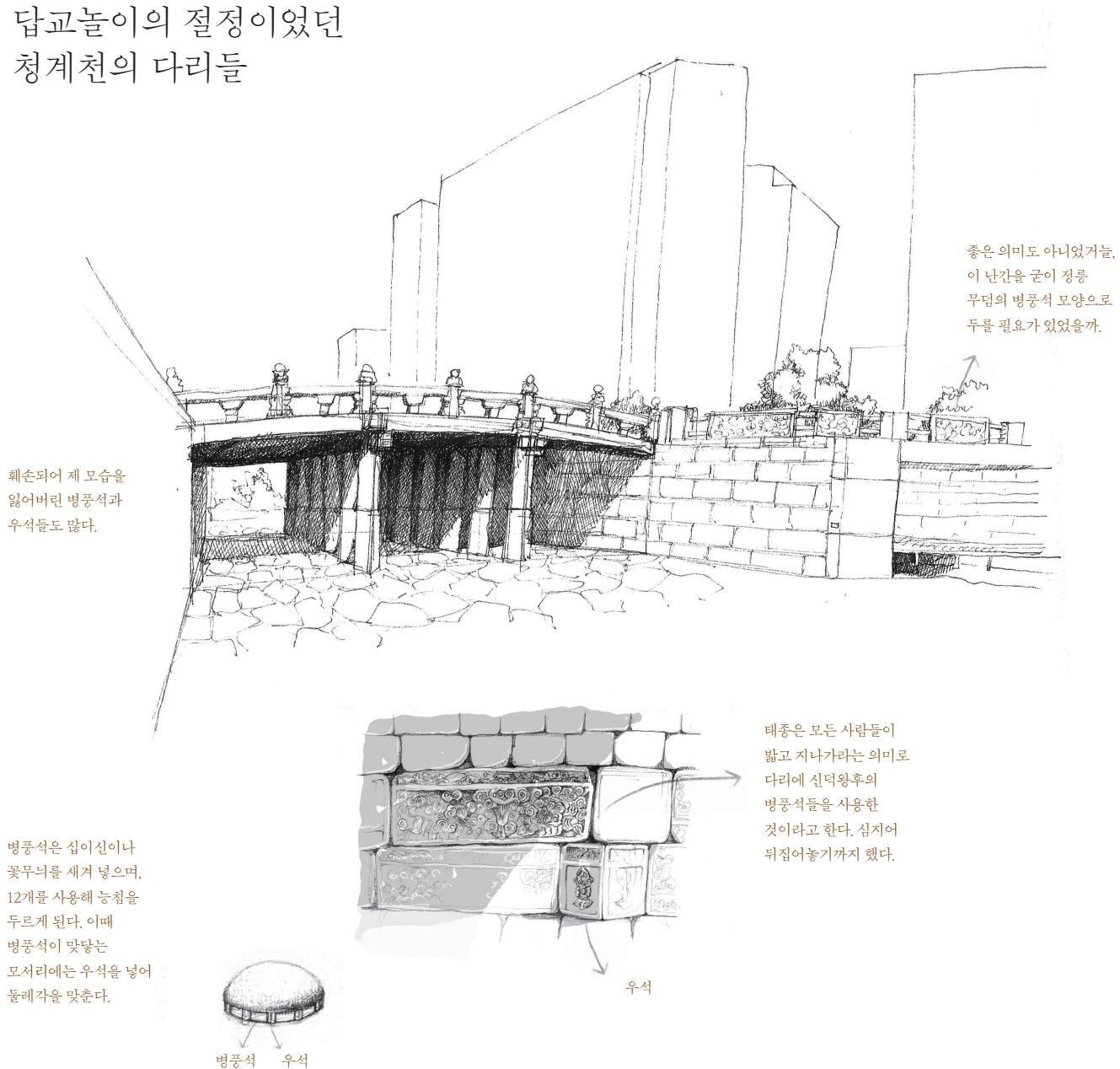
창덕궁의 금천교를 건너
법전으로 향하는 관문인
진선문이 보인다.
이 다리는 궁궐들의 금천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넓은
12.5m의 폭으로 삼도를 갖고
있다. 특히 가운데의 어도는
유별나게 넓어 보인다.



금천은 외부로부터 법전 공간을
분리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다리
주변에는 액운을 물리친다는 의미로
여러 서수들이 배치되어 있다.

살곶이 다리가 서민을 위한 다리였다면, 궁궐 안에 있는 다리들은 극소수만을 위한 격식을 갖춘 다리였다. 특히 궁궐의 정문을 들어가 가장 처음 만나는 다리는 물길을 건너는 통행뿐만 아니라 상징성도 큰 궁궐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보통 궁궐에는 법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물길을 만드는데 이는 풍수사상에 의한 명당수로 배신임수를 갖추게 하려는 이유다. 이 물길을 금천(禁川)이라 하였고, 이 물길에 놓이는 다리는 금천교(禁川橋)가 된다. 경복궁의 영체교나 창경궁의 옥천교와 마찬가지로 창덕궁의 금천(禁川)에는 금천교(錦川橋)가 놓여 있었으나 한자가 다른 것에 혼동되지 말자. 창덕궁의 금천교는 창덕궁이 중건되고 6년 뒤인 1411년(태종11년)에 만들어진 이후 궁궐의 다른 목조건축물들이 화재로 소실돼 사라지면서 자연스레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되었다. 지금은 다리 밑으로 물도 흐르지 않아 금천의 의미도, 운치도 사라졌다. 그래서인지 다리를 가득 채운 봄날 오후의 서수(다리의 축대 좌우에 설치된 돌짐승 조각)들은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구경하며 나른한 오후를 보내는 것만 같다.

답교놀이의 절정이었던 청계천의 다리들



한양 도성의 한가운데를 흐르던 청계천에는 백성들과 밀접하게 교감을 나누었을 다리들이 있었다. 야간통행 금지가 실시되었던 조선시대에는 매년 정월대보름에 이루어진 다리밟기 놀이가 큰 축제 중 하나였다. 일명 답교(踏橋)놀이라 하여, 다리(橋)를 밟으면 1년 내내 다리(脚)가 건강하다는 풍습 때문이었다. 주로 광통교와 수표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다른 다리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이 두 다리만은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며 역사적 의미를 더한다.

광통교는 원래 청계천 위 광교 사거리에 놓여 있던 다리였다. 이곳은 종로에서 숭례문을 연결하던 가장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는데 청계천이 복개되며 사라졌고, 다시 복원되며 수많은 통행 때문에 현 위치에서 150여 미터 떨어진 서쪽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가장 폭이 넓었던 다리로 그 중요성도 크다. 태종 때 청계천의 잣은 홍수로 토교나 목교가 계속해서 유실되자 청계천에 등장한 최초의 석교로 재탄생했다. 그때 태조의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씨의 묘소에 있던 석재들을 뜯어다가 다리의 부재로 사용한 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왕자의 난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역사로 미루어보아 권력 투쟁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씹쓸한 느낌이 감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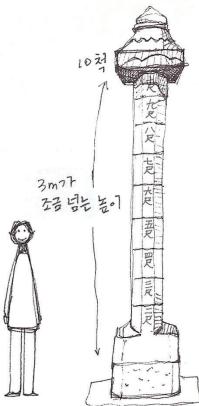


숲을 배경으로 한 모습이 다리 중에서도 가장 고풍스러워 보인다.

궁궐이 아닌 민간인이 사용하는 다리에 제대로 격식을 갖춘 난간이 설치된, 보기 드문 모습의 다리다.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마름모형으로 놓은 교각의 배열이 아름답다.



수표석(보물 제838호)
수표교의 이름을 있게 한 수표는 청량리의 세종대왕 기념관에 있다.
이산가족인 셈이다.

다른 하나인 수표교는 그 모습이 오롯이 남아 유지된 청계천의 유일한 다리다. 수위를 재던 수표가 다리 근처에서 있어 수표교(水標橋)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불행히도 청계천이 복원될 때 원위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장충단 공원의 실개천 위에 놓여 제 기능은 잃어버린 상태다. 그나마 그 위를 걸어볼 수 있다는 사실은 무척 다행스럽다. 한낮 따사로운 햇살을 잔뜩 머금고 있는 수표교의 난간을 쓰다듬어본다. 아, 돌에도 부드러움이 있구나. 한양의 통금이 잠시 해제되던 설레는 명절 밤,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다리를 거닐었을 옛 사람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만 같다. 문득 수표교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듦다. 나무도 어우러지고 자동차 소음도 덜한 이곳이 어쩌면 원래의 자리보다 어울린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다리를 떠났다.

글·그림 이장희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뉴욕에서 일러스트를 공부했다. 각종 매체에 일러스트와 사진, 칼럼 등을 싣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 〈풍경과 함께 한 스케치 여행-뉴욕〉, 〈아메리카, 천 개의 자유를 만나다〉,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가 있다. 홈페이지 www.tthat.com

삼청공원 푸른 그늘

지금 우리가 사는 서울과 그리워하는 서울은 같은 이름이되, 다른 장소일지도 모른다. 지금이 아닌 그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파편적으로 새겨진 추억 속 어떤 시간대 어느 장소일 것이니. 필자가 그리워하는, 지금은 사라진 서울의 한 장면은 삼청공원에서 완성된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란 시가 있듯이, 서울에 살면서도 종종 서울을 그리워할 때가 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서울과 그리워하는 서울은 같은 이름이되, 다른 장소일지도 모른다. 내가 그리워하는 서울은 지금이 아닌 그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파편적으로 새겨진 추억 속 어떤 시간대 어느 장소일 것이니.

내가 그리워하는 지금이 아닌 그때의 서울 속에는 낮은 건물들이 정답게 줄을 이은 10여 년 전 광화문사거리도 있고, 버스를 기다리던 경동교회 앞도 있으며, 봄꽃이 환한 남산길 한 모퉁이, 늦은 밤 지하 카페를 나와 걸어 내려오던 명동성당 뒷길, 학교수업을 빼먹고 무작정 올라탄 방배동에서 우이동까지 가던 1번 시내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바라보던 길고 긴 서울의 풍경도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볼 수 있는 곳들이지만, 그리운 서울은 이미 그곳에 없다.

살다 보면 문득 한순간 콧등을 흑하고 스쳐가는 어떤 뜨거운 열기, 혹은 바람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추억의 한 단면이 마치 거대한 파노라마의 장면이나 된 듯 부풀어 나를 끔찍 못하게 제압하는 순간. 예고도 없고 일정한 규칙도 없다. 그야말로 문득.

갑자기 무더워진 날씨 때문에 어제는 본의 아니



게 올해 처음으로 모기를 잡게 되었다. 문제는 모기였다. 너무나도 쉽게 내 손에 잡힌 그 모기 한 마리가 쭈그리고 앓은 나를 머릿속 추억의 장면으로 이끌어갔다. 그때, 작정 없이 걸었던, 인사동을 거쳐 좁은 기무사 돌벽길을 따라 다다른 곳은 소격동 선재미술관이었다. 미술관 뒤편 정자에 앉아 휴식을 취할 무렵 남

자는 가방에서 백석의 시집을 꺼내 ‘흰 바람벽이 있어’를 읽어주었다. 초여름이었고, 바람은 투명한 공기를 실어 날리는 기류의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서 있는 나무들의 초록색을 그대로 염색한 어떤 뎅이들을 실어 낸다는, 거대하게 부풀어오른 초록 풍선처럼 여겨졌다. 더운 날이었지만 내가 조심한 것은 아마 위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아니라 더위보다 더 뜨거워진 내 마음의 열기였다. 남자가 시를 읽는 동안 세상은 거대한 진초록의 진공 상태인 양 정지한 듯했고, 재빠르게 리듬을 터는 내 심장의 맥박과 반비례하여 나는 거의 숨을 쉬지 못했다.

선재미술관을 나와서 삼청동 길을 따라 걷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삼청공원으로 향했다. 재즈스토리를 끝으로 더 이상 올라가는 사람도 없었고, 공원엔 몇몇 맨손체조를 하는 동네 주민들만 있어 한적하기 그지없었다. 심지어 산비둘기 우는 소리도 들렸던 것 같다.

테이트 아닌 레이트의 어색함으로 딱히 더는 할

일도 없어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불청객들이 눈치도 없이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모기와 날파리(하루살이)였다. 초여름 산을 긴 공원이었으니 모기와 날파리의 집결지였던 셈이다. 몇 번 다리를 톡톡 치며 모기를 쫓아낸 것 같았는데, 세상에! 어느 순간 내 치마 끝자락에 모기의 혈흔이 떡 하니 묻어 있었던 것이다. 그 모든 낭만을 깨는, 미색 치마에 묻은 붉은 모기 피라니!

그날 삼청공원 우물가에서 남자가 무릎을 끊고 앉아 내 치마에 묻은 모기의 혈흔을 닦아주던 그 초여름 저녁. 주위는 너무나 조용했고, 남자의 길고 긴 손가락 하나하나가 조심스레 내 치마를 건드리는 사각사각 소리는 마치 지구가 좌우로 움직이는 것마냥 큰 진동으로 내 마음을 흔들어댔다. 어색하게 멈춰선 내 앞에 한 남자가 무릎을 끊고 앉아 치맛자락을 조심스레 닦아내는 이 비현실적인 모습을, 아마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삼청동에 가지 않은 지 한참 된 것 같다. 대학 시절부터 남들이 강남에서, 대학로에서, 신촌에서 놀 때 나는 삼청동 언저리인 가회동, 소격동, 인사동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손님 없는 작은 갤러리들을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순례하는 맛이 특별했고, 골목골목 숨어 있는 맛집들을 발견했을 때는 마치 세상이 모르는 나만의 아지트를 발견한 양 뿌듯했다. 서울 한가운데 이렇게 소박한 골목길을 가진 아름다운 동네가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좋았고, 특히 평일 한낮 적막함이 햇살을 뚫고 찢 하니 내려칠 때면 마치 옛날의 한순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간 듯한 그 멱먹함을 나는 무척 사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매력으로 인해 이 지역은 어느 때인가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깃발을 든 한 무리의 일본인 관광객과 삼삼오오 사진기를 메고 ‘출사’ 나온 도시여행자들이 휩쓸고 가면서 동네는 나날이 소란해졌다.

삼청공원 그 남자가 내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져갔듯 삼청동을 찾는 나의 발걸음도 뜸해서 이제는 언제 마지막으로 방문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삼청동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그 멱먹한 고즈넉함을 품은 동네가 아니다. 대신 오래된 서울을 대표하는 다국적 상업지역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특별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지금의 이 동네와 이 분위기를 훗날 그리운 서울로 기억할 테고, 또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삼청공원에 앉아 열심히 모기와 날파리를 쫓으며 그들만의 특별한 진동을 만들어내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글 한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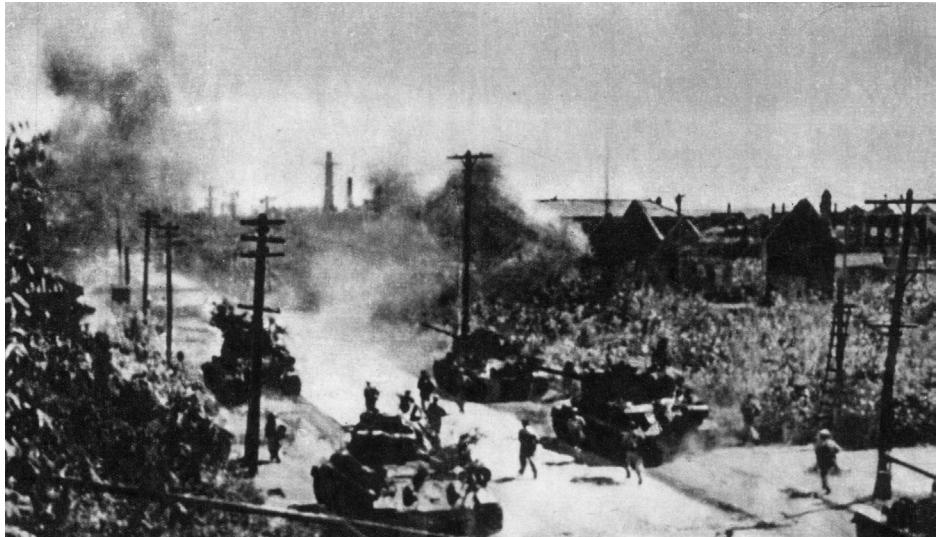
대기업 홍보실, 공연장 홍보담당자를 거쳐 현재 서울문화재단에 근무하고 있다. 호기심과 그리움을 삶의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다. 공동저서로 〈한국의 박물관〉 등이 있다.

그림 김남희

콜라주를 이용한 독특하고 유쾌한 작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6·25, 그 긴박했던 시절의 작가들

그 긴박했던 6.25 그때 그 시절, 우리 작가들은 어땠었나. 문인들에게 전쟁의 상흔과 배신의 트라우마 등 복잡 다단한 상처를 남긴 바로 그 시절로 돌아가다.



6·25 당시 서울시에 진입한
인민군 부대의 모습. 이들은
남한보다 유력한 군사력으로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1950년 6월 새벽 4시, ‘폭풍’이라는 암호를 신호로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기습공격을 감행했다. 전투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우리 국군은 밀리고 또 밀릴 수밖에 없었다. 북측은 2년여에 걸친 사전 준비가 있었고 북한군은 잘 훈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병력도 월등히 많았다. 그들은 정부를 만들고부터 중공군에서 내전을 승리로 겪은 조선족과 2차 대전에서 뛰어난 전투 능력을 배운 소련군들의 참여와 조언을 받고 있었다. 남쪽 군대는 미군의 도움을 받았다고는 하나 혼란 속에서 전쟁 초기부터 갈피를 못 잡은 오합지졸이었다. 북측은 소련제 비행기와 전차를 갖추고 있었지만 남측은 2차 대전에서 퇴역한 대포뿐이었다. 그나마 성능이 약해 아무리 쏘아도 소련제 전차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원을 거쳐 대전으로 옮겨 간 때는 전쟁이 일어난 이틀 후인 6월 27일 오후였다. 한강 인도교와 철도교가 동시에 폭파된 때는 28일 오전 2시 15분이었고 인민군이

서울 시내에 들어온 것은 28일 새벽이었다. 북한이 38선에서 전쟁을 일으킨 지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어버린 것이었다. 당시 서울 인구는 150만을 약간 넘었고 그중 10분의 1, 즉 15만 명은 한강 남쪽인 영등포구에 살고 있었다. 강북에 살고 있던 140만 명 중에서 한강을 건너 피난을 간 사람은 약 40만 명이었다고 한다. 그중 80%인 32만 명은 북한군의 실태를 익히 알고 있던 광복 후 월남자들이었고 나머지 20%인 8만 명은 남침 정보를 빨리 알 수 있었던 고급 공무원, 정치인, 군인, 경찰, 자본가들이었다. 100만 명의 시민 대다수는 ‘공산군이라 하더라도 설마 시민의 생존까지 위협하려고…’라는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예술가들과 작가들은 더 했다. 어중간한 심리 상태로 6·25를 맞이한 그들은 그 후 한강을 건넌 ‘도강파’와 어쩔 수 없이 남겨져 부역을 하거나 숨어 있었던 ‘잔류파’로 구분되어 전쟁과 배신의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다.

승리일보에서 취재 중인 시인 구상.
왼쪽에서 두 번째.



잔류파와 도강파로 나뉜 서울 문인들

시인 구상은 누구보다 먼저 적지 서울에 들어왔다. 한국 작가 중 6·25 전쟁의 정면에서 살아온 작가로는 구상과 〈불꽃〉의 작가이자 조선일보 주필이었던 선우희를 꼽을 수 있다. 한 사람은 종교적 인간애, 한 사람은 민족적 인간애를 전쟁을 통해서 실현했기 때문이다.

9월 28일의 서울 수복 일주일 전 구상은 국방부 정훈국 서울지구 보도대장으로 정훈장교와 사병을 대동하고 인천 앞바다에 왔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을 그는 바다 위에서 보았다. 개항 아래 인천 전체가 화염과 연기에 휩싸인 거대한 초토화 할포사격 현장이었다. 구상은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우선 포격에 살아남은 단 한 군데의 인쇄소를 찾을 수 있었다. 거기에서 국방부가 뿐려오던 대적진 전단 ‘승리’를 ‘승리일보’로 개칭하여 창간했다. 유일한 임시 전선 신문이었다. 종군기자들이나 해외 통신 특파원들도 최전방의 승리일보를 전재해 전황을 보도할 정도로 신뢰도가 높았

다. 그는 그 신문을 아직 수복되지 않은 서울에 뿐렸다. 미군 수송기를 통해 적의 대공포화를 무릅쓰고 뿐려진 신문은 공포 속에 남아 있던 서울의 잔류 시민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소식이었다.

소설가 최정희는 시인인 남편, 파인 김동환(최초의 장편서사시 ‘국경의 밤’ 작가)을 순진하게 정치보위부에 자수시키고 혼자가 되어 북으로부터 온 작가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정치보위부와 문학가동맹은 종로 2가 한청빌딩에 함께 있었다). 박완서는 집안 사정 때문에 잔류파가 되어 할 수 없이 서대문구 협저동의 동인민위원회 일을 거들고 있었고, 소설가 김동리는 소설가 손소희의 집에 숨어 있었다(후일 손소희는 그의 부인이 된다). 서울시민들과 그들은 그야말로 “울려야 울 수 없는 인민공화국 백성이 되어” 산 것이지만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서울시민을 두고 자기들만 도망친 이승만 정부의 배신이 더 가슴 아팠고 그 후 잔류파를 용공시하며 도끼눈을 뜯



1950년 7월 2일 서울시민회관
앞에서 인민재판을 받고
죽음의 목전까지 갔던 소설가
김팔봉(사진 왼쪽). 옆의
전재홍은 사형선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처형됐다.

동료 도강파의 위세가 더욱 마뜩찮았다. 공포의 절정은 한 직장을 다니거나 동료였던 사람들이 얼굴을 바꾸고 나타나 고발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최정희는 남편이 자수한 후 어디론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자 그동안 한 식구 같이 지냈던 북한의 실력자 임화와 그의 부인 지하련에게 사정을 얘기했으나 그들도 외면하고 말았다. 일제강점기에 가난했지만 함께 문학과 우정을 나눴던 시인 정지용, 안희남, 김남천, 박팔양 등도 검열관의 위치에서 최정희를 바라보았다.

소설가 김팔봉은 더 험한 시련을 겪었다. 그의 인쇄소 직원이 검찰과 판사로 등장한 인민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것이다. 당시 인민재판소 자리는 동승동 서울 문리대 교정(현재 대학로), 종로 부민관(파고다공원 건너), 서대문 송월동, 명동 국립극장 앞, 돈화문 앞, 명륜동 입구나 성균관 앞 등이었다.

서울에 온 구상은 식구들보다 문교부 예술과장을 하다 사라진 시인 설창수를 먼저 찾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가 살던 상명여고 사택이 폭격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도 이유였지만 그와 설창수의 관계가 특별했기 때문이었

다. 구상이 해방 후 그의 고향 원산에서 낸 해방 기념 시집 <옹향>이 필화가 되고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월남했을 때 의형제가 되어주고, 그가 폐결핵과 가난에 허덕일 때 누구보다 먼저 보살펴주었던 설창수였다. 그는 승리일보에 구인광고를 냈다. 설창수는 공주 마곡사에 은신하고 있다가 서울로 와서 구상과 만나 열싸안고 흐느꼈다. 그들은 서울시청 앞 고려문화사에서 정신이상이 완치되지 않은 채 대구에서 부산으로 내려가 있던 서정주를 만나고 수필가 김소운을 만났다. 그리고 평양까지 종군했던 조지훈, 손소희가 숨겨준 방공호에서 급식만으로 살아온 김동리와 평론가 조연현, 시인 박목월을 문예빌딩의 ‘문예살롱’에서 만나 살아 있음을 기뻐했다.

실낱같은 인정과 의리로 뭉친 문인들

전쟁은 서울시민과 작가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도강파나 잔류파나 그 상처는 깊고 깊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겨눴던 중오의 시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친구와 동료를 배신해야 했던 나날들, 죽음과 배고픔과 추위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공포였다. 그 공포가 얼마나 두렵고 비인간적이었던

전쟁이 끝난 후 1960년대 서울 거리. 사진 속 모습은 평온해 보이지만 수많은 풍파와 시련, 고통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다.



지 박완서는 ‘당국자’의 조사 앞에서는 “밤마다 벌레가 됐던 시간”이었다고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만 해도 사람 사이의 인정이 남아 있고 도리를 쟁기던 시절이었다. 최경희와 김동환의 식구를 위해 전혀 모르던 마포 강가의 한 식구는 자기 집을 내어주었고, 전향하고도 억울하게 용공분자로 낙인찍힌 홍사준과 김동리는 한때 자기를 숨겨준 은인을 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 험한 전쟁통에도 최소한 먹을 것 때문에 아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이를 증명한다. 그 덕에 이중섭, 서정주, 김관식, 순창섭, 오상원, 장용학, 김수영 등이 살아남았다.

무엇보다 구상은 수복 직후 잔류작가의 부역 행위를 단죄하는 사상 검증에 가담하지 않았다. 인간으로서, 시인으로서 작가가 작가를 처단할 수 없다는 문학 외적 윤리 감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의 성격이 단적으로 나타난 일은 바로 종군작가단을 만든 것이었다. 종군작가단에는 친일파 작가, 남로당 계열과 보도연맹 계열의 작가는 물론 우익작가까지 참가했다. 그는 공산당의 배신자로 인민재판까지 받았던 김팔봉과 좌경작가 정비석, 박영준 등을 포

함시켰다. 좌익작가들과 잔류파에게는 이 참여가 면죄부의 성격도 있었으리라. 무엇보다 친구들의 실낱같이 남아 있는 의리와 인정에 더 고마워하고 기꺼워했다.

휴전 70주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6·25는 서울 곳곳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혼적을 남겨놓았지만 우리는 상처를 외면하려고 만 한다. 서울대병원은 남측과 북측이 번갈아 썼던 군 야전병원이었고, 창경궁은 북한군 전선사령부였다. 납북자를 선별하던 시립도서관 자리, 유명 인사들을 모아서 끌고 갔던 수 송국민학교와 일신국민학교, 각 동리마다 있던 동인민위원회, 보위부, 인민재판소 등을 우리는 완전히 잊어버렸다. 망각은 이런 점에서 전쟁보다 무섭다. 아니 어쩌면 공포와 죽음 속에서도 신뢰와 인간다움에 대한 경건함이 피어났던 그 당시의 심성이 사라져가는 것이다. 더 섭섭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글 김광만

시인으로 출발해 다큐멘터리 작가를 거쳐 현재는 독립프로덕션 PD로 활동 중이다. 누구도 관심 두지 않은 역사, 쉬 드러나지 않은 진실, 잊히고 숨겨진 것의 정체를 끝끝내 밝히는 일을 즐긴다.

사진 중앙포토



계몽이 아니라 모범이 필요해

서울시가 시작한 ‘책 읽기 서울’ 캠페인에 부쳐. 진짜 책 읽는 서울을 만들고 싶다면 ‘하자’는 강요가 아니라 수평적인 솔선수범이 필요한 법이다.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서울시 행사의 사회를 본 적이 있다.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는데, ‘협찬의 달인’이었던 시민운동가답게 사회를 본 것에 대한 수고비 같은 것은 없었다. 일종의 재능기부였다. 사회자에게 혜택이 있었다면 도시락 준비를 면해주는 것 정도. 정식 인터뷰 신청을 해도 한 시간 넘게는 만나지 못하는, 바쁜 시장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어 한 가지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서울시가 ‘책 읽는 서울’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이런 계몽적인 구호 대신 ‘책을 나누는 서울’ 캠페인을 하자고 제안했다. 말이 아니라 행동! 박 시장에게 책 한 권을 나눴다. 1980년대 대표적인 지성지인 <마당> 한 권을 주었다.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특집으로 다룬 호였다. 얼마 전 현책방에서 구입했는데, 마을

만들기운동을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려는 박 시장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고른 책이었다.

잔소리보다 행동을

책을 읽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책을 읽자는 캠페인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두말할 여지가 없다. 여기에 시비를 걸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한 번 시비를 걸어보련다. 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안 읽는 사람을 계몽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책을 읽자’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은 책을 안 읽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내려다보는 것이다. 뭔가 신경질이 있다. 조금 비약하자면 현재를 한탄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을 깔보는 것이다.

'책을 읽자'를 '책을 나누자'라고 바꿔서 말하면 어떨까? '책을 나누자'는 것은 '책을 나눠서 읽자'는 것이고 '책으로 소통하자'는 것이다. 상대방을 책을 읽는 사람으로 전제하고, 그러니 이 책도 읽어보라고 권하는 말이다. '책을 읽자'고 말하는 것은 수직적이고 '책을 나누자'고 말하는 것은 수평적이다. 시민은 잔소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책을 읽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시민이 어디 있겠나? '책을 읽자'는 21세기의 표어가 되기에는 진부하다. '책을 읽자'는 구호를 봤을 때보다 책을 받았을 때 책을 읽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책 '읽는' 대신 '나누는' 운동이 돼야 하는 이유

다시 말이 아니라 행동! '책을 나누자'는 말의 알리바이를 위해 주변에 책을 나누고 있다. 일단 내가 가진 책 중에서 가장 비싼 책을 남에게 주었다. 고서 수집가인 선배로부터 선물 받았던 '조지 워싱턴 전기 초판본', 200년도 넘은 이 책을 그리 친하지도 않은 정치인에게 선물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책의 가치를 알아볼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그 책을 주고 나니 다른 책을 나누는 일이 수월해졌다.

남에게 나눌 책을 고르는 것은 아름다운 스트레스다. '누구에게 어떤 책을 선물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일단 상대방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곰곰 생각해보아야 적당한 책을 권할 수 있다. 그리고 책을 나누는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어떤 책을 준다는 것은 나는 어떤 책을 읽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책 읽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선물한다.

책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면서 또한 필요한 일이다. 이것은 책 나누기를 해봐서 안다. SNS를 통해 책을 모아서 책이 꼭 필요한 곳에 나누는 '기적의 책꽃이' 프로젝트로 11만여 권의 책을 모아 전국 곳곳에 전달했다(4,000권 정도는 해외에도 전달했다). 책을 나누면서 '책의 재분배'가 절실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지방 여기저기서 책 기증을 절절하게 요구해왔다. 책을 전달할 때 반응도 달랐다. 지방에서는 "이런 귀한 책을 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라면 서울에서는 "아, 책 기증 오셨군요. 저쪽에 놓고 가시면 됩니다"라는 반응이었다. 지방은 아직까지 책이 너무나 귀했다. 동네 서점들도 버텨내지 못하고 쓰러져서 책을 구할 방도 자체가 없다. 대한민국의 맘형 격인 서울시가 책 나누기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책의 진짜 주인을 찾아주는 나누기 운동

책 나누기를 해보니 책의 주인은 따로 있었다. 천덕꾸러기가 스타가 되기도 한다. 도서대여점을 하던 분이 폐업을 하면서 1만여 권의 만화, 무협지, 판타지소설을 기증했다. 그런데 책을 골라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방치되고 있었다. 그려던 어느 날 지방의 정신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다. 이런 책들을 환자들이 무척 좋아한다며 기증해달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잘 골라가지 않던 교재는 군인들이 선호했다. 병영도서관에서 군인들이 오면 전공서적을 비롯해 어학 교재, 자격증 교재 등을 훑어갔다. 세로쓰기로 된 책이나 한글맞춤법 개정 전의 책은 광주의 노인도서관에서 "우리는 그런 책도 문제없다"며 가져갔다. 신기했다. 여기저기서 '내가 그 책의 주인'이라며 책을 골라갔다.

그런 책들 중에 아직 제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책들이 있다. 바로 잡지다. 잡지는 웬만한 곳에서는 골라가지 않는다. 이런 잡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 어렵게 답을 얻었다. 바로 '다문화 교류도서관'을 만드는 것이다. 해외 한류팬에게는 한국 잡지가 인기가 좋다. 그들에게 한국 잡지를 가져가게 하고 그들의 모국어로 쓰인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 책들을 다문화도서관에 기증하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엄마의(혹은 아빠의) 나라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랄 수 있다. 서울이 '아시아의 맘형'이 될 수 있는 일이다.

서울시의 행동과 관련해 빙가운 소식이 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간 내 시설인 '열린책장'을 활용해서 강정평화책마을에 보낼 책을 모아준다는 것이다. 문인 400여 명이 제주 강정 마을의 치유 프로젝트로 이곳을 평화의 책마을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돋기 위해 100일 동안 10만 권의 책을 모으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를 위해 베이스캠프를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강정이라는 이름이 가진 이념적 정파성 때문이다. 책을 간직하는 일이 보수가 아니듯 책을 나누는 일이 진보가 아닐 것인데, '강정 마을에 책을 전달한다'는 말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 프로젝트가 멋지게 성공해 책 나누는 일의 깊은 감동을 체험하길, 그래서 서울시가 계몽이 아니라 타의 모범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글 고재열



시사IN 기자. 문화부 기자를 주로 했는데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더 문화부 기자답다는 얘기를 듣는다. 지금은 정치팀장으로 있다. 텁날 때 서울을 거닐며 서울의 어제를 더듬는다.

사진 중앙포토

#2 기타리스트 박주원



Park Juwon

한국일보 장병욱이 만난 두 번째 뮤지션은 신들린 기타 연주로 우리에게 충격을 안긴 기타리스트 박주원이다. 토종 한국인으로 본 토의 것보다 더 능란한 플라멩코 기타 연주를 보여주는 그는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는 행복한 공존의 묘를 보여준다.

파코 데 루치아, 알 디 메올라, 존 맥클러풀린. 모두 무시무시한 속주의 달인들이다. 1980년대 초반 비좁은 음반 가게에서 이 트리오의 'Passion, Grace And Fire'를 듣고 귀를 의심했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빨리 쳐도 되나?' 장르로 따지자면 플라멩코, 퓨전, 재즈로 각각 분류되겠지만 그들은 나란히 앉아 서커스를 펼쳤다. 테크닉과 예술성의 행복한 공존이란 이렇게 실재한다며 훈시라도 하는 듯했다. 요컨대 거기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 요원해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바로 곁, 서른을 갓 넘긴 기타리스트 박주원(33)이 있다.

범박하게 라틴 재즈로 범주화될 그의 작품은 잊고 있던 정서를 새삼 환기시킨다. 반도네온의 선율이 제격인 라틴 혹은 탱고의 우수 어린 열정 같은 것들. 댄스 그룹이나 아이돌 그룹들이 만들어내는 음악 상품의 대국에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디트는 일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국화와 칼>을 써 명저의 반열에 올렸다. 비슷한 경우를 박주원에게서 본다.

2009년 첫 앨범 <집시의 시간>, 2011년 2집 앨범 <슬픔의 피에스타>를 발표했다. 탱고와 재즈를 기치로 내건 프로젝트 그룹 '라 벤타니'('창문'이라 뜻)에서는 세션맨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의 음악들은 기타 버전 <국화와 칼>이라고 치자. 그렇게 해두지 않고서는 스페인 땅 한 번 밟아보지 못한 한국의 청년이 스페인 왕립음악원을 나온 기타리스트보다 더 능란하게 플라멩코 기타를 연주하는 이 현상을 이해할 길이 없으니까.

젊을 때 헤비한 록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과 대사를 논하지 마라? 다소 치기 어린 말 같지만 보통 사람들의 성장 과정을 볼 때 역족은 아니다. 기타리스트 박주원도 그러했다. 그 역시 록에 나름 심취했던 청년기를 관통했다.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 돌올(突兀)한 인물이 됐다. 고고 시절은 록에 심취했다. 그러나 로큰롤은 아닌, 하드(Hard) 한 쪽. 레드 제플린 아니면 딥 퍼플이라니. 'Stairway To Heaven'의 유명한 기타 솔로 부분을 혼자서 마스터했다고 한다. 그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지만, 지미 페이지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고. 그에게 록 기타의 정점은 잉베이 맘스틴이다.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요즘도 록 기타를 무대에 들고 간다니 로커로 변한 그의 모습과 만날지도 모를 일이다.

그의 음악적 정수는 어디 있을까? 그에게는 두 장의 개인 앨범이 있다. 그의 현재인 동시에 미래의 일부다. 거기서 확인되는 그의 연주는 피상적으로는 저돌적(Dazzling)이다. 그러나 좀 더 귀 기울이면 접하기 힘든 라틴 음악의 정수인 동시에 즉흥이 개성적 텍스트를 살찌우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정교화시키면 이런 식이다. "1집은 나를 소개하려고 많은 것을 담으려 했던 종합 선율 세트 같은 거죠." 반면 작곡, 편곡, 프로듀싱한 2집은 장르적 정체성이 뚜렷하다. 집시 음악으로 목표를 설정해 그 같은 구도 안에 볼레로, 삼바, 월츠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담은 그 앨범을 두고 음악적 자의식의 발현이라 한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타이틀곡 '슬픔의 피에스타'는 강렬한 룸바 리듬 위에 속주 기타 리프가 더해져 극적이기까지 하다.

기타로 다차원의 세계를 펼치는 그에게서 이 시대 최고 반열의 재즈 기타리스트 팻 메스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각별한 맛이 있다. "관심이 워낙 방대한 사람이긴 하다. 그렇지만 결국은 재즈를 중심으로, 자기 능력을 시험 중인 인물로 본다." 혹 자신을 빛댄 말은 아닐까? "PMG(팻 메시니 그룹)의 음악을 너무 많이 들어 그들의 프레이즈가 제 기타에서 부지불식간에 나온다는 게 흄이라면 흄이죠." 청출어람의 옥망인가.

2011년 제8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음반 부문상을 탔낸 밴드 '라 벤타니'와는 '미학적 조화란 어떤 것인가?'를 입증해주는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신의 음악적 성과를 천명하는 데 중점을 둔 <집시의 시간>에서 못 다한 양상들의 가능성을 가능해본 마당이었다. 리더의 주문은 곧 미학적 문제로 여기고 새로운 조화를 찾으려 애썼다. 그가 내디뎌 행보는 그래서 전략적이다.

그는 모든 편곡 작업을 직접 한다. 음악적 '자의식'은 당연한 산물이다. 예를 들어 "집시 음악은 곧 박주원 스타일의 모든 것일까?"라고 물었을 때 조금은 뜻밖의 답을 들려준다. "나의 일부일 뿐이다. 국악, 특히 거기 내재된 다양한 리듬은 꼭 공부한다. 장구를 조금 치는데, 기회가 되면 국악과의 퓨전에 도전할 생각이다." 분명한 것은 그의 큰 틀은 집시 음악이라는 사실이다. 집시 음악이란 세계를 향해 열린 창인 것이다.

최근 대중 앞에 노출된 그의 모습은 조금 뜻밖이다. 인터넷에 그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동영상 하나. "재미 삼아 하던 '아버지 노래'를 페이스북에 올려보았는데 의외로 높은 호응이 오더군요." 어머니한테 진 마음의 빛을 조금은 던 느낌이라고. 아들이 아홉 살 때 등굣길에서 기타 학원을 본 어머니는 취미로 배워보라며 데려다줬다. 이후 아구아도, 카르카시 등 주요 교본을 마스터해 나가는 것으로 아들은 나름 보은했다. 박주원 버전 '아버지 노래'의 전사(前史)다.

그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1집 작업을 하며 자연스레 생겨난 '박주원 밴드'다. 트럼펫·기타 유승철, 베이스 이신우, 타악 조재범. 원래 홍대 클럽에서 개성적 시도 정도로 잡았던 어쿠스틱 사운드 콘셉트가 이토록 주목받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남자 4명이 모였으니 강하고 인상적인 음악을 구축하게 됐다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 강렬한 주법의 박주원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내 음악의 가장 든든한 동지, 그들을 존경한다"고. 이런 사람을 리더로 둔 멤버들, 행복하지 않을까?

글·사진 장병욱 한국일보 선임기자



기부를 설파하는 재기발랄한 방법

African Angel

색다를 것 없는 흔한 기부 단체 중 하나로 물힐 수 있었던 '아프리칸 엔젤'을 회자되게 만든 것은 기부자의 참여를 호소하는, 아주 완곡하고 기발한 방법의 캠페인이다.

복권처럼 속속 긁기만 하면

기부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의구심이다. '나의 기부가 과연 그 수혜자에게 잘 전해질까?' '거액도 아닌 이 작은 돈으로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걸까?' 말로 백날 풀어놓는 기부의 혜택과 좋은 점은 우리의 마음에 그다지 와 닿지 못한다. 직접 지갑을 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사실, 팩트를 원한다. 2011년 독일의 아프리카 구호 단체인 '아프리칸 엔젤'은 긁는 복권의 형식을 차용한 기부 포스터로 팩트를 전하는 재기발랄하고 확실한 방법을 제시했다.

사각사각 속속… 어린아이, 어른 너나 할 것 없이 작은 동전으로 무언가를 긁는 데 여념이 없다. 보이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퍼즐 조각 같은 그림의 일부분뿐. 그런데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만연하다. 마치 복권에 당첨이라도 된 얼굴이다. 광고대행사 오길비액션 뉴셀도르프(OgilvyAction Duesseldorf)에서 2011년 제작한 독일의 아프리카 구호 단체 아프리칸 엔젤의 광고 포스터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아프리칸 엔젤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실을 만들어주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알릴 기발하고 좀 더 따뜻한 아이디어를 원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포스터다. 캠페인 소개 영상 속에서 사람들은 포스터를 멍하니 보고만 있다. 그러다 누군가 동전으로 포스터를 긁기 시작하자 포스터가 벗겨진다. 안에 숨은 그림은 어떤 것일까. 구경하던 사람들도 미완성된 포스터의 나머지가 궁금해 호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꺼내고 포스터를 긁는다. 궁금증에 동참한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드디어 기존 포스터 속 빈곤함이 가득한 아프리카 아이의 슬픈 눈망울이 사라지고 대신 화사한 배경의 아이가 나타난다. 당신이 방금 포스터를 긁은 그 동전이 모여 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간단한 메시지다. 즉석 복권을 긁듯 효과와 결과가 눈앞에 바로 나타나는 이 기분 좋은 포스터를 보고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에 동참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설치된 포스터를 긁어야만 참여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스마트폰으로 포스터를 내려 받아 게임하듯 긁을 수도 있다. 여기저기 스마트폰을 들어 포스터를 긁는 사람들, 진짜 포스터를 긁는 사람들이 영상 속에 교차된다. 대수롭지 않은 동전 한 니이, 즉석 복권을 긁는 사소한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는 결코 사뭇 드라마틱하다. 영상 말미에는 지금까지의 기부금액이 계속 집계된다. 벌써 교실 하나를 새로 지었고 사이트 접속률이 70% 이상 증가했다고 알린다.



나눔을 실천하는 움직임은 생각만큼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 사소한 행동의 가치를 거부감 없이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데서 이 캠페인의 기발함은 드러난다. 기부라는 행동을 좀 더 즐겁게 만들 것, 힘은 빼고 일상의 즐거운 행동 중 하나로 만들 것. 무엇이건 지속되려면 지나치게 무거워지면 곤란하다. 기부라고 다를 바 없다. 기부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움 자체를 덜고 일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그 지점을 이 캠페인은 포착한다.

재미는 더하고 무거움은 덜어낸 기부

기부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각종 캠페인을 보며 종종 생각했다. '기부'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움을 조금만 덜 어내도 세상은 더 따뜻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부를 호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리두기다. 어쨌건 먹고살 만한 우리와 수혜자의 처참한 환경 사이의 간극을 확인시켜주는 것. 다른 이를 위해 나의 지갑을 여는 것은 감정의 호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감정의 호소법이, 참 변하지가 않는다. 눈물을 흘리며 통감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부는 아니다. 분명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부의 손길은 점점 늘어갈 텐데, 언제까지고 이렇게 가슴을 치는 비일상적인 경험으로 기부를 행하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것은 기부와 우리 일상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 때 그 간극을 메우기에는 효과적이지만 결국 기부를 우리 생활 속 일부로 끌어오는 데는 실패한다.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상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눈물 콧물 쏟는 드라마틱한 경험 말고 다른 감정의 호소가 필요하다. 기부를 접하는 좀 더 세련되고 편안한 방법이 필요한 시대다. 왜 대부분의 기부 캠페인이 우리에게 수혜자의 비참한 상황을 목도하게 하고 슬픔과 자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선정적인 방법을 사용할까? 오직 슬픔만이 기부를 가능하게 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이 캠페인을 접했다.

기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복권의 형식을 도입한 캠페인 포스터는 재미와 가치 모두를 전한다. 단순히 굽어 보고자 하는 호기심과 재미, 우리가 흔히 복권을 굽을 때 기대하는 즐거운 결과와 상상들, 이 모든 것이 수혜자에게 혜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다. 내가 복권을 굽음으로써 누군가는 실제로 엄청난 결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선의의 깨달음, 그 선의라는 것이 엄청난 목적을 지닌 대단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또 다른 깨달음.

캠페인은 이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만 그 방식은 아주 즐겁다. 사소한 것의 가치를 직접 보여준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됐지만 그 방법은 자국적이지 않다. 리퀘스트 프로그램을 보다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부는 아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즐거울 수 있다. 그 즐거운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의 힘, 아프리칸 앤젤이 증명한 바로 그 유쾌함의 힘이다.

글 유나리

사진 애즈오브더월드(adsoftheworld.com), 아프리칸 앤젤(www.african-angel.de)



Wouldn't it be nice if you could see the good
a donation will do at the exact moment you give it?

Your Euro makes a difference!

6 월 Calendar

www.sfac.or.k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이용권 <제비잡는 비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교예술실현센터 <성왕현 개인전> (~6/12) 지원사업 전시 <관화의 유쾌한 변신, Cool Print> (~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관악창작공방 금속으로 만드는 나의 이름표> (~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청 <장애, 비장애인 통합 도자기 전시> (~6/7) 	<p>★ 서울댄스프로젝트 <게릴라 춤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마음살림장 (~6/9) 지원사업 전시 <아현동 221번지, 틈을 메우다> (~6/16) 지원사업 전시 <열린행성 프로젝트> (~6/19) 		
9	10	11	12	13	1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사업 연극 <데모크라시> (~6/9) 지원사업 연극 <사랑을 물다>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이용권 <김영임 소리 孝 대공연> 문화이용권 <브로드웨이 42번가>, <키자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사업 전시 <마음의 그림으로 힐링하다> (~6/18) 지원사업 연극 <슈퍼맨처럼~!> (~6/12) 		<p>★ 서울댄스프로젝트 <게릴라 춤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희문화창작촌 <트루베르 파티> 시민청 <금요예술교실> 문화이용권 <UMF> 성북예술창작센터 <예술로 토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교예술실현센터 <이미지 페노네는> (~6/27) 시민청 <비스락 콘서트> 구의취수장 오픈 스튜디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우리동네, 척척탐험대> 	
16	17	18	19	20	21	22
<p>★ 서울댄스프로젝트 <게릴라 춤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든파이브 <뮤지컬 어린이 캇츠> (~6/16) 지원사업 연극 <주머니 속 선인장> (~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통합 교과지도 연수과정 (~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이용권 <우리마을 바닥소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끼리댄스페스티벌 2013> (~6/30) 지원사업 전시 <전은희 개인전> (~6/24) 문화이용권 <뮤지컬 코메디 넘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리아오페라단 창단 22주년 기념 <오페라 G.Puccini 작곡 토크> (~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난새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6/22) <예술로 둘봄> (~6/21) 금천예술공장 2013년 기획전 (~6/21) 	<p>★ 서울댄스프로젝트 <게릴라 춤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관악명랑방석극장 봉강휘> 가든파이브 <샘퍼스티벌>
23	24	25	26	27	2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든파이브 <샘퍼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이용권 <초대장아 어디있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몰랭크 정류장> (~7/14) 시민청 <토크콘서트 아나운서 김범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든파이브 <구름빵> (~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문화재단 정책 대토론회 문화이용권 <컬투쇼> 시민청 <금요예술교실> 	<p>★ 서울댄스프로젝트 <게릴라 춤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든파이브 <하늘樂콘서트>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우리동네, 척척탐험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패션 디자인> (~6/2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캐나다 위크 대학로연극투어 – 문화소외계층대상 가든파이브 <하늘樂콘서트> 						

1 sat

서울댄스프로젝트 <게릴라 춤판>

춤단이 벌이는 시민참여형 춤판(회당 15~20분)이 여러분을 급습합니다. 프로젝트의 게릴라성 이벤트 성격에 맞게, 세부 스케줄은 추후 서울댄스프로젝트 공식 사이트(<http://dance.sfac.ibiznet.kr/main.asp>)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seouldanceproject)을 통해 공지됩니다. 이번 게릴라 춤판이 흥겨운 춤바람을 일으킬 장소는 어디인지, 많은 기대와 관심 가져주세요!



서울댄스프로젝트 _ 게릴라 춤판 일정

회차	공연일	시간	장소	내용	비고
6	6. 1(토)	미정	서울 거리	게릴라 퍼포먼스	1시간 공연
7	6. 7(금)	8시~9시	지하철	미러볼과 함께하는 지하철 댄스	
8	6. 8(토)	3시~6시	북촌마을	북촌 숨은 춤 찾기	
9	6. 14(금)	8시~9시	지하철	미러볼과 함께하는 지하철 댄스	
10	6. 16(일)	2시, 3시	광화문광장	서클댄스, 테마댄스	
11	6. 22(토)	5시~7시	한강대교 마포대교	워킹댄스	DJ부스 운영, 1시간 공연
12	6. 29(토)	8시	미정	야외 클럽댄스	

기간 : 6월 1일~29일까지, 매주 금·토

장소 : 지하철 외 시내 곳곳

문의 : 02-3290-7166

* 세부 스케줄은 추후 서울댄스프로젝트

공식사이트/페이스북을 통해 매주 수요일 공지

* 상기 일정은 수정/변경 가능합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아우름 프로그램

몸을 사용하고 땀을 흘릴 기회를 점차 잃어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즐거움을 알려주세요. 평소 몸을 잘 사용하지 않는 중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움직임을 활용하여 자아를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보는 무용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책 안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익힐 절호의 기회입니다.

일시 : 6월 8일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 홍은예술창작센터 무용연습실

문의 : 02-304-0234

무용과 사진의 만남

<Dancers in Seoul Art Space>

서울시창작공간 홍은예술창작센터는 시민청, 가든파이브

갤러리에 이어 홍은예술창작센터 갤러리H에서 <무용과 사진의 만남 'Dancers in Seoul Art Space'> 전시를 진행합니다. 신체에 대한 독특한 시각과 움직임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무용단체 '유빈댄스(Ubindance, 대표 : 이나현)'와 중국과 대만에서 주로 활동하며 일본을 비롯하여 홍콩, 독일 등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현지인의 삶의 모습과 문화를 담는 사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채유리(Chaiyu Lee)'는 지난 2013년 1월 홍은예술창작센터 입주예술가로 처음



만난 후 서울시창작공간 매력 포인트
발굴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 논의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창작공간 내 예술가들이 작업해왔던 작업실 외에도 전시실, 창고, 지하실 등 익숙한 풍경부터 무뚝뚝하고 거칠기만 한 숨겨진 공간까지 예기치 못한 생소한 모습으로 재해석된 풍경들이 무용수들의 생생한 신체언어와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무대로 변신합니다.

기간 : ~6월 16일까지

장소 : 홍은예술창작센터 갤러리H

문의 : 02-304-0235

금천예술공장 2013년 기획전

<버려지고 흩어진 것에 아쉬워하는-전시와 흔적들>

금천예술공장 3·4기 입주예술가들이 '도시' 그리고 '흔적'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선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공간에 대해 팀구를 지속해온 금천예술공장 입주예술가들의 재기발랄한 작품 세계를 기대 바랍니다.

기간 : ~6월 21일까지

장소 : 금천예술공장

문의 : 02-807-4135

금천예술공장 예술재능나누기, 아티스트 인 스쿨 <몸으로 말해요>

우리는 때로 모두 노동자라는 것을 잊습니다. 몸을 움직이건 그렇지 않건 말이죠. 금천예술공장은 우리가 쉽게 잊고 있는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그것도 '몸'이라는 주제로 말이지요. 우리 몸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다시 느껴보고, 그 몸의 움직임이 노동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깨달음을 줄 워크숍 프로그램 <몸으로 말해요>. 일상 속 색다른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 6월 1일~22일까지

장소 : 금천예술공장

문의 : 02-807-4122



상설체험프로그램 <패션 디자인>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서 오며 가며 상시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날만큼은 아이도 어머니도 패션디자이너가 됩니다. 아이들 고유의 독특한 상상력이 어우러져 개성 넘치는 나만의 옷을 만드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기간 : ~6월 29일까지

장소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층 싹

문의 : 02-871-7400

예술체험프로젝트 ‘씨’ <우리동네, 척척탐험대>

내가 사는 지역을 살살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살고 있는 동네에 친숙함을 느끼며 애착을 키울 수 있는 예술체험프로젝트 ‘씨’ <우리동네, 척척탐험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척척탐험대가 되어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가 위치한 관악구 일대를 돌며 동네 디자인도 제안하는 즐거운 탐험을 시작해볼까요?

기간 : 6월 1일~29일까지, 오후 1시~3시, 매주 토요일

장소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1층 밭수

문의 : 02-817-7400



신인 작가전

신진 작가에게는 자신의 작품과 이름을 세상에 알릴 소중한 기회를, 시민에게는 창의력 넘치는 예술 세계 관람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인 작가전이 진행 중입니다. 신진 예술가들이 참신함으로 표현해낸 작품 세계를 즐기며 예술을 쉽게 경험해보세요.

기간 : ~7월 28일까지

대상 : 가든파이브 갤러리

문의 : 02-2157-8776

가든아트마켓

가든파이브를 방문하신다면, 아트마켓을 잊지 마세요. 서울시청작공간 중 하나인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 공예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예, 판화, 북아트는 물론이고 일러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과 작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시 : 6월 1일,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1시~6시

장소 : 가든파이브 중앙광장

문의 : 02-2157-8776



가든파이브 아티스트 ‘가드너’

예술을 사랑하며, 재능을 가진 가든파이브의 시민 아티스트 ‘가드너’. 어렵고 난해한 예술 말고, 누구나 이해하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생활 속 예술을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시민 예술가들의 예술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민예술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올 여름 역시 시민 아티스트 가드너들은 가든파이브 곳곳에서 각자의 예술적 향취를 전할 예정입니다. 가든파이브를 방문하신다면 어디서 이들을 만날지 모르니 주의를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예술을 그저 편하게 즐겨주세요.

기간 : 5월~10월 매주 토·일요일, 오후 1시~6시

장소 : 가든파이브 일원

문의 : 02-2157-8776



오리지널 뮤지컬 <어린이 캣츠>

이미 <캣츠>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귓가에 울려퍼지는 아름다운 선율! 최고의 춤과 음악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무대! 새로운 상상과 감동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공연이 어린이를 위한 공연으로 재탄생했답니다. 의인화된 고양이들이 벌이는 인간 세계의 축소판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시다면 놓치지 마세요.

기간 : ~6월 16일까지

관람 연령 : 36개월 이상

장소 : 가든파이브 아트홀

티켓 가격 : 전석 2만 5,000원

예매처 : 문화숲프로젝트 홈페이지, 인터파크 티켓

문의 : 02-2157-8780(콜센터), 02-2157-8774



가이아 콰르텟 제6회 정기연주회

<Liebeslieder>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이루어진 협약 사중주단 '가이아 콰르텟'이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정통 협약 사중주곡뿐 아니라 국내에서 듣기 힘든 희귀한 곡까지 연주하며 협약 사중주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 장본인이라 할 수 있죠.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브람스의 음악 중에도 협악기만을 위한 실내악곡을 집중 조명합니다.

일시 : 6월 1일(토)

장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티켓 가격 : 전석 2만 원

문의 : 010-8270-1131

QUARTET
GAI

LIEBESLIEDER
BRAHMS FOR STRINGS



가든파이브예술학교 <어린이합창단>

가든파이브만의 차별화된 전문 어린이 음악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각자의 재능과 수준, 관심에 맞춰 세심하게 진행되는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표현력과 자신감을 아주 즐겁게 길러주세요.

기간 : 5월~7월

장소 : 가든파이브 예술놀이터

문의 : 02-2157-8776

연극 <사랑을 묻다>

50세, 삶에 친한 주인공 명호는 20대 때 무대 위에서 훌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다시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열정이라 생각하며 그 사랑을 찾으려 노력하는데요, 과연 그의 사랑 찾기는 성공할까요? 그가 원하는, 찾고자 했던 사랑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무대를 주목해주세요.

기간 : ~6월 9일까지

장소 : 선돌극장

티켓 가격 : 전석 2만 5,000원

문의 : 02-747-3226



가든파이브예술학교 <어린이뮤지컬>

종합예술 뮤지컬을 통해 춤과 노래, 연기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린이들의 감성 계발을 위한 뮤지컬 교육으로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함께 배우며, 협동심을 배우는 시간이 펼쳐집니다.

기간 : 5월~7월

장소 : 가든파이브 예술놀이터

문의 : 02-2157-8776

연극 <데모크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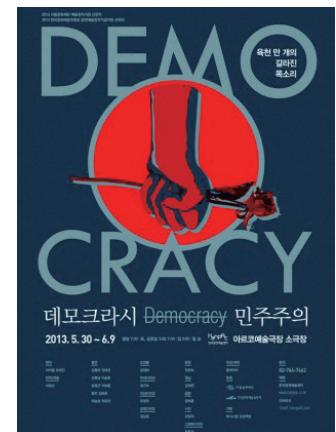
지금 정치처럼 우리 사회에 뜨거운 화두가 없죠. 연극 <데모크라시>는 소재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과감하게 관객들에게 화두를 던지는 작품입니다. 새로운 정권을 맞은 한국 관객들에게 연극 <데모크라시>는 '정치 연극'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한국적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기간 : ~6월 9일까지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티켓 가격 : 일반석 3만 원

문의 : 070-4233-7609



연극 <슈퍼맨처럼-!>

초등학생과 부모를 위한 웰메이드 공연을 찾고 계신다면 주목해주세요. 어린이극은 어린이만 볼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줄 좋은 연극을 소개합니다. 연극 <슈퍼맨처럼-!>은 장애를 소재로 합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조명받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유쾌하게 드러내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답니다. 물론 교훈을 주는 방식은 아주 재미있어 무겁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생각의 전환을 줄 연극 <슈퍼맨처럼-!>을 주목해주세요.

기간 : ~6월 12일까지

장소 : 학전블루 소극장

티켓 가격 : 일반석 2만 2,000원, 어린이 1만 8,000원

문의 : 02-763-8233



연극 <주머니 속 선인장>

<주머니 속 선인장(원제:A Lousy Performance)>은 누구나 감추고 있는 가슴 아픈 기억, 수치스러운 자아를 꺼내놓는 배우들의 작업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나약함'도 하나의 힘임을 보여주고, 이겨야만 하는 경쟁에 둘러싸여 있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훈훈한 연극입니다.

기간 : ~6월 16일까지

장소 : 설치극장 정미소

티켓 가격 : 일반석 2만 5,000원

문의 : 010-4846-4235

연극 <일곱집매>

날카로운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창작연극을 만들어온 극단 연우무대 작품을 만나보세요. 지난 2012년 9월 공연 당시 전석 매진과 뜨거운 재공연 요청에 힘입어 2013년 서울연극제에 공식참가작으로도 선정됐으며, 연장 공연에도 돌입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부침 속에서 살아온 평택 안정리 기지촌 여성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기간 : ~6월 23일까지

장소 : 연우소극장

티켓 가격 : 일반석 2만 5,000원

문의 : 02-744-7090

4 tue

성왕현 개인전 <WANDERER>

언제나 재개발 현장은 두터운 장막으로 가려진 채, 현실과 동떨어져 있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성왕현 작가의 개인전은 재개발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포착합니다. 두터운 장막으로 가려진 재개발 현장의 기억을 장막의 틈 사이로 끄집어내는 전시를 통해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사회의 일부를 만나보세요.

기간 : 6월 4일~12일까지

장소 : 서교예술실험센터

문의 : 02-333-0246

<판화의 유쾌한 변신, Cool Print>

<판화의 유쾌한 변신> 기획전은 디지털미디어에 편중된 오늘의 시각예술 환경 속에서 일반인, 미술교육자, 전문 판화작가들이 한데 모여 가장 전통적인 의미의 수공적인 판화에서부터 첨단매체를 이용한 판화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보고,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의미의 판화뿐만 아니라 전단지, 전위적 형태의 거리예술행위, 회로기판 등의 산업생산물 등 우리 주변의 생활에서 어떻게 판화의 기법들이 응용되고 판화적 개념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즉 우리 한국 판화의 혁신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기획된 것이죠. 아울러 초창기부터 한국 판화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한국 원로 판화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판화의 신기원> 특별 초대전, <Cool Peace Print> 미니 프린트 특별전, 일본 혼카이도 판화 초대전,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백 콘테스트, 한국현대판화가협회 정기 공모전 등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판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많이 관람해주세요.

기간 : 6월 4일~11일까지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1·2 전시실

문의 : 010-8817-6964



5 wed

관악창작공방 <금속으로 만드는 나의 이름표>

금속을 이용하여 동물 모양의 이름표를 만들어보는 금속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금속이라는 소재로 인해 일반 가정에서는 쉽게 공예 기회를 만들기가 어렵죠. 전문가의 지도 아래 이뤄지니 이런 걱정도 덜어주며, 아이의 창의력이 좀 더 명확하게 발현되도록 도와드립니다.

기간 : 6월 5일~7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1시

장소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층 쪽

문의 : 02-871-7400

8 sat

한마음살림장

살림에 필요한 물건은 직접 살림하는 사람이 더 잘 안다고 하죠. 한마음 살림장에서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하며 만든 다양한 생활의 지혜와 기술이 녹아 든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답니다. 시민청에 들르신다면 잊지 말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 6월 8일~9일까지

장소 : 시민청

문의 : 02-2232-8833

12 wed

마음의 그림으로 힐링하다 <민화 Healing>

치유, 회복의 의미가 깃든 우리

그림을 만날 기회입니다. 전통 민화에 담긴 치유의 느낌을 독특한 전시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 6월 12일~18일까지

장소 : 아라아트센터

문의 : 010-7757-8079

〈아현동 OOO, 틈을 메우다〉

복합예술공간 아트스페이스에서 전시되는 〈아현동 OOO, 틈을 메우다〉 전은 재개발로 사라져버린 북아현동의 틈(Crack)을 예술가와 일반인들이 참여한 전시를 통해 되새겨보는 전시입니다. 오래된 흔적들과 삶의 공간에서 나오는 과거를 공유하며 함께 지내온 사람들과 교감하고자 하는 뜻 깊은 전시를 만나보세요.

기간 : 6월 8일~19일까지

장소 : 복합예술공간 아트스페이스,

아현역 내 부분 전시

문의 : 010-3398-9155



14 fri

〈트루베르 파티 - 봉도의 어느 날〉

이름만큼이나 독특한 공연이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열립니다. 시와 함께 노래, 마임, 춤, 연주를 접목시켜 연극적 요소를 가미한 복합공연으로 다양한 예술 장르들

이 경계를 넘나들며 만들어내는 새로운 예술 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시 : 6월 14일 오후 7시

장소 : 연희문학창작촌

문의 : 02-324-4690

15 sat

〈이미지 폐노메논〉

영상과 한국 전통 촘사위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예술의 형태를 시도하는 다원예술 전시가 열립니다. 서로 이질적인 장르가 만나 어떤 신선한 세계를 만들어낼지 기대 바랍니다.

기간 : 6월 15일~27일까지

장소 : 서교예술실험센터

문의 : 02-333-0246

〈열린행성 프로젝트〉

〈열린행성 프로젝트〉는 예술에 선천적 재능이 있는 자폐를 가진 청소년 작가 5명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행성을 열어보이는 프로젝트입니다. 예술이라는 틀은 이들이 가진 사회적인 약점이 매력적인 예술가로서의 재능이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들의 독특한 개성과 모습을 통해 그들이 가진 가치를 느끼고 서로 교감 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아티스트들의 작품으로 콜라보레이션 한 머그컵과 스카프 등이 함께 소개될 예정입니다.

기간 : 6월 8일~19일까지

장소 : 밀알미술관

문의 : 010-9251-1530



19 wed

〈끼리댄스페스티벌 2013〉

예술가, 관객, 일반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무용 축제가 열립니다. 춤으로 만들어내는 화합의 세계를 경험해보세요.



기간 : 6월 19일~30일까지
장소 : 아리랑아트홀
문의 : 02-399-1766

〈전은희 개인전〉

문파는 누군가가 살고 있음을, 그 존재를 증명하는 사물입니다. 작가 전은희는 사르트르가 말한 존재의 두 가지 방식인 현존과 부재의 증명을 문파라는 사물이 가진 기능으로 표현합니다. 작가가 펼쳐낼 심오한 예술의 세계를 만나보세요.

기간 : 6월 19일~24일까지
장소 : 인사이트센터
문의 : 010-3449-3099

20 thu

글로리아오페라단 창단 22주년 기념 〈오페라 G.Puccini 작곡 토스카〉



음악과 극의 조화, 삶과 감정 표현을 중시한 사실주의 오페라의 대표작을 만날 기회입니다. 매력적이고 정열적인 여가수 토스카와 그녀의 연인이자 자유주의 화가인 카바라도시, 권력의 중심에 있던 경시 총감 스카르피아를 통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사랑, 질투, 탐욕, 증오 등 복잡한 감정들을 끌어내는 비극 대서사시입니다.

기간 : 6월 20일~22일까지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티켓 가격 : R석 25만 원, S석 15만 원, A석 10만 원, B석 7만 원, C석 3만 원, D석 1만 원
문의 : 02-543-2351

21 fri

〈금난새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재치 있고 쉽게 음악 세계를 살피하기로 유명한 지휘자 금난새 씨의 음악회가 열립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음악이라는 장르에 좀 더 쉽게 다가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13. 6.21(금)~6.22(토) [가든파이브아트홀](#)
금, 토 19:00 관석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02) 2157-8780 www.gculture.or.kr

일시 : 6월 21일~22일 오후 7시
관람 연령 : 초등학생 이상
장소 : 가든파이브 아트홀
티켓 가격 : 전석 2만 원
예매처 : 문화숲프로젝트 홈페이지,
인터파크 티켓
문의 : 02-2157-8780 (콜센터),
02-2157-8774



22 sat

주말공연프로그램 관악명랑방석극장 연극 〈봉장취〉

전통음악 '봉장취'를 현대적인 재담과 음악으로 재구성 한 공연입니다. 어린이들이 접하기 힘든 우리 전통음악의 새로운 매력을 알려줄 기회입니다.

일시 : 6월 22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장소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1층 밭
문의 : 02-817-7400

〈썸머페스티벌〉

여름입니다. 고로, 밤에 즐길 거리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여름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음악과 무용이 가득한 한여름 밤의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이런 날에는 그냥 평범한 가요나 팝송 대신 좀 더 이국적인 음악을 들어도 좋겠죠. 몸은 여기에 있지만 듣는 내내 우리의 마음은 세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 6.22(토) : 타악그룹 공명 <공명유희>

모든 음악과 모든 소리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룹 '공명'은 국내외 대표적인 월드 뮤직 그룹입니다. 우리 전통음악 특유의 서정성에 다양하고 흥겨운 리듬을 더해 우리가 생각하는 국악의 틀을 깨줄 신선하고 리듬감 넘치는 선율을 들어보세요.

◎ 6.23(일) : 두번째 달 <바다를 꿈꾸다>

국내 최초 에스닉 퓨전 음악을 선보이는 '두번째 달'은 CF,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 여러 분야에서 작곡과 연주 실력을 인정받은 월드뮤직 밴드죠.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 고유의 민속음악을 다양한 방법으로 친근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기간 : 6월 22일~7월 21일 오후 7시 30분, 상기 일정 중 주말 개최

장소 : 가든파이브 중앙광장

문의 : 02-2157-8775

27^{thu}

픽처플레이 <구름빵>

픽처플레이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시다면 그림자로 극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인형극이나, 사람이 출연하는 극과 달리 상상력을 더욱 자극해줄 수 있는 그림자들이 무대 가득 채워집니다. 원작 <구름빵> 속 홍비와 홍시가 구름빵을 만들어 아빠의 출근을 돋는다는 단순한 스토리가 그림자를 만나 풍성해졌답니다. 상상력을 자극할 최고의 공연으로 추천합니다.



기간 : 6월 27일~7월 28일까지

관람 연령 : 24개월 이상

장소 : 가든파이브 아트홀

티켓 가격 : 전석 2만 원

예매처 : 문화숲프로젝트 홈페이지, 인터파크 티켓

문의 : 02-2157-8780(콜센터), 02-2157-8774

29^{sat}

〈Ground Force Session 10회〉

노숙인 아마추어 극단 '연필통'

(연극으로 필[Feel/必]이 통하는 사람들)의 창작 그림 자극 공연이 펼쳐집니다. 가장 소외된 계층인 노숙인들이 연극이라는 표현 수단을 만나 만들어낸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일시 : 6월 29일

장소 : 서교예술실험센터

문의 : 02-333-0246

〈하늘樂콘서트〉

시원한 바람이 부는 옥상정원에서 음악을 즐기고 운치를 즐기세요. 더운 여름 밤 도시 속 틸출을 꿈꾸는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 6.29(토) : 이지형밴드

인디씬의 전설적인 밴드 위퍼(Weeper)의 보컬 겸 기타리스트로 활동한 이지형은 드라마 OST, 토이 6집의 '뜨거운 안녕'의 객원보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죠. 최근에는 <불후의 명곡> 우승까지 거머쥔 2000년대 대표적인 싱어송 라이터입니다.

◎ 6.30(일) : 로켓트리

로켓처럼 하늘을 만나고 싶은 예쁜 나무 이미지의 팀명처럼 보컬의 깨끗한 목소리와 그들의 감수성이 묻어나는 노랫말이 함께 어우러져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룹입니다.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자연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기간 : 6월 29일~9월 29일 오후 7시 30분, 상기 일정 중 주말 개최

장소 : 가든파이브 테크노관 옥상공원

문의 : 02-2157-8775



30^{sun}

〈서울 캐나다 워크〉

지난 5월호 「문화+서울」에서는 '서울시 대표 B-boy 단'을 만나봤는데요, 이들의 역동적인 무대를 직접 눈으로 보실 기회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 모두 청계광장으로 모여주세요! 당당하게 서울시 대표 문화사절단으로 뽑힌 우리 비보이단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즐겨주세요.

일시 : 6월 30일 오후 7시~8시

장소 : 청계광장

문의 : 02-3290-7163

어떤 소식이든 올려드립니다

강좌 안내, 스터디 모임 모집, 밴드나 극단 멤버 모집, 공연 홍보 혹은 마을공동체 행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나누고 싶은 문화예술 소식을 게재해드립니다. 단, 지나친 상업성이나 홍보성이 없고 일정 정도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소식에 한합니다. magicpuppy@sfac.or.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연륜을 나눠주세요

희망제작소가 사회공헌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중·장년층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꿈이 이웃을 풍요롭게 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은 베이비부머 세대 스스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고민해보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6월 16일까지 사회공헌과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든 보내주세요. 40~60대의 개인이나 3인 이하의 팀이면 참가 가능합니다. 공모 주제는 '시니어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웃과 사회를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나 '나의 꿈과 흥미를 활용해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고로, 다양한 사회 경험과 연륜이 쌓인 시니어 층의 번뜩이는 사회공헌 아이디어라면 어떤 것이든 좋다는 뜻입니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18개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실행을 위해 워크숍도 실시하게 됩니다. 추후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청년세대 팀원과 함께 현실화 작업에도 착수합니다.

기간 : ~6월 16일까지

접수 방법 :

- 홈페이지 :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http://www.happysenior.makehope.org)

홈페이지([happysenior.makehope.org](http://www.happysenior.makehope.org)) 접수

- 우편 : 서울 종로구 평창동 290-11 비전빌딩 2층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

문의 : 02-2031-2145 · 2123, makehappy@makehope.org

극장을 빌려드립니다

연극과 공연의 메카, 대학로 최고의 위치에 자리한 익스트림씨어터가 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혜화역 1번 출구에서 30m에 불과한 최적의 자리 조건에 정규 좌석 161석과 보조석 20석을 포함해 적당한 크기까지 갖췄습니다. 대관 기간은 6월 17일부터 10월까지입니다.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찾고 계신 분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관 기간 : 6월 17일~10월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33, 혜화역 1번 출구 크라제버거 건물 5층

문의 : 070-8129-7420, 010-5388-6154

월드 뮤직의 세계로 떠나실 분!

우리가 듣는 음악은 참 한정되어 있죠. 어디를 가나 아이돌 음악 천국입니다. 나쁘진 않지만, 때로 다양한 음악에 대한 갈증도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갈증을 해소하고 싶으신 분을 위해 명동의 복합문화공간 커먼플레이스에서 '월드 뮤직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듣고 느끼는 것이 음악이지만, 희귀한 장르로 분류되는 월드 뮤직을 위해 길잡이가 되어줄 사람이 있다면 한층 이해가 빨라지겠죠. 음악은 그 나라와 시대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월드 뮤직을 배운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이면, 세상의 다른 면을 보고자 하는 것과 달아 있죠. 자메이카, 쿠바,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페인, 그리스 등등 단조로워진 우리의 눈과 귀를 트이게 해줄 특별한 경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시 : 6월 7일(카리브해 연안의 월드 뮤직)

6월 21일(남미의 월드 뮤직)

장소 : 명동 복합문화공간 커먼플레이스

수강료 : 1회 1만 원

신청 방법 : 커먼플레이스 카페(cafe.naver.com/mycommonplace) 댓글 신청 혹은 전화 신청

문의 : 02-755-9478~9

마로니에 여름축제의 프렌즈를 찾습니다

오는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될 한여름의 시원한 공연예술축제 <마로니에 여름축제>에서 자원봉사자, '마로니에 프렌즈'를 모집합니다. 과거 찬란했던 대학로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마로니에 여름축제>의 공연 현장 깊숙이 열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관람객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고 공연팀과 커뮤니케이션 등을 담당할 축제운영팀, 축제 현장을 기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할 홍보·마케팅팀, 극장 및 야외무대 전반을 관리할 스테이지팀 등 원하시는 분야에 맞춰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프렌즈가 되시면 차비 및 식대 등 소정의 활동 실비를 지급해드리며, 축제 내 공연을 무료로 관람하는 것은 물론 축후 한국공연예술센터 인턴 입사 지원 시 가산점도 부여해드립니다.

모집 기간 : ~6월 9일까지

활동 기간 : 7월 18일~27일까지

지원 방법 : 한국공연예술센터 홈페이지(www.hanpac.or.kr) 내

공지 사항의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jsk@hanpac.or.kr) 접수

문의 : 02-3668-0108

쫓겨난 예언자, 만드는 세계: 금천예술공장 4기 오픈스튜디오

오피닝 2013.05.23.(목) 5pm

- 퍼포먼스1 '안데스 – 듣기 싫은 노래 메들리'
- 퍼포먼스2 '무느만커뮤니티 – 커뮤니티를 위한 모뉴멘트'
- 퍼포먼스3 '이은우, 장현준, 차재민, 최은지 – 시공을 신체'
- 예술가 9인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5분까지'
- 전문가 비지팅 입주작가&전문가 1:1토크 (비공개 진행)

강지윤+장근희
곽이브
금천미세스
무느만커뮤니티
박천웅
안데스
이은우
이창훈
조현아
차재민
최원준
하이브

Chaja Hertog&Nir Nadler
Deniz Uster
Lim Shengen
Liz Park
Monica Gallab
Olivia Ting
Surya Gied

4기 오픈스튜디오 쫓겨난 예언자, 만드는 세계

19개 스튜디오 오픈

- 05.23.(일) : 15:00~20:00
- 05.24.-05.26.(3일간) : 10:00~18:00

○ 오픈스튜디오 기간 개속되는 퍼포먼스

금천미세스, 하야 허토흐& 니르 나들러(Chaja Hertog & Nir Nadler),
데니즈 우스터(Deniz Uster)

기획전 버려지고 흘어진 것에 아쉬워하는 – 전시와 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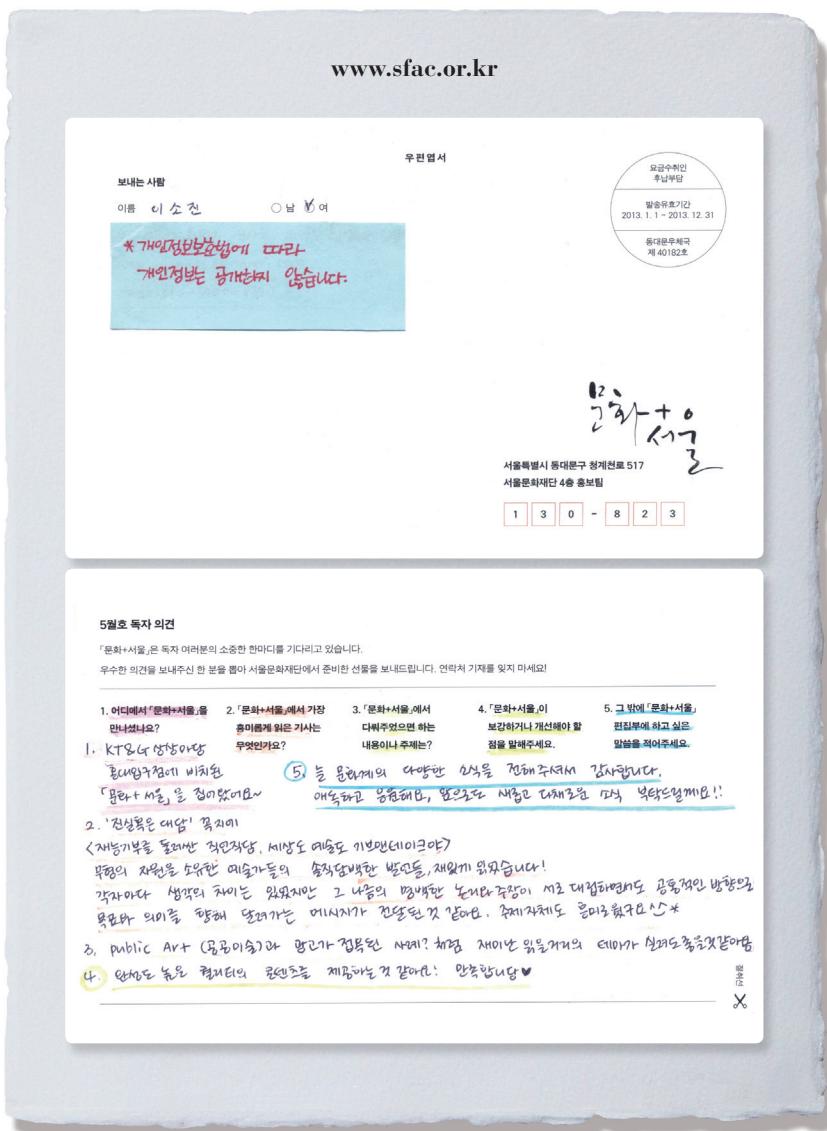
- 큐레이터 리즈 박(Liz Park)
- 2013.05.23.(목)~06.21(금) (30일간), 10:00~18:00
- 참여작가 강지윤+장근희, 곽이브, 모니카 갤럽(Monica Gallab),
미스라이스, 안정주, 이창훈, 차재민



@Deniz Uster, 69, HD video, 16:9, 29.50minutes, 2012

「문화+서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으신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서슴지 말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한 분께 CGV 영화 무료관람권 2매를 보내드립니다.



「문화+서울」은 무기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기관을 방문하셔서 무료로 비치된 잡지를 확인하거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로 들어오셔서 e-book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배포처

서울연극센터, 대학로연습실, 남산예술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화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잠실창작스튜디오, 홍은 예술창작센터, 가든파이브, 시민경, 서울도서관, 서울시립미술관 외

편집 후기

벌써부터 너무 덥다. 청계천에 발 담그고 여유롭게 마감할 상상을 해본다. 꿈은 그저 꿈이려니 하면서도….

꿈은 이루어진다는데 여유로운 마감은 요원할 듯~.

- 이정훈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페이스북에 <예술적 상담소>가 열렸던 5일간, 수십 건의 질문이 들어와 답변자를 섭외하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번 달에도 <예술적 상담소>를 개설할 예정이니 재단 페이스북 페이지를 주시해 주세요!
<http://fb.com/sfac.kr>

- 이준걸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지난 3주간 열정 넘치는 배우분들과 함께하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7월에 더욱 힘내서 파이팅!!

- 김윤경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를 직접 소개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국내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공예 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조예인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

지난달에는 짬을 내 제주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서울과는 전혀 다른 공기와 분위기를 느끼고 왔습니다. 이 긍정적 기운을 나눠드리려 노력했는데, 전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호도 기대해주세요.

- 차운경 제이콘텐트리 편집부

벌써 여름입니다. 벌써 밤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지는 때라니요. 계절 바뀌는 것도 모르고 지나갔네요. 여름의 뼈마는 밤이죠. 서울의 여름 밤을 즐길 시간입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며 훌훌 털어내고 마감 기념 성과 산보나 나서야겠습니다.

- 유나리 제이콘텐트리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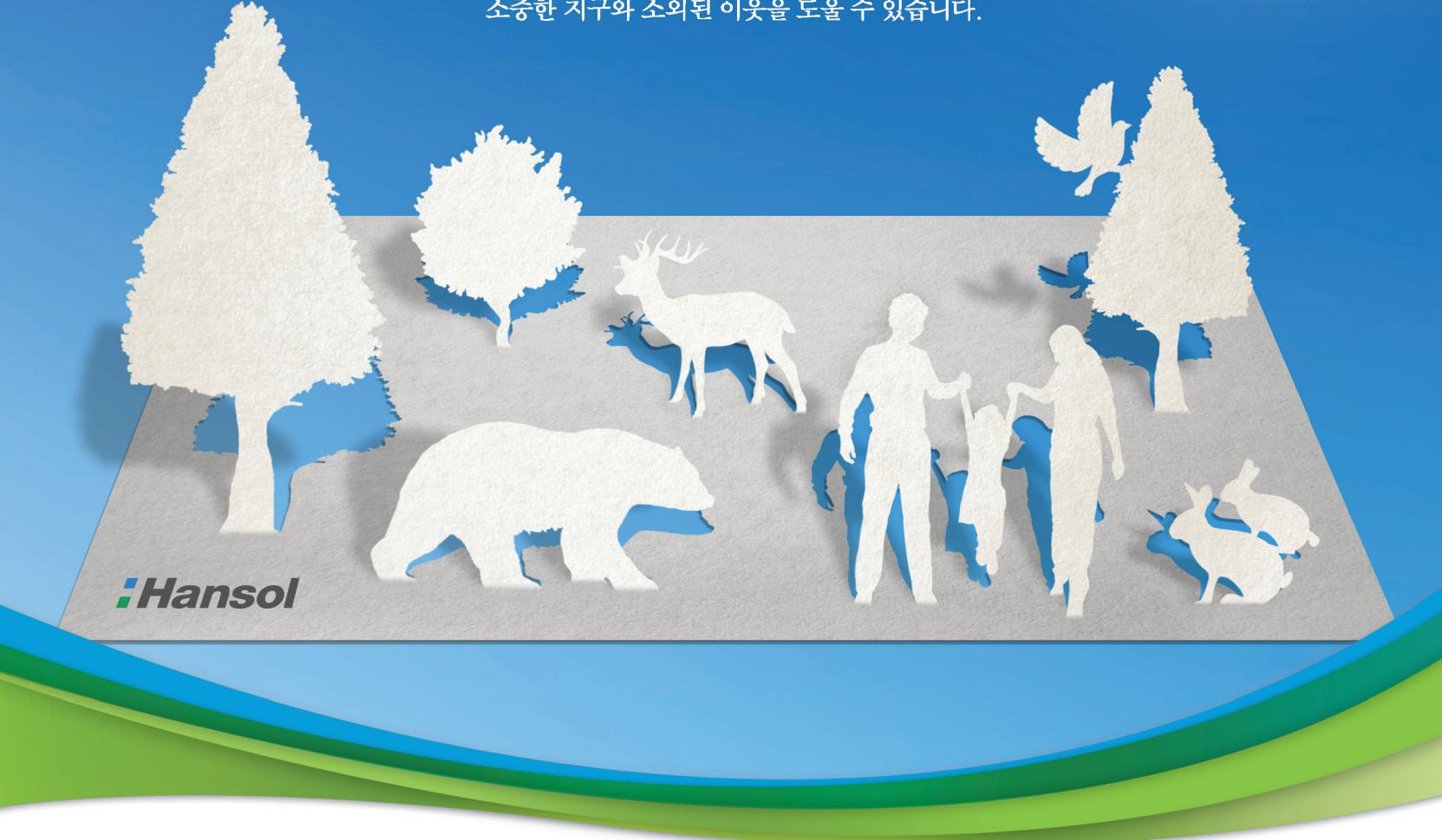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0년 연속수상
(2004년~2013년)**

Hansol
한솔제지

쓰면 살아납니다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소중한 지구와 소외된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친환경 재생아트지 출시

기술 없이는 환경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한솔의 환경사랑〉

- 1970년 국내 최초 폐지 재활용 시작
 - 1992년 신문용지, 그린백상지 환경마크 획득
 - 2007년 국내 최초 친환경 고급인쇄용지 출시
 - 2008년 FSC 인증 획득
 - 2010년 국내 최초 친환경 아트지 출시
 - 2012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제품상」 수상

○ 한솔제지 녹색제품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제품인 Hi-Q 듀오매트블루, 뉴백상블루 (미색포함), 뉴플러스블루는 축적된 한솔의 노하우로 최적의 원료 배합과 특수 코팅과정을 통해 최고의 품질을 구현합니다.



아트지: Hi-Q듀오매트블루	100~300g/m ²
백상지: 뉴백상블루(미색포함)	60~100g/m ²
MFC: 뉴플러스블루	70~120g/m ²

○ 종이, 그 이상의 가치

한솔제지는 친환경 재생용지 판매수익금의 1%를 매월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문화+서울」은 학술제지의 치환경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테마 토크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발표 후 1년,
100년 후 미래유산의 가치를 묻다

사람과 사람

만화가 박재동

결정적 순간

6·25, 그 긴박했던 시절의 작가들

고재열의 셀(設)

계몽이 아니라 모범이 필요해

문화 체험

서울연극센터 PLAY-UP 아카데미

예술 공작소

여기는 시장? 아니 예술 공작소!

신당창작아케이드

서울문화매뉴얼